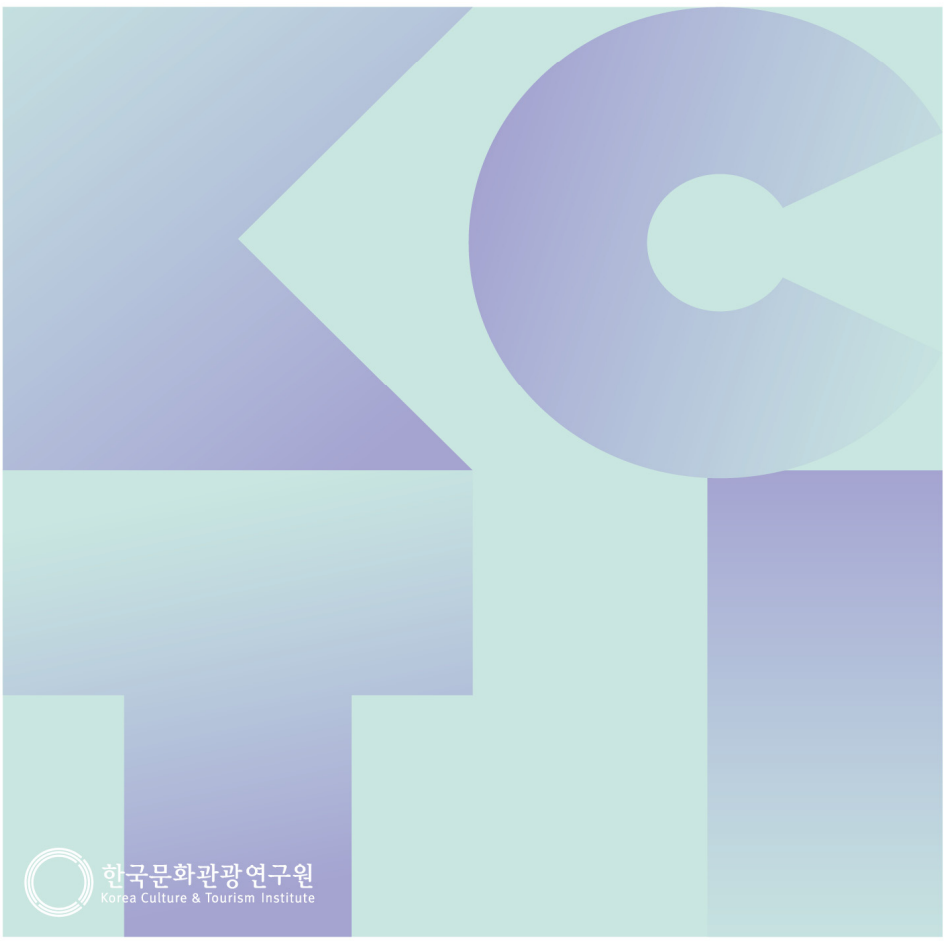
지역 문화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2022-03
정책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System

장 훈
노영순



장책연구 2022-03

지역 문화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System

장 훈·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① 지역 중심의 근거 기반 정책 수립 필요성 증가

-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문화정책의 재원 투입에 대한 적절하고, 비교 가능한 근거 제시 요구 확대
- 지역자치분권의 국정 기조 속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에서 근거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문화정책 추진으로 전환 필요

②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문화통계의 부족

-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다양한 문화정책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에 필요한 지역단위 문화통계데이터 부족
- 지역의 경제발전, 삶의 질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단위 통계체계가 개발 확산하고 있지만, 문화 분야의 지역단위 통계체계 발전은 미흡

2) 연구 목적

- 지역 문화통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안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대상적 범위: 국가승인 문화통계, 지역(단위) 문화통계

2) 연구방법

- 지역 문화통계 현황분석: 지역 문화통계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지역단위 문화통계 현황 분석
- 자문 및 설문조사: 지역 문화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사례조사: 국내외 지역단위 통계의 사례조사 및 참조사항 확인

2. 지역 문화통계의 개념 및 필요성

가. 지역 문화통계의 필요성

1) 국가통계정책 동향

- 1995년 6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광역은 물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밀착형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통계의 중요성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
- 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에 따라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 시군구 GRDP개발·개선 등의 기초통계 작성
- 2차 국가통계발전 계획(2018~2022)의 지역통계 계획부문 지역단위 통계지표 서비스를 확충 및 개선하고 지역사회조사, 시군구 GRDP,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등 주요 지역통계를 확산하고, e-지방지표 지표체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추진

2)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지역 문화통계의 필요성

- 통계기능 역시 다른 중앙 사무와 마찬가지로 중앙 집중적 방식에서 지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필요
- 지역자치분권에서 자치의 토대가 분권이라면 자치의 실현은 자치단체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고 자치 역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자치단체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통계역량임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문화통계의 필요성

- 지역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점은 지역의 격차 문제이고, 지역의 격차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정보를 통해서만 확인
-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통계는 필수적임

4)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문화통계의 필요성

■ 지방정책의 수립 주체가 지자체가 된 이후 지역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통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 문화통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행정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나. 지역 문화통계의 개념

1) 지역 통계의 개념

■ 선행연구의 지역통계 개념을 정리해보면 지역통계란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해주는 수치

■ 통계청에 의하면 국가통계는 전국단위 통계와 지역통계로 구분되며 지역통계는 다시 중앙에서 작성하는 전국범위 통계와 지자체에서 지자체 범위만을 작성하는 지자체 범위 통계로 나뉨

지역통계의 개념적 위계

<table>
<tr><td colspan="4">국가통계</td></tr>
<tr><td>전국단위통계</td><td colspan="3">지역통계</td></tr>
<tr><td></td><td>전국범위
(중앙행정기관)</td><td colspan="2">지자체범위
(지자체작성)</td></tr>
<tr><td></td><td></td><td>주요 지역통계
(전 지자체)</td><td>특화통계
(일부 지자체)</td></tr>
</table>

2) 문화통계의 개념

■ 문화통계의 영역은 문화의 분류와 문화의 순환주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문화통계프레임이 기본 참조 점이 됨

■ 국내법, OECD, EU에서 구분하는 문화영역, 문화순환주기는 유사함

유네스코 문화통계 매트릭스

		문화영역					
		문화 및 자연유산	공연	시각예술	도서 및 출판	동영상 매체	디자인 및 창작
문화 순환주기	창작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생산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전파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전시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소비 및 참여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출처: UNESCO(2009)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문화통계의 목적은 **문화상품**이 잘 생산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잘 **전달**됨으로써 **국가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임

2) 지역 문화통계의 조작적 정의

■ 지역 문화통계를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 문화통계의 주요 고려 요소

구분	고려 요소
시장구분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을 구분하여 볼 필요
문화영역	유네스코 통계프레임에서 제시한 문화영역을 기초로 문화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구분일 수 있음
문화순환주기	기본적으로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의 구조 속에서 문화상품 시장, 문화의 영역의 특징에 따라 주기의 형태가 약간 변형될 수 있음
문화통계 내용	영역별 문화상품 및 서비스(상품, 작품, 프로그램 등)의 흐름에 따라 관여된 주요 주체(창작자, 종사자 등) 및 인프라(시설 등) 등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 공공시장의 경우 정부도 주요 주체로 포함
지역구분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 및 행정의 최소 단위인 시군구 지역의 통계 필요

■ 위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지역 문화통계는 공간적으로 시군구의 문화시장(공공시장과 민간시장)에서 문화상품(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도서출판, 시청각/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 등)이 순환(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 관여된 인력, 시설, 상품, 프로그램, 정책 등에 대한 통계로 정의할 수 있음

3. 지역 문화통계 현황

가. 국가 승인통계 현황

1) 부문별 지역통계 작성현황

부문별 지역 및 소지역통계 작성현황

영역	계	기타	전국	지역 (A+B+C)		시도 (A)	소지역 (B+C)		시군구 (B)	읍면동 (C)
계	1293	17	451	825	63.8%	183	642	49.7%	311	331
건설	21	0	16	5	23.8%	4	1	4.8%	1	0
경제일반·경기	15	0	13	2	13.3%	1	1	6.7%	0	1
과학·기술	20	0	19	1	5.0%	1	0	0.0%	0	0
광업·제조업	17	0	12	5	29.4%	3	2	11.8%	2	0
교육·훈련	15	1	9	5	33.3%	5	0	0.0%	0	0
교통·물류	28	1	17	10	35.7%	6	4	14.3%	3	1
국민계정	23	0	5	18	78.3%	2	16	69.6%	16	0
국토이용	10	0	2	8	80.0%	5	3	30.0%	2	1
금융	16	0	15	1	6.3%	1	0	0.0%	0	0
기업경영	27	1	17	9	33.3%	9	0	0.0%	0	0
노동	38	0	27	11	28.9%	8	3	7.9%	2	1
농림	42	1	20	21	50.0%	14	7	16.7%	7	0
도소매·서비스	21	0	17	4	19.0%	4	0	0.0%	0	0
무역·국제수지	17	0	17	0	0.0%	0	0	0.0%	0	0
문화.여가	24	0	21	3	12.5%	2	1	4.2%	1	0
물가	9	1	7	1	11.1%	1	0	0.0%	0	0
범죄·안전	32		27	5	15.6%	4	1	3.1%	1	0
보건	63	2	41	20	31.7%	14	6	9.5%	6	0
복지	28		15	13	46.4%	9	4	14.3%	4	0
사회일반	24	2	12	8	33.3%	6	2	8.3%	2	0
소득·소비·자산	6	0	5	1	16.7%	1	0	0.0%	0	0
수산	14	0	9	5	35.7%	4	1	7.1%	1	0
에너지	16	0	11	5	31.3%	5	0	0.0%	0	0
인구	10	0	5	5	50.0%	2	3	30.0%	1	2
임금	11	0	11	0	0.0%	0	0	0.0%	0	0
정보통신	36	0	33	3	8.3%	3	0	0.0%	0	0
정부재정	21	0	18	3	14.3%	3	0	0.0%	0	0
주거	15	1	4	10	66.7%	5	5	33.3%	4	1
지역통계(제외)	636	5	0	631	99.2%	54	577	90.7%	253	324
환경	38	0	26	12	31.6%	7	5	13.2%	5	0

■ 〈국민계정〉, 〈국토이용〉, 〈주거〉 부문은 풍부, 〈농림〉, 〈복지〉, 〈인구〉 부문의 지역통계는 적정

■ 〈경제일반〉, 〈과학기술〉, 〈금융〉, 〈도소매/서비스〉, 〈문화여가〉, 〈물가〉, 〈범죄/안전〉, 〈소득/소비/자산〉, 〈임금〉, 〈정보통신〉, 〈정부재정〉 부문은 지역통계의 작성이 취약함

2) 지역통계 중 문화 분야 포함 통계

■ 지역에서 생산하는 문화여가 관련 승인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본통계와 사회조사 항목에 문화 분야가 포함

나. 문화통계 현황

1) 중앙작성 문화통계 현황

① 문화 분야 승인 통계 현황

■ 통계청의 통계부문 구분에서 문화여가 관련으로 구분된 통계는 총 24종이고, 문화여가분야로 구분되지 않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에서 작성하는 문화 분야 승인통계는 총 7종으로 확인

- 공표범위를 검토한 결과, 공연예술조사가 시도까지 공표하고 있고, 지역문화현황통계만 유일하게 시군구 공표를 하고 있음

② 문화 분야 비승인 통계 현황

■ (조사통계) 문체부에서 생산하는 주요 비승인 통계는 대략 10종 내외로 파악되는데, 문화시설 관련 조사가 가장 많음

- (표본) 대부분의 조사통계의 표본은 전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통계시스템) 일반적인 통계 형식으로 조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가 축적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

- (표본) 주요 문화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정보는 시장정보, 정책정보, 인적자원정보, 자료 정보 등으로 전수를 대상으로 함

③ 문화통계 내용 분석

- (통계 대상) 승인통계, 비승인 통계, 시스템 등을 포괄해서 작성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역문화정책(총괄), 문화자원, 인력 및 단체, 문화프로그램, 문화참여, 문화산업(문화시장) 영역에 대한 통계로 나뉨
- 행정통계, 조사통계 모두에서 통계의 세부내용(문화장르의 구분, 문화시설 기초내용, 조사통계의 표본, 응답자 특성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통계에 따라 다르게 수집되고 있음

2) 지역 작성 문화통계 현황

① 자치단체 문화지표 현황 및 비교

- 문화 통계수집의 프레임이 되는 자치단체의 문화지표는 서울, 부산, 인천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음
- 서울, 부산, 인천 지역에서 작성하고 있는 문화지표는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향유, 문화행정의 큰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시장 영역이 대분류에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

② 자치단체 문화향유 조사 현황 및 비교

- 반복적으로 최근까지 문화수요를 조사하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지역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사하는 문항에 차이가 있고, 조사구조(조사대상, 조사주기, 표본수 등)에서도 차이를 보임

4. 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목적: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구축을 위해 지역별 문화통계 현황 및 문화통계 정책수요 파악
- 조사대상: 조사 대상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228개 자치단체(행정시 포함)의 문화통계 담당자, 17개 광역시도 광역문화재단, 전국 116개 기초문화재단 문화통계

관련 담당자

■ 조사내용: 조사항목은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 지역단위 문화통계 정책 수요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

나. 자치단체 문화통계 관리 현황

■ 지역에서 문화통계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문화정책의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통계 생산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관리되고 있는 통계는 문화시설과 예술인 관련 통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단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예산, 인력, 법적근거 등 통계 기반이 취약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지역의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생산·관리 비율	•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비율이 45.9%
생산·관리 영역	• 문화시설(61.4%)과 예술인(60.2%) 비율이 높음
생산의 법적근거	• 시설 27.5%, 예술인 38%, 문화프로그램 25.7%, 문화행정 50% • 문화향유 22.9%, 문화산업 33.3%
생산의 목적	•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근거확보 42.2% • 업무보고 활용 22.9% • 지역의 문화통계 자료 축적 19.3%
생산의 중요도 인식	• 문화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의 51.8%가 중요하다고 인식
문화지표 관리	• 문화지표를 관리하는 비율이 34.9% • 광역수준에서 지표관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문화통계 전담인력	•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가 84.3%
예산확보	•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비율 8.4% •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거나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
애로사항	• 관련 업무체계의 부재 34.9%, 관련인력 부족 27.7% • 문화지표,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로 무엇을 생산할지 모름 24.1%
비생산 이유	• 문화지표,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로 무엇을 생산할지 모름 24.1% • 중앙 통계로 충분한 25.5% • 예산확보의 어려움 18.4%

다. 지역단위 문화통계 정책수요

-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단위 문화통계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소한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의 통계가 필요
- 필요한 통계는 응답기관에 따라 필요 통계 인식이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향유 통계의 중요성은 확인
-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주체는 시민 문화수요와 밀접한 통계는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산업 등 영역은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을 선호
- 문화통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인력, 업무체계, 재원, 매뉴얼 등에 대한 정책 필요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

구 분	주요 내용
중앙생산 문화통계 활용도	• 공공문화시설 통계 56.1%, 문화프로그램 통계 53.6% 문화행정 통계 52.9%, 문화향유 통계 51.7%의 활용이 많음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필요성	• (동의) 전체 응답자의 68%가 필요성 동의 • (필요 이유) 문화정책의 추진근거로 활용 49.7% • (불필요 이유) 업무 가중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50%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공간적 범위 인식	•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수집 필요 63.2%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영역별 중요성, 시급성, 활용도	• (중요도) 공공문화시설 73.9점, 문화프로그램 73.6점, 다만, 세분해서 보면 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지역 문화향유통계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 • (시급성) 공공문화시설 69.3점, 문화행정 69.1점 • (활용도) 문화프로그램 69.8점, 공공문화시설 69.3점 다만, 광역문화재단의 수준에서는 예술인 통계 활용성을 높게 인식.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영역별 생산관리 주체	• (예술인) 기초자치단체 57.5% • (문화산업) 광역자치단체 47.5% • (공공문화시설) 기초자치단체 42.5%, 광역자치단체 42% • (문화향유) 기초자치단체 49.7% • (문화프로그램) 기초자치단체 55.8% • (문화행정) 광역자치단체 44.8%
지역단위 문화통계 거버넌스	• (협력 필요성) 전체 응답자의 69.7% 필요성 동의 • (적절한 협력체계)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49.4%
지역단위 문화통계 전담조직	• (필요성) 전체 응답의 55.8% 필요성 인식 • (적절한 조직) 지역 문화기관 49%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 고려사항	• 관련 인력 및 업무체계 76.9%, 재원 조달 76.4%, 관련 매뉴얼 76.1%

5. 사례분석

가. 국내사례

1) 사회조사

- 삶의 질과 관련해 가장 역사가 길고, 광범위한 조사로 현재 모든 기초자치단체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사회조사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조사표의 표준화와 지역의 참여 문제였는데, 조사표는 중앙에서 표준화하고 지역의 의무적 참여를 위해 법적인 근거 등이 마련됨
- 사회조사의 여가부문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문화체육관광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문화부문 통계와의 비교 및 조정을 위한 검토 필요

2) 지역사회건강조사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보건 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2008년 이래 법률(「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실시
- 성공적인 조사 정착 요인으로 법률적 근거,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의 표준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음
- 특징적으로 4년을 한 조사주기로 설정하고 지표의 중요도, 활용성, 표본 크기를 조정하여 조사

지역통계 국내사례

연도		주요 내용
사회조사	개요	•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 파악
	조사체계	• 초기에 지역별 지표와 항목이 달라 표준화 필요성 제기 • 표준화된 기본항목, 지역 특화항목으로 구분
	조사내용	• (짝수)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 (홀수)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시사점	• 기본 항목 표준화, 문화통계와의 일치성 검토 필요

연도		주요 내용
지역사회 건강조사	개요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산출
	조사체계	• 위원장, 시도위원회, 책임대학교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부가조사심의위원회, 실무간사 •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 지역거점 대학이 조사체계에서 역할
	조사내용	• 전국공통 조사표는 18개 영역, 163개 문항으로 구성
	시사점	• 조사수행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가. 국외사례

1) 영국 Active Lives Survey

■ 조사개요: Active Lives Survey는 14세 이상 영국 전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신체 활동 및 문화 활동을 포함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에 대한 조사

■ 추진체계: 문화예술, 스포츠, 건강에 관한 영구 정부기관의 협업체계를 통해 조사를 진행

■ 표본 수: 14세 이상 190,000명의 표본(지역별 최소 500명, 핵심도시는 최소 2,000명의 표본, 우선순위 지역은 1,000명의 표본)

■ 조사내용
- 문화예술: 예술참여1(참여), 예술참여2(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댄스 활동
- 스포츠 및 신체활동: 스포츠 및 주요 신체활동 여부 측정

■ 시사점: 표본 수 확대를 통해 세밀하고 광범위한 지역 문화조사 진행

2) 프랑스 Atlas Culture

■ 개요: Atlas Culture는 프랑스 영토에서 문화 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자 서비스이고, 광역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레지옹 단위로 통계 제공

■ 제공 통계: 문화부문 종사자, 문화기업의 비중, 지장자치단체의 문화지출, 문화시설과 장소

Atlas Culture의 지역 일반 개황자료 주요 항목

분야	제공통계 항목
인구·사회·경제 분야 통계	지리(Géographie), 인구(Démographied), 생활수준(Niveau de vie), 경제(Économie), 노동시장(Marché du travail), 교육수준(Niveau d'éducation), 삶의 질(Qualité de vie) 문화통계:
문화통계	문화제공(Offre culturelle), 문화 관련 일자리(Emploi culturel), 문화 관련 기업(Entreprises culturelles), 문화 관련 공공지출(Dépenses culturelles publiques)

■ 시사점: 프랑스의 'Atlas Culture'는 지역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특화 온라인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매우 유의미한 사례이며, 2021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

6. 종합진단 및 정책과제

가. 종합진단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의 종합진단 프레임

구분	내용
지역단위 문화통계프레임	• 문화통계 프레임은 수집되거나 수집해야 하는 문화통계 영역, 문화장르, 문화순환주기 등 통계의 대상을 의미 •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공급 측면과 수요측면의 내용이 포함되는 개념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집관리 체계	• 문화통계 수집관리체계는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수집하고 있는 사람, 조직, 행정,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것을 의미

1) 종합진단

① 지역단위 문화통계프레임

■ 지역문화현황통계를 제외하고 지역단위 문화통계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전국단위 문화통계는 물론 광역자치단체 자체 문화조사의 조사구조의 불일치로 지역문화생태계의 입체적 파악 및 지역 간 비교 불가능

②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집관리 체계

■ 지역 업무체계의 부재, 관련 인력의 부재 등 수집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

■ 지역 문화통계체계의 부재로 수집된 문화통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나. 기본방향

1) 지역단위 문화통계 분류체계(cultural statistics mapping system) 구축

■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조정을 위한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역 문화통계 분류체계 구축

2) 지역단위 문화통계 거버넌스(cultural statistics governance) 구축

■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집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조직, 협력,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

3) 지역단위 문화통계 서비스(cultural statistics service) 강화

■ 지역단위 문화통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통계생산, 서비스 확대, 효율적 활용, 정확한 통계 생산의 선순환 구조 구축

나. 정책과제

1) 지역단위 문화통계분류체계 구축

① 지역단위 문화통계지도 개발

■ (표준 지역문화지표 개발) 지역에서 수집·관리해야 하는 문화통계 영역에 대한 표준체계 개발 및 확산

-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 새롭게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역문화실태에 지역의 민간 문화시장, 문화향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
- (지역 문화통계 표준 매뉴얼 제작) 지역 문화통계의 항목, 문화장르 구분, 문화시설 등을 표준화하여 지역에서 참조할 수 있는 통계 매뉴얼 제작 및 배포

② 지역단위 문화수요 통계 개발 및 확산

■ (지역단위 문화여가향유조사 개발) 지역 문화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한 시군구 단위 지역 문화여가 조사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신규 개발) 기존 통계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 간 비교, 지역 문화여가상황의 정밀한 파악에 특화된 시군구 단위 (가칭)지역 문화

여가 조사를 개발하여 광역자치단체와 협력 시범사업 실시

- (고려사항) 지역의 최소표본 설정, 중앙-지역 공통항목, 지역 특화항목 구분

2) 지역 문화통계 거버넌스 구축

① 지역 문화통계 수집 근거 마련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지역 문화정책과 관련된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문화통계 수집관리의 추진 기반 마련

- (현행) 제 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생략)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 (개정) 제 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생략)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2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광역시도와 매년 지역 문화여가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 (지역문화정책과 지역문화통계 연계) 지역 문화정책과 지역 문화통계의 연관성을 높여 문화통계 작성 유도

- (지역 계획)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등 중요한 문화정책계획에 지역 문화통계와 관리 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의 참여 유도
- (지역 정책) 지역문화정책사업 추진 시 지역 문화통계체계에 따라 작성된 문화통계 수치를 활용(예를 들면, 문화시설 운영평가, 문화도시 선정 등)

② 지역 문화통계 전담기관 및 협력체계 구축

■ (문화통계전담 인력 및 조직) 지역의 문화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상시적인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지정과 역할의 명확화

- (기초자치단체) 문화통계의 총괄 조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문화통계 관련 업무 모니터링
- (지역문화기관) 지역문화재단이 있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에서 문화통계의 수집관리 기관으로 지정,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문화기관 지정 검토
- (광역-기초 협력) 기초의 문화통계 자료 통합 및 모니터링, 광역단위의 문화통계(문화산업 통계 등) 기초에 공유

■ (부처 간 문화통계 협력체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문화관련 통계 통합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연계 수집)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문화관련 통계를 문체부에서 통합 수집
- (분류 표준화) 각 부처의 문화관련 통계 분류와 문화통계 분류의 비교 및 조정

■ (문화통계 자문회의 운영) 지역 문화통계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지속적 개선

③ 지역 문화통계 역량 강화

■ (통계역량 강화 지원) 알기 쉬운 지역 문화통계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배포, 문화통계 전담 인력에 대한 문화통계 교육(지역 문화통계 작성,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문화 빅데이터 등) 실시

■ (품질관리 및 컨설팅) 문화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체 문화통계 품질 향상 지원

- (품질관리) 품질진단 항목을 구성하여 시도 문화통계 품질관리 시범사업 실시
- (컨설팅) 지역의 요청을 받아 문화통계 수집관리에 대한 컨설팅 사업 실시

3) 지역단위 문화통계서비스 강화

①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통계 분류체계 조정) 그간 분산된 지역 문화통계를 수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지표로 분류체계를 조정 및 개선(e-지방지표 참조)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국민, 연구자, 자치단체 등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확대

- (국민) 현재 정책의사결정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대시민 서비스로 확대하고, 대시민 서비스에 필요한 통계정보는 추가적 수집
- (지역) 지역의 문화정보뿐 아니라 지역관련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 (지역 분석 서비스) 지역의 문화 통계 및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분석하여 자치단체에 제공

② 지역 문화관련 통계정보의 확대 및 다각화

- (관련 통계 수집 제공) 지역의 문화수준과 관련된 물리, 환경, 사회, 건강, 인구 통계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지역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통계 활용 강화) 기존 문화통계를 검토하여 지역 세분화가 가능한 통계를 지역단위 통계서비스로 제공(인력, 자료, 행사 등)

다. 정책제언

- (문화통계 통합 조정) 문화통계가 개별법에 의해 분절적으로 설계, 수집되고 있어 문화통계 간의 다양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중앙의 컨트롤타워 필요
- (지역 고려 통계 설계) 문화통계 설계 시 중앙뿐 아니라, 지역을 고려한 설계 필요
  - 지역단위 문화향유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 및 실시는 매우 시급
- (정보 이양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중앙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 역량을 지역과 나눠 문화자치 역량의 기초 마련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제2장 지역 문화통계의 개념 및 필요성 ····· 9

제1절 지역 문화통계의 필요성 11

1. 지역통계 정책동향 11
2. 지역 문화통계체계 구축의 필요성 17

제2절 지역 문화통계의 범위 설정 24

1. 지역통계 개념 및 체계 24
2. 지역 문화통계 개념 및 체계(framework) 29
3. 지역 문화통계의 범위 36
4. 지역 문화통계의 조작적 정의 38

제3장 지역 문화통계 현황 ····· 41

제1절 국가승인통계 현황 43

1. 국가 승인통계 현황 43
2. 지역 문화통계 충분성 검토 45
3. 지자체 작성 승인통계 현황 50

제2절 지역 문화통계 현황 56

1. 중앙작성 문화통계 현황 56
2. 중앙작성 문화통계 내용 분석 62

3. 지역작성 문화통계 내용 분석 74

제3절 시사점 80

제4장 설문조사 ····· 83

제1절 조사개요 85

1. 조사 개요 85
2. 조사 항목 86

제2절 조사결과 87

1. 응답기관 특성 87
2.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 88
3.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 10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20

제5장 사례분석 ····· 125

제1절 국내 사례 127

1. 사회조사 (통계청) 127
2.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관리청) 131

제2절 국외 지역 통계 사례 138

1. 영국 : Active Lives Survey 138
2. 프랑스 : Atlas Culture 142

제3절 시사점 147

제6장 종합진단 및 정책과제 ····· 149

제1절 종합진단 및 기본방향 151

1. 현황 진단 151
2. 정책 수요 진단 158
3.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 160

제2절 정책과제 162

1. 지역단위 문화통계분류체계 구축 162
2. 지역 문화통계 거버넌스 구축 168
3. 지역단위 문화통계서비스 강화 175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81
1. 결론 181
2. 정책 제언 183

참고문헌 / 185

ABSTRACT / 187

부록 설문지 / 191

표 목차

〈표 2-1〉 집중형, 분산형 통계체계의 장단점 비교 11
〈표 2-2〉 제1차 국가통계발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013~2017) 13
〈표 2-3〉 제2차 국가통계발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018~2022) 14
〈표 2-4〉 연도별 지자체 통계 컨설팅건수 14
〈표 2-5〉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현황 17
〈표 2-6〉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필요성 20
〈표 2-7〉 지역 문화통계의 역할 23
〈표 2-8〉 지역통계의 개념 24
〈표 2-9〉 지역통계의 개념적 위계 25
〈표 2-10〉 지역통계체계 26
〈표 2-11〉 주제별 e-지방지표 현황 27
〈표 2-12〉 지역통계 수요 특징 28
〈표 2-13〉 지역통계 수요_문화관광부문 28
〈표 2-14〉 국내법에 근거한 문화예술의 정의 30
〈표 2-15〉 국제기준에서 문화예술의 개념적 정의 31
〈표 2-16〉 UNESCO(2009) 통계의 문화영역(cultural domain) 32
〈표 2-17〉 UNESCO(2009) 통계의 문화순환주기 32
〈표 2-18〉 유네스코 문화통계 매트릭스 33
〈표 2-19〉 OECD 문화영역 구분 34
〈표 2-20〉 문화영역 및 문화적 기능(EU) 35
〈표 2-21〉 문화예술 통계의 내용 36
〈표 2-22〉 공공문화시장의 주요요소 및 주체 38
〈표 2-23〉 민간문화시장의 주요요소 및 주체 38
〈표 2-24〉 지역 문화통계의 주요 고려 요소 39
〈표 3-1〉 국가승인통계 현황 43
〈표 3-2〉 승인통계 현황_통계부문별 44
〈표 3-3〉 공표 범위별 승인통계 현황 45

〈표 3-4〉 시군구 단위 승인통계 현황(2022.5.25.일 기준) 45
〈표 3-5〉 지역통계 충분성 검토 기준 46
〈표 3-6〉 부문별 지역 및 소지역통계 작성현황 47
〈표 3-7〉 지역통계 충분성 검토 기준 48
〈표 3-8〉 지역통계 충분성 평가 결과 49
〈표 3-9〉 광역시도 생산 승인통계 현황 50
〈표 3-10〉 자치단체 기본통계 개요 53
〈표 3-11〉 기관구분별 승인통계 현황(20.11월) 53
〈표 3-12〉 자치단체 사회조사 개요 54
〈표 3-13〉 기본통계 및 사회조사 주요 조사 사항 55
〈표 3-14〉 문화여가 분야 승인통계 현황 56
〈표 3-15〉 기타분야 승인통계 현황 57
〈표 3-16〉 통계주제 및 공표범위별 문화승인통계 현황 58
〈표 3-17〉 문화분야 주요 비승인통계 59
〈표 3-18〉 문체부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 60
〈표 3-19〉 목적별 주요 문화정보시스템 61
〈표 3-20〉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및 자료수집 출처 63
〈표 3-21〉 문화자원 통계 현황 64
〈표 3-22〉 전국문화기반시설 조사항목 65
〈표 3-23〉 주요 시설별 조사 내용 비교 65
〈표 3-24〉 인력 및 단체 통계 현황 67
〈표 3-25〉 예술인실태조사 조사대상 및 항목 67
〈표 3-26〉 문화프로그램 통계 현황 68
〈표 3-27〉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개요 68
〈표 3-28〉 문화참여 통계 현황 69
〈표 3-29〉 문화분야 주요 수요 조사 조사항목 70
〈표 3-30〉 여가활동조사 층화 방법 71
〈표 3-31〉 문화분야 수요조사 조사구조 비교 71
〈표 3-32〉 문화산업 통계 현황 72
〈표 3-33〉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개요 73
〈표 3-34〉 문화체육관광산일자리통계 개요 73
〈표 3-35〉 콘텐츠산업조사 개요 74
〈표 3-36〉 주요 자치단체 문화지표 현황 74

〈표 3-37〉 주요 지역 문화지표의 조사항목 75
〈표 3-38〉 지역생산 문화향유 조사 개요 76
〈표 3-39〉 주요 지역의 문화수요조사 조사항목 비교 77
〈표 3-40〉 지역 문화수요조사 조사구조 비교 79
〈표 3-41〉 수요·공급 관련 승인 문화통계의 공표범위 현황 80
〈표 3-42〉 광역자치단체 문화지표 비교 81
〈표 3-43〉 중앙과 지역의 문화수요 부분 조사내용 비교 82
〈표 4-1〉 조사 설계 내용 85
〈표 4-2〉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 항목 86
〈표 4-3〉 응답기관 특성 87
〈표 4-4〉 문화통계 생산·관리 여부 88
〈표 4-5〉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복수응답) 90
〈표 4-6〉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의 정기성과 법적 근거 91
〈표 4-7〉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의 정기성과 법적 근거 92
〈표 4-8〉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의 정기성과 법적근거 93
〈표 4-9〉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의 정기성 및 법적근거 94
〈표 4-10〉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의 정기성 및 법적근거 95
〈표 4-11〉 지역 문화산업 관련 통계의 정기성 및 법적근거 96
〈표 4-12〉 문화통계 생산·관리 주요 목적 98
〈표 4-13〉 문화통계 관련 업무 중요도 인식 99
〈표 4-14〉 문화지표 관리 현황 100
〈표 4-15〉 문화통계 전담관리 인력 101
〈표 4-16〉 문화통계 관련 예산 확보 현황 102
〈표 4-17〉 문화통계 생산·관리 시 불편사항 103
〈표 4-18〉 문화통계 생산·관리 하지 않는 이유 104
〈표 4-19〉 문화통계 미생산 기관의 활용 정보 105
〈표 4-20〉 중앙정부 문화통계 활용도 - 총괄(100점 만점) 107
〈표 4-21〉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필요성 108
〈표 4-22〉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한 이유 109
〈표 4-23〉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공간적 수집범위 110
〈표 4-24〉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중요도 - 총괄(100점 만점) 111
〈표 4-25〉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도입 시급성 - 총괄(100점 만점) 112
〈표 4-26〉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정책 활용성 - 총괄(100점 만점) 113

〈표 4-27〉 지역의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 120
〈표 4-28〉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 122
〈표 4-29〉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의견 및 요구사항 (개방형 설문) 124
〈표 5-1〉 '사회조사' 조사 연혁 127
〈표 5-2〉 '사회조사' 조사항목 (짝수년, 2020년) 129
〈표 5-3〉 '사회조사' 조사항목 (홀수년, 2021년) 130
〈표 5-4〉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영역 및 항목 (2021년) 136
〈표 5-5〉 Active Lives Survey 내 문화예술 관련 질의 항목 및 내용 140
〈표 5-6〉 Atlas Culture의 지역 일반 개황자료 주요 항목 146
〈표 6-1〉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의 진단 영역 151
〈표 6-2〉 문화통계현황 진단 152
〈표 6-3〉 문화통계 장르의 차이 154
〈표 6-4〉 주요 문화수요조사의 응답자 특성항목 비교 155
〈표 6-5〉 주요 광역자치단체 문화통계 비교 155
〈표 6-6〉 지역의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 및 기반 156
〈표 6-7〉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집·관리체계 주요 요소 159
〈표 6-8〉 문화순환주기, 영역을 고려한 지역단위 문화통계프레임(안) 163
〈표 6-9〉 지역 문화여가 조사 개요(안) 166
〈표 6-10〉 목표상대표준오차별 지역별 최소표본 167
〈표 6-11〉 (가칭) 지역 문화여가조사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168
〈표 6-12〉 지역 문화통계 관리계획 내용 169
〈표 6-13〉 지역문화정책과 지역 문화통계의 연계 방식(예시) 170
〈표 6-14〉 영국 문화시설 성과지표 주요 내용 170
〈표 6-15〉 상향식 문화통계 관리체계 172
〈표 6-16〉 지역 문화통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173
〈표 6-17〉 지역 문화통계 교육 대상과 내용 174
〈표 6-18〉 지역문화종합지수와 e-지방지표와의 상관 179
〈표 6-19〉 시군구 정보제공 검토목록(예시) 18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8
[그림 2-1] 수요자별 맞춤형 통계 보급 체계도 15
[그림 2-2] 2차 계획의 국가통계위원회 개편(안) 15
[그림 2-3] 지역통계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체계 16
[그림 4-1] 문화통계 생산·관리 여부 88
[그림 4-2]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복수응답) 89
[그림 4-3]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 정기성과 법적근거 90
[그림 4-4]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정기성과 법적근거 92
[그림 4-5]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의 정기성과 법적근거 93
[그림 4-6]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의 정기성과 법적근거 94
[그림 4-7]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의 정기성 및 법적근거 95
[그림 4-8] 지역 문화산업 관련 통계의 정기성 및 법적근거 96
[그림 4-9] 문화통계 생산·관리 주요 목적 97
[그림 4-10] 문화통계 관련 업무 중요도 인식 98
[그림 4-11] 문화지표 관리 현황 99
[그림 4-12] 문화통계 전담관리 인력 100
[그림 4-13] 문화통계 관련 예산 확보 현황 101
[그림 4-14]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애로사항 103
[그림 4-15] 문화통계 생산·관리 하지 않는 이유 104
[그림 4-16] 문화통계 미생산 기관의 활용 정보 105
[그림 4-17] 중앙정부 문화통계 활용도 - 총괄(100점 만점) 106
[그림 4-18]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필요성 107
[그림 4-19]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한 이유 108
[그림 4-20]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필요하지 않은 이유 109
[그림 4-21]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공간적 수집범위 110
[그림 4-22]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중요도 - 총괄(100점 만점) 111
[그림 4-23]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도입 시급성 - 총괄(100점 만점) 112

[그림 4-24]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정책 활용성 - 총괄(100점 만점) 113
[그림 4-25]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114
[그림 4-26]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문화산업 관련 통계 114
[그림 4-27]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 115
[그림 4-28]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 115
[그림 4-29]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 116
[그림 4-30]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 116
[그림 4-31]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협력체계 필요성 117
[그림 4-32] 협력체계 구축 시 적절한 협력체계 117
[그림 4-33]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전담조직 필요성 118
[그림 4-34] 전담조직 지정 시 적절한 조직 118
[그림 4-35]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 총괄(100점 만점) 119
[그림 4-36]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 시 기대효과 119
[그림 5-1] 표준화 요구 이후 지역사회지표 관련 추진 내용 129
[그림 5-2] 지역사회 건강조사 전략체계 132
[그림 5-3]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체계 133
[그림 5-4] 지역사회건강조사 연혁 134
[그림 5-5]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체계 135
[그림 5-6] 지역사회건강조사 순환조사체계 136
[그림 5-7] Active Lives Survey 온라인 설문 인터페이스 138
[그림 5-8] Active Lives Survey 결과 (활동적 성인) 141
[그림 5-9] Atlas Culture 내 축제 검색 145
[그림 5-10] Atlas Culture 내 지역별 문화지출 검색 146
[그림 6-1] 문화통계 수요 IPA분석 158
[그림 6-2]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기본 영역 161
[그림 6-3] 문화데이터 가치 실현 거버넌스를 통한 데이터 활용 17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지역중심의 근거기반 정책 수립 필요 증가

1) 근거기반 정책 추진과 통계의 필요성 증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근거기반 정책추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문화영역은 절대적 결핍의 영역, 시장재와 비시장재의 중간에 위치해 재원 투입 근거에 대한 요구가 다소 느슨한 편이었지만,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화정책 공급이 이루어진 현재 재원 투입에 대한 적절한 근거 제시 요구가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통계이므로, 근거제시에 대한 요구는 곧 비교 가능한 통계 혹은 계량적 수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2) 지역 중심의 근거기반 정책 추진 필요

최근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정책분야에서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미시적이고 특화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그간 지역문화통계는 국가통계 중 단위행정구역별로 작성되는 통계 정도로 규정되고 있고, 국가단위 통계를 지역단위로 세분화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이다. 그나마 시군구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는 통계도 많다. 예를 들면, 국민여가활동 조사는 시도단위로 표본을 할당하여, 많은 시군구의 표본할당이 되지 않거나,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문화현황, 문제 등을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중앙중심의 지역통계에서 벗어난 지역중심의 지역문화통계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문화통계의 부족

1)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문화통계의 부족

문화자치 및 분권의 기조 속에서 지역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다양한 문화정책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에 필요한 지역단위 문화통계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지역단위 문화통계는 지역 기본통계, 사회조사 통계에서 일부만 다루어지고 있어 미시적이고 적절한 문화정책 추진의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회성 통계가 수집되기도 하지만, 체계를 갖추지 못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중앙 중심적 문화통계를 생산해 제공한다고 해도 비용의 효율성 문제, 지역의 특수성 문제 등 난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2) 상대적으로 비체계적인 지역문화통계

그간 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통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통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경제, 복지 영역의 지역통계 체계는 지속해서 발전해오고 있다. 경제·복지 영역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문화영역이 국민의 생활 및 삶의 질과 밀접한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영역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역이고, 정책추진이 근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역 문화통계체계(수집, 관리, 활용)를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 문화통계 수집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 문화통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역에 관점에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문화통계의 개념적 정의, 지역문화통계의 수집, 관리, 활용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2022년 현재 기준

2) 연구기간: 2022년 2월 3일 ~ 2022년 9월 30일

나. 대상 및 공간적 범위

1) 공간적 범위: 전국 17개 광역시도, 228개 기초자치단체(행정시 포함)

2) 대상적 범위 : 국가승인 문화통계, 지역 문화통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수립 주체인 전국 17개 광역시도, 228개(행정시 포함)의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국가승인 문화통계, 지역 문화통계 등으로 하였고, 사례분석 등은 국내의 타 분야 지역단위 통계를 중심으로 하되, 국외의 유관 사례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다. 내용적 범위

1) 지역 문화통계 현황분석

첫 번째 지역 문화통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지역 문화통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위해 개념검토 과정을 거쳤다. 지역 문화통계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역단위 문화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2) 지역문화통계 수집, 관리, 활용 실태 분석

두 번째 지역문화통계의 수집, 관리,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어떻게 수집, 관리, 활용되는지는 각 단계별 과정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역 입장에서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요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국내외 지역단위 통계 사례 분석

국내의 경우, 지역단위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분야의 사례를 검토하여 문화분야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국외의 경우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사례, 혹은 문화통계의 내용 구성 등을 참조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4) 지역단위 문화통계 구축 방안

현재 상황에서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지역단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계가 무엇이고,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제도적 사항, 나아가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활용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지역문화통계 관리의 필요성, 지역문화통계의 개념 및 범위 설정을 위해 관련 문헌 및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통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본 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나. 현황분석

지역문화통계틀(프레임)에 따라 현재 국가통계, 지역의 문화통계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통계의 속성(대상 영역, 수집 주기, 지역단위 가용성 등) 지역문화통계 현황을 분석하여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의견수렴

1) 현장 및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단계는 두 단계를 거쳤는데, 먼저 전반적으로 지역의 현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문화통계 담당자(공무원, 재단종사자 등), 지역의 문화연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장의견을 중심으로 설문의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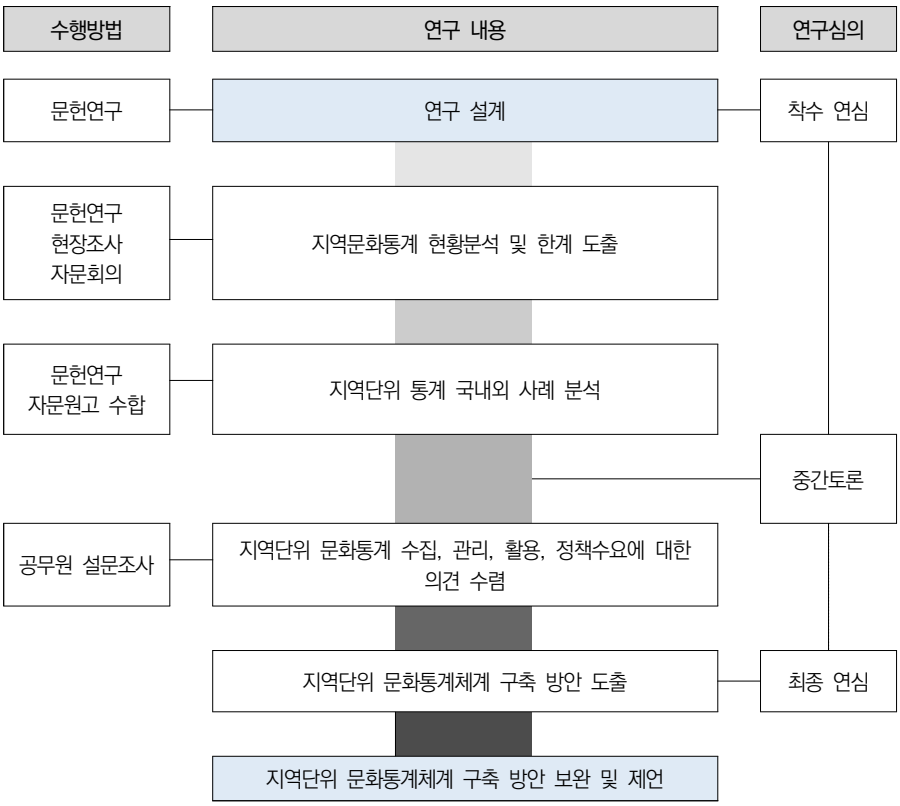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을 사용하여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주체인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통계의 수집, 관리, 활용,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라. 사례분석

지역단위 통계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역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수립에 참조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에 사용한 통계를 선정한 기준은 지역단위 통계의 수집, 관리,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였다. 또한 국내를 비롯해 국외에도 참조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제2장

지역 문화통계의 개념 및 필요성

제1절 지역 문화통계의 필요성

1. 지역통계 정책동향

가. 국가통계제도

통계제도는 한 나라가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통계작성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집중여부에 따라 집중형 통계제도와 분산형 통계제도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를 따른다.

집중형 통계체계는 국가의 모든 통계생산기능이 전문화된 기관에 집중되어 각 분야의 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체계이다. 집중형 통계체계는 통계작성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계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반대로 각 분야의 통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

분산형 통계제도는 통계활동이 각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는 각 기관의 책임 아래 작성하는 통계체계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분산형 통계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분산형 통계제도는 각 부문별 전문지식의 활용이 용이하고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통계의 중복, 통계발전이 더디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에 종합조정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표 2-1〉 집중형, 분산형 통계체계의 장단점 비교

구분		주요 조사내용
집중형 통계체계	장점	• 통계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음 • 국가에서 통계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통계이용자가 여러 분야의 통계자료를 단일 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음 • 각종 조사의 응답자는 단일기관만 상대하므로 편리 • 집중된 단일 통계기관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목적의

구분		주요 조사내용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음 • 행정적, 정치적으로 중립될 수 있어 객관성을 인정받는데 용이 • 개인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 • 허가되지 않은 사용 목적으로 통계를 사용하는 것 통제가 비교적 용이 • 여러 통계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용이 • 통계의 통합체계를 기획하고 실현하는데 유리
	단점	• 통계작성자와 통계이용자의 유리되어 분야의 전문지식 활용이 어려움 • 이용자의 변화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위험이 따름 • 비밀보호규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여 정보이용의 억압 가능성
분산형 통계체계	장점	• 분야별 전문지식을 관련통계 개발에 활용 가능 • 통계수요에 신속히 대응
	단점	• 통계작성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 낭비 가능성 • 체계적인 통계개발 제약 • 통계 전문인력의 집중적인 활용이 곤란 • 통계의 객관성에 대한 의혹 초래

자료: 조석주, 장은주(1999)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능 강화방안. 지방행정연구원.

나. 국가통계정책 동향

1995년 6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광역은 물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밀착형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생활양식이 급속도로 변화, 다양해지면서 주민의 생활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생간의 수요도 점점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22년 현재 전체 1,293종의 승인통계 중 시도단위 451종, 시군구 단위 311종, 동읍면 단위 331종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작성기관과 연관지어보면 개별 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통계가 대부분으로 나타난다. 가장 작은 소지역 단위인 동읍면으로 작성되는 통계는 기본통계, 인구관련(노인, 여성 등)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통계 현황은 지역의 다양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지역통계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의 전략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통계가 요구되고 있는데, 반해 통계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통계정책영역에서는 지속해서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가통계발전 계획을 통해 지역통계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

지난 2013년 10월 8일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 시스템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는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었다. 해당 발전계획의 중점 추진 방향은 4가지 방향이었고 각각 중점추진 과제 2개씩 총 8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로 '지역통계 개발 및 통계와 체감 간 괴리 축소 병행'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은 3가지 문제인식 하에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통계 수요측면에서 양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지역통계 분야 등 새로운 통계수요가 급증하여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통계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부처 간 칸막이로 통계자료의 활용이 미흡하고, 민간 미공개 통계자료도 다수가 있다는 인식이었다. 활용 가치가 높은 마이크로데이터의 관리 소홀과 미공개로 통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는 1인 가구, 공동주택 증가 및 개인사생활보호 증가로 조사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표 2-2〉 제1차 국가통계발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013~2017)

목표	선진인류국가 건설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 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개발 및 개선 • 부처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 통계분야의 정부 3.0 구현 • 국가통계 주요제도 개선 등 통계인프라 강화	
중점 추진방향	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	• 필요 통계의 개발 개선을 최우선 추진 • **지역통계 개발 및 통계와 체감 간 괴리 축소 병행**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유 확대 •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 선진조사 기법 도입 등 생산 효율화
	통계인프라 확충	• 국가통계 주요제도 개선 • 통계인력, 예산 등 확충

자료: 통계청(2013). '제1차 국가통계발전('13년~'17년) 기본계획

2) 제2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

지난 2017년 12월 제2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2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국가통계시스템 확충을 통한 국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이었고, 중점 추진

방향은 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 통계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구축이었다.

〈표 2-3〉 제2차 국가통계발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018~2022)

목표	국가통계시스템 확충을 통한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기본방향	• 정부-정책결정, 기업-투자결정, 가계-지출결정 증거기반 의사결정 인프라 확산 • 수요대응성, 작성효율화, 활용편의성, 통계인프라 강화	
중점 추진방향	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	• **주요정책과제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 개선** •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계 개편 및 개선**
	통계데이터 허브 확충 및 통계생산 선진화	• 통계데이터 허브기반 확충 • 행정자료·빅데이터 활용 등 통계생산방식 선진화
	통계데이터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 확산	• 일반이용자 중심 통계자료 통합서비스 확대 • 분석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확충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 국가적 통계역량 및 통계역할 강화

자료: 통계청(2017). '제2차 국가통계발전('18년~'22년) 기본계획

본 연구의 관심 주제인 지역통계와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지역통계 개발과 관련해서 통계생산과 관련해서는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시군구 인구추계 개발, 시군구 GRDP개발·개선 등의 기초통계 작성 지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역통계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도(17개)포함 48개 지자체 대상의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통계역량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표 2-4〉 연도별 지자체 통계 컨설팅건수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컨설팅건수	48	8	10	10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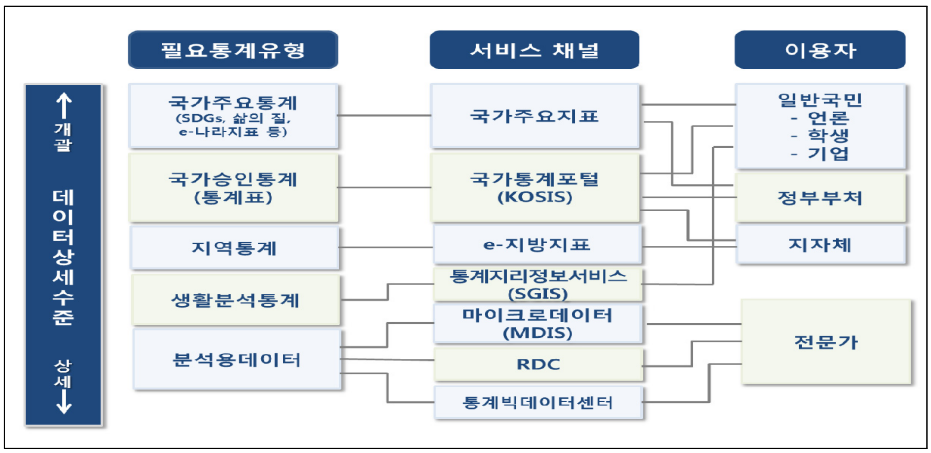
* 인천, 부산, 경기 김포시, 경북 영덕군, 전북 군산시, 경남 고성군, 경남 산청군,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

다만, 지자체의 인식 부족으로 지역통계 확충 및 역량제고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한계로 나타나 2차 계획의 지역통계 부문에서는 지역단위 통계지표 서비스를 확충 및 개선하고(`18년~) 지역사회조사, 시군구 GRDP,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등 주요 지역통계 확산하고, e-지방지표 지표체계 개선하는 과제를 추진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한편,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확산*으로 지역별 특화된 통계 개발·개선 및 작성 지원(`18년~)하

기 위해 일자리인식실태조사, 관광실태조사 등 이미 개발된 표준매뉴얼 및 노인통계, 청년통계 등 행정통계 표준매뉴얼 신규 개발하는 과제를 추진하였다.

전체 계획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수요자별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과 지역통계를 위한 거버넌스가 강화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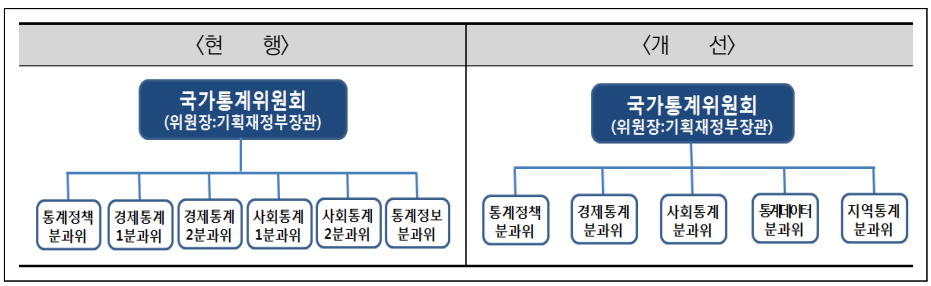
[그림 2-1] 수요자별 맞춤형 통계 보급 체계도



* 출처: 제2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수요자별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이 관심 있는 통계지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지표체계를 간소화하는 작업, 지방자치를 위한 지자체 수요를 반영, 지역통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문가 분석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기관별로 작성되는 통계 및 데이터의 One-Stop Service를 확대하고 자료 및 사이트별로 이용 가이드 강화는 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그림 2-2] 2차 계획의 국가통계위원회 개편(안)



출처: 제2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둘째로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개편하고자 하였는데, 개편 방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통계 거버넌스 기능 강화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환경변화에 대비한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 및 분과위원회 개편하고자 하였다. 한편 데이터혁명시대를 대비하여 통계정보분과원원회를 통계데이터분화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으로 빅데이터·고용 전문가를 확충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당연직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통계분과위원회를 개편하여 지역통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기존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역통계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3) 지역통계발전 중장기발전계획('18)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사회 현안에 대한 지역단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국가통계위원회 분가위원회에 지역통계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2018년 지역통계 분과위원회는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통계발전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2-3] 지역통계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체계

출처: 통계청(2018). 지역통계 중장기발전계획

지역통계 발전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에 따라 지역통계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행정통계의 표준매뉴얼 부재, 지역통계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의 한계, 지역통계 실무역량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가 높은 행정통계 대한 표준 매뉴얼 개발, 지역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e-지방지표 시각화 서비스 개선 및 지표체계 정비, 지역통계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4개의 전략 1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통계 확충전략의 과제인 지역통계 표준화 및 지역 세분화에서는 일자리, 복지 정책 등 중앙 및 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미 완료된 지역통계의 표준작성기법을 확산하고, 새로운 표준작성기법 매뉴얼을 7종을 추가 발굴하고자 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통계 개발에 힘쓰고 있다.

〈표 2-5〉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현황

2017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2018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2019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2020년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관광실태조사	경제지표조사	일자리종합실태조사	농업실태조사
특산물실태조사	귀농귀촌실태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어가실태조사
지역사회조사	노인실태조사	청소년사회환경조사	장애인통계
복지실태조사	청년통계	여성통계	기본통계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영유아통계	다문화·외국인 가구통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노인등록통계		
서비스업실태조사	창업통계		

자료: 통계청(2018). 지역통계 중장기발전계획

2. 지역 문화통계체계 구축의 필요성

가. 정책적 여건

1) 지방분권과 자치

국내 행정 패러다임 중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지방분권임에는 이견이 없다. 지방분권은 정치학 혹은 행정학의 오랜 주제이며, 정의 또한 다양하나 미래 국가 운영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문화 부문 지방분권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능의 조화”(박종관, 2014),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권한 및 자율성”(류정아, 김필두, 2015)이라는 포괄적 개념부터 “비장자치단체가 중앙에 대하여 사무처리권, 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에 있어 적절한 배분 상태를 확보하여 국가의 행정수행 부담을 줄이고, 주민근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유연성을 제고하여 권력분립에 기여하는 것”(이기우, 하승수, 2007: 강기홍, 2015)이라는 구체적인 개념 정의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구성요소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제시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18조).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자치권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지방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자치행정을 실시하기 위한 당연한 요소다. 지자체 조직을 지역의 여건과 정책추진방향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편하거나 필요시 출자를 통해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의미한다. 지방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범위의 정도에 따라 자치행정권의 강약을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한이나, 현실적으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분권과 자치의 개념은 동시에 혹은 자주 혼용되어 쓰이곤 한다. 하지만 엄격히 구분하면 분권은 자치로 나아가는 경로에 해당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의 그 단계에 있다. 분권화 과정을 거쳐 헌법에서 보장된 자치를 위한 4가지 권한을 확보해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2)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의 개념과 더불어 지역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다른 개념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일반적으로 “지역 간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일정 수준의 균등성을 유지한 상태나 과정”으로 정의된다. 지역 균등화는 지역 간 소득, 복지수준, 경제수준, 문화수준 등의 균등화를 의미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적 통합성과 통일성을 훼손하거나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할 정도의 지역 간 차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역마다 입지, 자원, 잠재력이 다르고,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의 집중이 불가피하므로 지역 간 사회-경제적 조건과 삶의 질의 획일화된 균등화는 가능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것은 필요하다. 일부 불가피한 불균등 상황은 존재하지만, 최소기준에서 지역 간의 불평등은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지역 불균형과 격차가 존재할 수 있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지역 간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삶의 질의 불균형을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고, 지역의 어떤 공간단위를 측정으로 기준으로 삼을지, 어떤 분야의 어느 수준의 불균형과 격차를 측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의 측정의 공간적 단위는 17개 시도 또는 전국 시군구, 수도권 비수도권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격차와 관련된 합의된 영역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제적 차원과 삶의 질 차원에서 측정되고 있다. 경제적 차원은 소득, 고용, 경제성장 영역의 격차를 주로 보고 있으며, 삶의 질 측면은 복지, 인프라, 문화 수준 등의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다.

나.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의 필요성

1) 자치분권과 지역문화통계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다양한 문화통계의 행정적 수요는 물론 최근 환경변화와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지표의 개발, 예컨대 지역문화를 활용하여 발전되는 산업 및 활동 등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계지표의 개발 수요만큼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지역통계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기존에 지역문화통계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자치분권 측면에서 자치의 토대의 분권이라면 자치의 실현은 자치단체의 역량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권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좋은 실행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자치의 실행과 결과는 자치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정보와 통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책 수립의 주체가 지자체가 된 이후 지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통계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권순필, 김서영, 이정희, 2011).

〈표 2-6〉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필요성

구분	내용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수립 향상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비교, 평가하여 적절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 필요 • 중앙정부가 생산한 통계에만 의존하게 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을 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중앙정부의 통계는 총량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역의 통계들로부터 추계하여 생산되기보다는 전국적 표집에 의한 조사한 것이어서 지역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단위로 집계되는 통계들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아래 조사/작성되어 지역특성이 없는 실정 • 지방자치 및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수립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 • 지역통계는 제한된 재원 여건에서 다양한 문화행정수요 중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의사결정은 지역통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듦 • 특히, 경제정책과 달리 투자효과의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교육, 문화, 사회복지부문의 정책수립은 지역통계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
지방행정 문화수요 맞춤형 정책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수요에 대응성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거나 처리하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적기, 적시, 적재에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음 • 지역의 여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수요의 다양화되고 있는데, 각 지방정부는 이에 행정 대응성 강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행정수요 요구가 시혜성 서비스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 문화서비스 옮겨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질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역분권 및 자치의 강조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된 사무만을 관장하는 한정된 역할에서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 • 결국, 이는 **지방의 자율적이고 고유의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며, 과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통계자료만으로는 효율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지역의 문화수요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의 문화사업체, 예술인, 문화시설, 문화자원, 지역민 수요, 외부 수요 등에 관한 통계개발 및 관리가 필요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세부 부문별 상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재정투자계획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역의 다양하고 정밀한 통계가 확보되어야 함 • 지역 문화생태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기에는 그간 중앙정부의 통계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지역의 미시적인 문화정책수립을 위해 지역문화통계가 필요함 • 중앙정부의 재정보조와 관련해서도 지역의 정확하고 세부적인 지역통계가 필수적이다. 중앙입장에서는 보조대상지역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보를 보고 싶기 때문임

구분	내용
통계기능 재정립을 통한 문화분권화 기여	• 지방분권은 주민에 보다 가까운 지방정부의 권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이루려는 민주적 제도 • 지방분권이 추진됨에 따라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되고 있음 • 통계기능 역시 다른 사무와 마찬가지로 중앙 집중적 방식에서 지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 통계의 통일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앙과 지역의 역할의 조정 필요 • 정보화,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정보는 이미 지역화 분권화 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부재로 인해 지역의 현장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민첩한 행정의 구현	• 정보화 사회,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역량의 원천으로 정보력과 창조력이 강조됨 •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 유연, 개방,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계 필요 • 기존의 닫힌 조직에서 열린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객의 개념이 중요하고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계획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 통계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내부고객, 외부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소통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행정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하는 행정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근거기반 문화정책	•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근거기반 문화정책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각적으로 문화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거가 될만한 정보, 통계가 부족한 실정 • 근거기반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올바른 통계를 획득하는 것이고,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이를 위해 지역의 통계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규모의 비경제성에 따른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임무를 필요한 유형과 양의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규정할 경우, 자치단체가 반드시 공공서비스를 생산해야 할 이유는 없음. 가장 저렴하게 해당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민간이나 중앙정부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주민들의 기호에 따라 의사 결정하는 조직으로 이해한다면 규모의 경제에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문화통계와 관련해서도 규모의 경제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중앙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 경우 자치단체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통계기능이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자치단체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해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규모의 경제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음

자료: 조석주, 장은주(1999)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능 강화방안을 참조하여 저자 재정리

한편, 지역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점은 지역의 격차 문제다. 지역의 격차는 지역의 특정 영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만 확인된다. 이는 지역의 격차를 줄이려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도,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개선하려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통계는 정책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근거기반 정책, 투명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정책패러다임이 증거기반으로 전환되고, 데이터 경제의 부상, 디지털 뉴딜 등장 등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데이터 활용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환경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향하고, 국민소통과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는 등 상향식, 협력적 문제해결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도구로 통계 및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2)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역할 및 효과

이처럼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서 수집된 통계 및 데이터의 활용환경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정책기초자료의 개발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의 문화통계가 지나치게 총량적이고 개략적인 패턴 파악에는 효과적이나, 세밀하고 지역단위의 진단 및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 중앙정부가 추진한 종합적/획일적 정책은 지역 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국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한 거시 정책이 많았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미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통계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최봉호, 2009).

지역통계의 수요는 첫째, 전국적으로는 통계가 있지만 지역적(시도, 시군구)으로 세분된 통계가 없는 영역에 대한 수요, 둘째 정책수립이나 경제/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에 대한 지역통계 개발 수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통계 수요, 산재되어 있는 지역통계를 이용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구축한 시스템 수요 등이 있는데, 문화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된 통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대안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시/군/구 고용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이 2008년 신규로 개발되었고, GRDP 통계 개발, 서비스업 활동 조사의 표본 규모 확대 등은 상당히 획기적인 전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조사들은 여전히 예전의 중앙단위의 통계만 존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지역단위의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 문화부문이 국민의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리고 지역단위 문화통

계 체계가 구축되고 나면, 중앙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다양한 이점을 갖는다. 지역의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역할, 시계열 간, 공간 간 비교역할, 데이터 축적으로 인한 예측 역할, 계획적 역할, 정책적 우선순위 판단 역할 등 일관성 있게 축적된 지역문화통계는 향후 스마트 문화행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표 2-7〉 지역 문화통계의 역할

구분	주요 조사내용
지역정보제공 역할	• 지역통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의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정보는 전달 기능을 강하게 내포하면서 동시에 지식 형성을 한다는 동적인 의미를 지님
지역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	• 통계는 사회체제나 경제사회의 발전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지표로 인지되고 있음
시계열간, 공간 간 비교 역할	• 다른 시점에서 수집되고 비교됨으로써 구조의 변화나 증감을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이러한 특징은 행정의 효과, 실적평가에 유용하게 쓰임 • 다른 공간에 대한 격차 인식을 하도록 함
예측역할	• 과거의 통계에 적절한 예측 방법을 사용하여 미래 시점에 대한 각종 통계상을 형성하도록 함
계획적 역할	• 비교 및 예측과 관련된 통계의 역할로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이를 예측해서 적절한 정책의 모색을 가능하게 함
정책을 선택하는 역할	• 통계는 현실을 객관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실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토대를 제공함 • 재정수요와 행정효과의 관계를 통해 정책선호를 결정

자료: 조석주, 장은주(1999)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능 강화방안을 참조하여 정리

제2절 지역 문화통계의 범위 설정

1. 지역통계 개념 및 체계

가. 지역통계의 개념 및 의미

지역통계의 개념은 '지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행정구역단위로 세분화하는 경우와 행정구역 이외의 기준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는 공간영역의 기준에 따라 공간 범주를 분류하는 것으로 나뉜다. 행정구역 이외의 기준으로 나눈 예를 살펴보면 지역의 발전도(낙후, 정체, 성장, 발전)에 따른 지역분류, 경제활동 권역분류 등을 들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익숙한 지역의 개념은 행정구역이며,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균질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범주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이고 익숙한 행정구역 기준의 지역통계를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지역통계의 개념

구분	주요 조사내용
이재형(2004)	• 지역통계란 일정한 전국단위의 통계와 대칭적인 의미로 국가의 단위 행정구역별로 작성 또는 생산되는 통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불문하고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지역개발 또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일정한 지역의 통계를 의미한다.
김영표(2007)	• 지역통계란 일반적인 통계에 공간의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공간적 범주를 갖는 통계수치로서 여기서 공간적 범주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행정단위뿐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는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 등 생활환경 혹은 인구규모, 경제규모 등의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박현정,홍현정(2010)	•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행정구역 구분과 행정구역외 새롭게 정의되는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역구분은 행정구역 구분으로 지역통계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통계를 의미한다.
통계청(2018)	• 지역통계는 행정구역단위(시도, 시군구)로 작성되는 국가승인통계

자료: 박현정, 홍현정(2010), 통계청(2018)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지역통계의 개념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나, 산발적으로 지역통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영표(2007)는 " 지역통계란 일반적인 통계에 공간적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공간적 범주를 갖는 통계수치"라고 정의하였으며, "여기서 공간적 범주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행정단위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라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 등 생활환경 혹은 인구규모, 경제규모 등의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형(2004)은 "지역통계란 일정한 전국단위의 통계와 대칭적인 의미로 국가의 단위 행정구역별로 작성 또는 생산되는 통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불문하고 여러 행정구역에 거친 지역개발 또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일정한 지역의 통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모성은(1999)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거나, 전국을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지역통계라고 정의하였다. 윤태범(1998)은 "지역통계는 일정한 지역의 상황을 주어진 목적에 따라 정량적으로 파악한 숫자"라고 규정하였다. 이시화, 이우배(1997)는 "지역통계는 공간적 범주를 갖는 통계수치, 지방 행정연구원(1990)에서는" 지역통계란 국가통계의 대비 개념으로서 전국을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소지역으로 구분하여 소지역 단위별 또는 몇 개의 소지역을 합한 공간단위로 작성되는 통계 "라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의 지역통계 개념을 정리해보면 지역통계란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해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김용렬, 김경덕, 2008).

한편, 통계청(2018)에서는 지역통계의 통계 정책적 위계를 설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국가통계는 전국단위 통계와 지역통계로 구분되며 지역통계는 다시 중앙에서 작성하는 전국범위 통계와 지자체에서 지자체 범위만을 작성하는 지자체 범위 통계로 나뉜다. 지자체가 작성하는 지자체 범위 통계는 다시 전 지자체가 작성하는 주요 지역통계, 일부 지자체만 작성하는 특화 통계로 구분된다.

〈표 2-9〉 지역통계의 개념적 위계

<table>
<tr><td colspan="4">국가통계</td></tr>
<tr><td>전국단위통계</td><td colspan="3">지역통계</td></tr>
<tr><td rowspan="2"></td><td>전국범위
(중앙행정기관)</td><td colspan="2">지자체범위
(지자체작성)</td></tr>
<tr><td colspan="2">주요 지역통계
(전 지자체)</td><td>특화통계
(일부 지자체)</td></tr>
</table>

자료: 통계청(2018) 지역통계중장기 발전계획

현재 지역통계는 주로 중앙과 지자체가 작성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시군구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으나 해당 지자체 범위에 한정된 통계수집으로 타지역과 비교가 어렵고,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전국범위에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나, 시군구 단위까지 공표되지 않는 통계가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나. 지역통계체계(framework)

현재 우리나라 지역통계체계의 구성은 국가승인통계 분류체계와 e-지방지표에 나타나고 있는데,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0〉 지역통계체계

주제	주요 조사내용
주제별	• 인구, 가족, 건강, 교육, 소득과 소비, 고용과 노동,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성장과 안정, 안전, 환경, 사회통합
지역별	• 17개 광역시도 지역통계
테마별	• 일자리 상황(고용관련 통계, 경제관련 통계) • 삶의 질(소득관련, 복지 및 건강관련, 문화관련, 주택관련, 안전관련, 환경관련 통계 등) • 저출산/고령화(인구관련, 결혼관련, 출산율 관련 등)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참고하여 작성

e-지방지표는 모든 지역을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의 기본통계 성격을 지니고 있다. e-지방 지표체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통계는 주제별로 인구, 가족, 건강, 소득과 소비, 고용과 노동,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성장과 안정, 안전, 환경, 사회통합 등 12개로 구성된다. 각 주제는 국가와 지역의 가장 중요한 테마인 일자리, 삶의 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통계로 재분류되기도 한다. 그리고 e-지방지표에 포함된 지표는 공표의 범위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인 통계로 구성된다.

주제별로 e-지방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개 주제에 217개의 지표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시군구 단위 지표 제공은 120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11개의 주제 중 9개는 인구, 건강/복지, 경제, 문화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2개는 성장과 안정. 통합으로 분야라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통계를 성장과 안정, 통합이라는 주제에 맞춰 재가공한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성장과 안정 및 통합을 제외한 부문으로 볼 때, 주거와 교통, 고용과 노동, 인구 등의 지표가 가장 많고, 문화와 여가, 가족분야의 지표가

가장 적다.

생활의 기본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주거와 교통, 인구, 건강, 교육 지표 등은 시군구까지 제공되는 지표의 숫자가 많고,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등의 지표는 시군구까지 제공되는 지표가 미미하다. 문화와 여가부문에서 시군구까지 포함한 지표는 인구십만명당 문화시설 수 하나로 나타난다.

〈표 2-11〉 주제별 e-지방지표 현황

주제	지표 수	시군구 지표수	지표 목록
인구	22개	18개	• 고령인구비율, 남녀성비, 농가인구, 등록외국인 현황,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 사망률, 사만자수, 순이동인구, 인구증가율, 인구총조사 인구, 전입인구, 전출인구, 주민등록 인구, 추계인구, 출생아수, 평균연령, 평균 초혼연령, 합계출산율
가족	13개	10개	• 1인가구비율, 다문화 혼인건수, 독거노인가구비율, 신혼부부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이혼수, 조이혼율, 조혼인율, 혼인건수, 혼인형태
건강	16개	12개	• EQ-5D, 건강생활실천율,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미충족의료율, 비만유병률, 스트레스 인지율, 음주율,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주관적 건강수준인지율, 흡연율
교육	14개	12개	• 교원 1인당 학생수, 대학교 수, 대학교 교원수, 대학교 학생수,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수, 유치원수,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원아수, 초등학교 수, 초등학교 교원수, 초등학교 학생수, 학습당 학생수
소득과 소비	14개	0개	• 시도수준에서 제공
고용과 노동	27개	9개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상용직 비중, 실업률, 실업자수, 청년고용률, 취업자수, 타지역 통근 취업자
주거와 교통	29개	23개	• 교통문화지수,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노후주택비율, 도로포장률, 도시지역면적, 1인당 도시지역면적현황, 미분양주택현황, 빈집비율,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아파트월세가격지수, 아파트월세통합가격지수,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음주운전교통사고비율, 일반가구의 주택소유율,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월세 가격지수, 주택월세통합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면적
문화와 여가	11개	1개	•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성장과 안정	34개	18개	• GRDP, 가구수, 농가수, 도소매업사업체수, 도소매업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인구천명당 종사사주, 서비스업사업체수, 운수업사업체수, 운수업종사자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제조업사업체수, 제조업종사자수, 친환경인증농산물출하현황, 친환경인증축산물출하현황
환경	17개	7개	• 녹지율, 논경지면적, 상수도보급률, 일반폐기물재활용률,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폐수배출업소수, 하수도보급률
사회통합	20개	10개	• 건강보험적용인구현황, 급여형태별요양급여실적,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보건및사회복지 사업체비율,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종사자비율, 요양기관수,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인구십만명당 자살률, 일반회계중 사회복지예산비중, 일반회계중 일반공공행정예산비중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지역통계 수요

기존 선행연구(최봉호, 2009) 등을 통해 지역통계의 수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통계는 주로 정책부서에서 지역정책을 입안하거나 평가할 때, 지역의 상황을 분석할 때 활용될 수 있는 통계의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차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세분화된 통계, 지역의 현안이 핵심 정책 분야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자치단체의 정책평가에 필요한 통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수요 특성으로 현재까지 통계청의 기술지원 등을 통해 공통현안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복지/건강 관련해서 지역통계가 생산되어왔고, 지역의 관심에 따라 지역특화통계도 일부 생산되고 있다.

〈표 2-12〉 지역통계 수요 특징

지역통계 수요	내용
세분화된 통계	• 지역간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역통계
새로운 통계 발굴	• 지역의 현안, 중점 분야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필요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친환경 등)와 관련된 통계 필요
지역정책평가지표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필요

자료: 박현정, 홍현정(2010) 지역통계수요와 공급 간의 매칭 연구. 통계개발원. 내용을 저자 정리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높고, 기초통계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이 지역통계에서도 중요한 부문이 되고 있고 수요도 높게 나타나지만,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문화관광과 관련된 지역통계 수요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전대욱 외(2016)의 연구에서 조사된 지역통계 수요 중 문화관광과 관련된 지역통계 수요는 크게 문화분야의 문화예술향유율, 관광분야의 지역별 여행실태조사, 지역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3〉 지역통계 수요_문화관광부문

지역통계 작성 비중	검토 결과	
문화	• 문화예술향유율	• 동 단위 지역별 문화예술 향유 실태 민 만족도 시계열조사
관광	• 관광 인적 자원 통계	• 공공/민간 등 조직 특성별 인적자원 통계 및 인적자원 특성별 통계
	• 지역별 여행실태조사	•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대한 지역별 통계
	• 외래관광객실태조사(지역별)	•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 대한 지역별 통계

자료: 전대욱 외(2016), 지역통계현황분석 및 보완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행정자치부 내용을 저자 정리

2. 지역 문화통계 개념 및 체계(framework)

지역 문화통계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지역문화의 개념적, 조작적 범위를 설정하는 일이다. 지역문화통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범위 안에 어떤 부분들과 관련된 통계를 검토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포괄이고 공식적인 문화통계체계가 없기 때문에 법률과 일부 사례에 근거한 문화 및 지역문화 개념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지역 문화통계의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 문화의 개념

1) 국내법적 정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구체적인 수준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의 정의가 나타난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기본법, 문화산업 기본법에서는 각각 문화 및 문화예술을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는 사회 전반을 포섭하고 있고, 정책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예술 및 예술관련 서비스, 문화산업영역에 한정하여 쓰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기본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의미하여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문화 및 문화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에 정의하는 문화예술은 장르를 의미하며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을 먼저 정의하고, 문화산업에 포함되는 영역을 정의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 정의하고 있어 가치사슬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표 2-14〉 국내법에 근거한 문화예술의 정의

법률	정의 및 범위
문화기본법	•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포함 • 문화(가치, 지식, 양식 등)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장 광의적 정의
문화예술진흥법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분야(장르)에 한정된 협의의 개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영화, 음악, 출판/인쇄/정기간행물, 방송, 문화재,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 대중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문화상품대상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축제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구분하는 장르보다 포괄적으로 산업화된 장르를 포함

지역문화는 지역과 문화가 합성된 용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특정한 공간 영역을 의미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구체적인 터전이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목적에 따라 문화의 정의, 범위를 다소가 차이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사용될 때는 구체적인 문화의 순환주기(가치사슬), 장르를 포함한 영역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 개념과 문화의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를 구체화하여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현재 통계적 체계, 정책적 체계에 맞춰 해석하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지역문화의 개념이 가장 구체성이 높아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검토하는 기본적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 정의에 따라 공간적으로는 행정구역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유형적으로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과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적 활동, 서비스, 상품의 가치사슬(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을 포괄하여 개념화하고자 한다.

2) 국제적 정의

국내의 법보다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문화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기준이 되는 유네스코에서는 문화를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장르만을 의미하는 협의적인

문화예술의 개념적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법과 유사하게 광의의 문화예술 정의는 문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작활동 외에 일반적으로 가치, 지식, 기술, 개인과 집단의 신념 등을 의미하고, 협의의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의 장르 영역을 의미한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수준, 정책적인 수준에서 유럽연합은 문화의 개념을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활동 및 상품, 서비스 개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2-15〉 국제기준에서 문화예술의 개념적 정의

구분	내용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2001)	• (협의) 인간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창의성과 관련된 활동 영역 • (광의)가치, 규범, 지식, 기술, 개인·집단의 신념
유럽연합 문화민주주의지표 (IFCD)	• 협의의 개념으로 문화의 자유, 평등, 문화적 다원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활동 또는 상품·서비스

참조: UNESCO(2009), Council of Europe Portal

나. 문화통계 영역

이제 지역 문화통계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문화현상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통계의 전체적인 범위는 문화지표체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문화분야를 대표하는 합의된 지표체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문화통계의 범주 안으로 포섭해야 할 개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UNESCO 문화통계 프레임워크

UNESCO 문화예술 통계 프레임워크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는 문화통계 틀이다. UNESCO 문화예술 통계 프레임웍에서는 문화예술의 영역 구분과 순환주기(가치사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문화를 문화영역, 관련 영역, 횡단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화영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공연 및 축제, 시각예술 및 공예, 도서 및 출판, 시청각 및 쌍방향 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서비스 6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표 2-16〉 UNESCO(2009) 통계의 문화영역(cultural domain)

영역	세부 내용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박물관, 역사유적, 문화경관, 자연유산 등
공연 및 축제	공연예술, 음악, 페스티벌, 축제 등
시각예술 및 공예	순수예술, 사진, 공예 등
도서 및 출판	도서, 출판물, 도서관, 북페어 등
시청각 및 쌍방향 미디어	영화, 비디오, TV, 라디오, 인터넷, 비디오게임 등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	패션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경관 디자인, 건축 서비스, 광고 서비스 등

자료: UNESCO(2009).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관련영역은 관광영역과 스포츠 및 오락영역으로 구분되며, 관광은 여행 및 관광서비스, 접객업, 숙박업 등을 포함하며, 스포츠 및 오락영역은 스포츠, 생활체육, 놀이동산, 테마파크, 도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횡단영역 무형적 문화유산, 자료의 축적과 보존, 교육 및 훈련, 설비 및 보조물 영역으로 구분된다. 횡단영역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범주화할 수도 있지만, 모든 문화영역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횡단영역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각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상품 및 문화활동을 5단계 문화순환주기로 나누고 있는데, 5단계 순환주기는 창작, 생산, 보급, 전시/수용/전달, 소비 및 참여를 말한다.

〈표 2-17〉 UNESCO(2009) 통계의 문화순환주기

순환주기	내용
창작	복제가 불가능한 작품이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
생산	문화라는 형태로 복제나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
보급	대량생산체계를 통해 소비자나 전시자에게 전달되는 것
전시/수용/전달	문화활동을 통해 청중 또는 관객들에게 지식과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권리 교환을 경험하는 것
소비 및 참여	관객과 참여자들이 문화적인 제품을 소비하거나 문화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료: UNESCO(2009).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다른 일반상품과 같이 표현한다면 생산, 유통, 소비의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문화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서비스 공공정책의 영역인 창작, 매개(전시, 수용, 전달), 참여의 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문화산업정책에 해당하는 상품 및 활동은 생산, 보

급, 소비의 가치사슬로 표현될 수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순환주기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5단계의 순환주기를 설정하고 있지만, 둘이 혼재되면 정교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둘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문화의 영역과 순환주기를 교차하면 문화통계의 틀이 나타나게 되는데 각 교차지점에 현상에 대한 수치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해당 셀의 통계가 되는 구조다. 관련 영역과 횡단영역도 같은 방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국내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장르가 중심이 되므로 장르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8〉 유네스코 문화통계 매트릭스

	문화영역					
	문화 및 자연유산	공연	시각예술	도서 및 출판	동영상 매체	디자인 및 창작
창작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생산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전파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전시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소비 및 참여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통계

*자료: UNESCO(2009)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OECD 문화통계

OECD(2018)는 『Culture and Local Development』에서 문화 부문을 ⅰ) 비산업적/핵심적 문화 부문 ⅱ) 문화산업 및 창의산업 ⅲ)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 구분한다.)

비산업적/핵심적 문화 부문의 경우 적절한 기술에 의해 복제할 수 없거나 복제되었을 때 주는 느낌이 달라져 복제가 바람직하지 않아 산업화되지 못한 문화영역이 포함된다. 비산업적/핵심적 문화 부문은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화유산, 박물관 등이 속한다.

문화 및 창조산업은 녹음기술, 라디오, 영화와 같은 기술 발전에 기반에 문화콘텐츠를 생산 및 복제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문화산업 부문의 결과물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경험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면, 창조산업부문의 결과물은 문화적 의미와 다른 기능적 요소(예컨대 인체공학, 영양적 가치, 안전과 편안함, 설득적 역량이나 기술 습득 등)의 혼합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차이에 따라 문화산업은 주로 출판(publishing), 음악, 시네마, 라디오 및 TV, 비디

오게임 영역이 포함되며, 창조산업은 디자인, 패션, 음식, 건축, 커뮤니케이션 및 광고, 기능성 게임(건강이나 교육 목적 게임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전통적 문화 부문과 창조산업부문의 특징과 기능과의 복잡한 혼합물인 동시에 보다 사회적이고 상호작용적이라는 측면(social, interactive dimension)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YouTube, Facebook, Twitter 등과 같은 소셜 플랫폼은 일명 프로슈머로 불리는 사용자에 의한 엄청난 일상적 콘텐츠의 공급을 통해 성장하며, 엄청난 수익성을 가진다.

비산업적/핵심적 문화부문, 문화 및 창조산업, 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정의되고는 있지만, 이들 3개의 부문은 서로 간 긴밀하고 복잡한 상호연관관계를 가진다.

〈표 2-19〉 OECD 문화영역 구분

구분		문화영역
비산업적/핵심적 문화 부문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화유산, 박물관
문화 및 창조산업	문화산업	출판, 음악, 영화, TV, 라디오, 비디오게임
	창조산업	디자인, 패션, 취향산업, 건축디자인, 광고 및 통신, 건강이나 교육목적 게임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자료: OECD(2018), Culture and Local Development : Background document.

3) EU의 문화통계

EU에서도 1997년부터 유럽의 문화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속적인 작업의 결과 2009년에는 ESSnet-CULTURE(European Statistical System network on Culture)가 구축되었고, 여기에서 제시한 문화영역은 10개, 문화적 기능영역은 6개(창작, 제작/출판, 배급/거래, 보존, 교육, 관리/규제)다. 유네스코와 마찬가지로 10개의 문화영역과 6개의 기능영역의 교차를 통해 통계프레임이 구축된다.

ESSnet-Culture가 새롭게 제시한 문화통계체계에서 문화영역은 유네스코의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보인다. 아카이브, 도서관, 출판 및 언론이 분화되었고, 디자인 영역이 시각예술 분야에 포함되었으며 건축, 광고, 공예가 각각 하나의 범주로 분리된 것이 특징이다.

문화순환주기(기능)와 관련해서는 횡단영역이었던 보존과 교육이 기능영역으로 이동되었고, 없었던 관리 및 규제 항목이 기능영역에 추가하였다. 관리 및 규제(Management

& regulation)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 지원을 위한 행정 활동 및 기술 지원 활동을 포함한다.

한편,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관련영역은 완전히 제외되었고, 횡단영역(Transversal domains) 중 하나인 '설비 및 보조물'과 '소프트웨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일반 인쇄활동'이 제외되었다. 또한 ESSnet-Culture는 제조업 활동이 문화와 일부 관련되어 있지만 훨씬 더 산업적이며 문화적 내용이 미미하다보고 문화영역에서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인쇄 및 제조업은 문화영역에서 제외되고, 문화적 내용이 있는 악기 제조는 문화관련 활동에 포함된다.

〈표 2-20〉 문화영역 및 문화적 기능(EU)

□ 10개의 문화영역
① 문화유산(Heritage): 역사적 기념물(Historical monuments), 박물관(Museums), 유적지(archeological sites), 사적지(Historical Places)
② **아카이브, 기록(Archives)**
③ **도서관(Libraries)**
④ **도서 및 언론(Books & Press), 통신사 (News agencies)**
⑤ 시각예술(Visual arts): 조형예술/미술(Plastic/Fine arts), 사진(Photography), 디자인(Design)
⑥ 공연예술(Performing arts): 음악(Music), 무용(Dance), 연극(Drama), 서커스(Circus), 카바레 공연(Cabaret), 복합 예술(Combined arts), 기타 라이브 쇼(other love shows)
⑦ 시청각·다매체(Audiovisual & Multimedia): 영화(Flim), 라디오(Radio), TV(Television), 비디오(Video), 녹음(Sound recording), 다매체 작품(Multimedia works; 비디오게임 포함)
⑧ **건축(Architecture)**
⑨ **광고(Advertising)**
⑩ **공예(Art Crafts)**

□ 6개의 문화적 기능
① 창작(Creation)
② 제작/출판(Production/Publishing)
③ 배급/거래(Dissemination/Trade_
④ 보존(Preservation)
⑤ 교육(Education)
⑥ 관리/규제(Management/Regulation)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2) ESSnet-CULTURE Final Report.

3. 지역 문화통계의 범위

가. 문화통계 목적 및 내용

문화통계에 무엇을 담을지는 문화통계의 수집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문화통계를 수집하는 이유는 국가의 문화수준을 판단하거나 정부의 정책적 개입 지점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문화예술분야 정책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션과 방향은 문화통계에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션은 따로 공표되고 있는 것이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기본법에 문화예술분야의 국가에서의 역할이 나타나 있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예술이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OECD 경제지표, 통계청의 국가지표체계는 특정 분야가 국가발전, 삶의 질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국가발전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이 국가총생산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 여부와 관련된다. 따라서 문화예술이 국가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통계 수집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산업의 주요 요소인 생산, 고용, 가격, 소비지출과 같은 지표들이 수집되고 있다.

한편, 삶의 질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참여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들이 문화예술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요컨대, **문화상품**이 잘 생산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잘 **전달**됨으로써 **국가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문화통계의 주요 목적**이 될 수 있겠다.

〈표 2-21〉 문화예술 통계의 내용

구분	국가발전	삶의 질
지표의 목적	경제의 한 축으로서 GDP 기여	문화예술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주요 내용	문화산업 생산 문화산업 고용 문화상품 가격 문화 소비지출 문화산업 전망	문화예술 영역별 문화 참여

나. 문화통계의 시장영역

다양한 이유로 문화통계가 수집되고 있지만, 국가가 관여하는 통계는 대체로 국가발전에서의 문화예술의 역할, 삶의 질 향상에서의 문화예술의 역할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미시적으로 어떤 내용 통계의 대상으로 수집해야 문화예술의 국가발전에서의 역할, 삶의 질에서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을까?

국가발전 측면에서는 경제 및 산업의 주요 구성요소인 생산, 고용, 상품가격, 소비지출 등이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민간 산업생태계에의 주요 요소들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삶의 질 측면에서 포괄적 문화예술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간 문화생태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문화생태계의 주요 요소 혹은 주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문화서비스 및 상품이 국민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관여되고 있는 요소 혹은 주체들이 주요 통계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시장의 특성이 공공시장 요소와 민간시장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 국가의 문화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도 시장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상황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요공급의 매칭까지 봐야 할 경우에는 민간과 공공의 구분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유리하다. 민간과 공공 시장의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계를 구분 없이 수집하고 매칭 활용하는 것은 수요공급 예측에 오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공공시장

공공의 문화서비스 시장은 포괄적인 문화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구조에서 파악해야 하는 요소들이 민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공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큰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계의 주요 파악 요소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순수예술과 문화서비스 분야는 주로 공공시장에서 속한 부분이 많고, 주요 요소와 주요 주체는 민간시장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 문화시장에서 파악되는 주요 요소는 문화상품 생산측면에서 문화창작물, 문화서비스, 문화자원 등이 있고, 유통측면에서는 문화시설, 문화서비스 업체(사업체, 단체 등)가 존재하며, 소비측면에서는 참여와 소비로 구분될 수 있다. 주요 주체의 경우 생산은 예술인, 문화기획자, 전승/관리자 등이 존재하

고, 유통측면에서는 문화서비스 종사자, 소비 측면에서는 국민이 존재한다.

〈표 2-22〉 공공문화시장의 주요요소 및 주체

단계 구분	주요 요소	주요 주체
투자	국가 및 재방 재정, 정책	중앙 및 지방정부
문화상품 생산	문화 창작물, 문화서비스, 문화자원	예술인, 문화기획자, 전승/관리자
문화상품 유통	문화시설, 문화서비스 업체	문화서비스 종사자
문화상품 소비	문화서비스 참여, 소비	국민, 지역민, 취약계층

2) 민간시장

민간시장의 경우 순환주기의 각 단계에서 파악해야 하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보다 명확하다. 대부분 경제영역에서 주로보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도 문화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고, 경제영역에서는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소비) 등이 주요 통계 내용으로 사용한다. 문화영역에서도 문화상품 제작 사업체, 문화상품의 유통 사업체 및 시설, 문화상품 소비 내용이 파악되면 문화산업이 국가발전 등에 기여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표 2-23〉 민간문화시장의 주요요소 및 주체

단계 구분	주요 요소	주요 주체
문화상품 생산	문화상품 창작/제작 사업체	종사자
문화상품 유통	문화서비스 사업체 및 시설	종사자
문화상품 소비	문화서비스 소비	국민

4. 지역 문화통계의 조작적 정의

1) 지역문화통계의 고려요소

지역문화통계라는 의미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보여도 지역문화통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시장구분, 문화영역, 문화순환주기, 문화통계내용, 지역구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시장구분은 동일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것이 추후 효과적인 정책개입

을 위해 필요하다. 문화영역은 문화예술의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무엇에 대해 통계를 수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문화예술 분류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국제적인 기준 차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순환주기는 실제 문화상품(현상 포함)이 생산되어 소비되는 과정으로 생태계의 건강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문화통계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문화생산, 유통, 소비에 관여되는 사람, 상품, 사업체 및 시설 등과 같이 실질적인 통계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구분은 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지역문화통계에서의 지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되어야 할 부분이고, 현재는 자치분권의 최소단위인 시군구가 가장 기본적인 지역구분으로 볼 수 있다.

〈표 2-24〉 지역 문화통계의 주요 고려 요소

구분	고려 요소
시장구분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을 구분하여 볼 필요
문화영역	유네스코 통계프레임에서 제시한 문화영역을 기초로 문화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구분일 수 있음
문화순환주기	기본적으로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의 구조 속에서 문화상품 시장, 문화의 영역의 특징에 따라 주기의 형태가 약간 변형될 수 있음
문화통계 내용	영역별 문화상품 및 서비스(상품, 작품, 프로그램 등)의 흐름에 따라 관여된 주요 주체(창작자, 종사자 등) 및 인프라(시설 등) 등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 공공시장의 경우 정부도 주요 주체로 포함
지역구분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 및 행정의 최소 단위인 시군구 지역의 통계 필요

2) 지역문화통계의 조작적 정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지역문화통계'를 시군구 지역을 기준으로 공공 민간시장을 포함한 문화예술분야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 관여되는 사항에 대한 통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문화통계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문화관련 국가통계, 지역통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문화통계의 조작적 정의

공간적으로 시군구의 문화시장(공공시장과 민간시장)에서 문화상품(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도서출판, 시청각/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 등)이 순환(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 관여된 인력, 시설, 상품, 프로그램, 정책 등에 대한 통계

제3장

지역 문화통계 현황

제1절 국가승인통계 현황

1. 국가승인통계 현황

국가승인통계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청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 신청·지정된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의미한다.

가. 작성기관별 승인통계 현황

2022년 5월 현재 총 1,282개의 국가승인통계가 작성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지정통계가 92개, 일반통계가 1,190개, 작성 방법별로는 조사통계가 561개, 보고통계 479개, 가공통계 242개로 나타난다. 통계작성기관은 431개로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는 260개, 지정기관은 13개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국가승인통계 현황

구분	작성기관수	작성 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431**	**1282**	**92**	**1190**	**561**	**479**	**242**
정부기관	308	1075	75	1000	443	417	215
- 중앙행정기관	48	431	58	373	225	153	53
통계청	1	66	37	29	39	2	25
이외기관	47	365	21	344	186	151	28
- 지방자치단체	260	644	17	627	218	264	162
지정기관	123	207	17	190	118	62	27
- 금융기관	7	21	10	11	8	5	8
- 공사/공단	37	61	0	61	26	33	2
- 연구기관	31	51	2	49	38	5	8
- 협회/조합	25	33	3	30	26	5	2
- 기타기관	23	41	2	39	20	14	7

자료: 통계청 승인통계 현황

나. 부문별 승인통계 현황

현재 작성되고 있는 승인통계의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문이라고 보기 힘든 지역통계를 제외하면 보건, 농림/수산, 정보통신/과학기술 부문의 통계의 비율이 높으며, 문화부문이 포함된 교육훈련/문화여가의 비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등의 통계 생산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2〉 승인통계 현황_통계부문별

구분	작성 통계수	구성비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1282	100	92	1,190	561	479	242
인구	10	0.8	3	7	2	4	4
사회일반	24	1.9	2	22	20	2	2
범죄·안전	32	2.5	0	32	12	20	0
노동	36	2.8	6	30	21	9	6
소득·소비·자산	6	0.5	4	2	6	0	0
보건	63	4.9	3	60	20	32	11
복지	28	2.2	1	27	14	11	3
교육·훈련/문화·여가	40	3.1	2	38	26	11	3
주거/국토이용	25	2	3	22	8	12	5
경제일반·경기/기업경영	40	3.1	5	35	27	2	11
농림/수산	57	4.4	9	48	38	16	3
광업·제조업	17	1.3	3	14	13	2	2
건설/교통·물류	48	3.7	4	44	20	27	1
정보통신/과학·기술	56	4.4	4	52	48	5	3
도소매·서비스	21	1.6	3	18	20	0	1
임금/물가	20	1.6	7	13	15	2	3
국민계정	23	1.8	5	18	0	0	23
정부·재정	21	1.6	1	20	4	17	0
금융/무역·국제수지	33	2.6	5	28	6	17	10
환경	38	3	4	34	15	20	3
에너지	16	1.2	1	15	8	6	2
지역통계	628	49	17	611	218	264	146

자료: 통계청 승인통계 현황

2. 지역 문화통계 충분성 검토

가. 지역통계 현황

지역통계는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나, 단위 행정구역별(시·도 혹은 시·군·구 등)로 작성되는 통계를 의미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지역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기준으로 총 181개, 시군구 기준 303개, 읍면동 기준 328개, 기타(특정 지역 등) 18개의 지역통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공표 범위별 승인통계 현황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계	452	181	303	328	18

자치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시군구 단위를 최소단위로 보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의 전반적인 기본사항을 파악하는 기본통계가 8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문별로는 국민계정, 보건 및 복지, 농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봐야 할 문화여가 부문은 1개의 통계가 존재하고 있어 작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 시군구 단위 승인통계 현황(2022.5.25.기준)

부문	통계수		작성방법		
	계	구성비	가공통계	보고통계	조사통계
계	303	100%	70	45	188
건설	1	0.3%		1	
광업·제조업	2	0.7%		1	1
교통·물류	3	1.0%		3	
국민계정	16	5.3%	16		
국토이용	2	0.7%		2	
노동	2	0.7%	1		1
농림	7	2.3%	1	4	2
문화.여가	1	0.3%		1	
범죄·안전	1	0.3%		1	
보건	6	2.0%		5	1
복지	4	1.3%	1	3	
사회일반	2	0.7%	2		
수산	1	0.3%			1
인구	1	0.3%	1		
주거	4	1.3%	1	2	1
지역통계	245	80.9%	47	19	179
환경	5	1.7%		3	2

자료: 통계청 승인통계 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나. 지역 문화통계 충분성 검토

1) 지역통계 충분성 검토 기준

지역통계의 충분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지역통계의 현황을 기준으로 박현정, 홍현정(2010)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동 연구에서 세부영역별로 통계가 지역정책수립에 얼마나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각 부문별 지역통계 작성비중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충분성 평가 결과를 '풍부'에서 '취약'까지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표 3-5〉 지역통계 충분성 검토 기준

지역통계 작성 비중	검토 결과
60% 이상	풍부
40%~59%	적정
20%~39%	부족
0~19%	취약

자료: 박현정, 홍현정(2010) 지역통계수요와 공급간의 매칭 연구

2) 부문별 지역통계 작성 현황

영역자체가 지역통계인 부문을 제외하고 광의의 지역통계(시도포함)를 영역별로 위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검토해 보면, 영역별 비중이 60% 이상 작성되어 풍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국민계정〉, 〈국토이용〉, 〈주거〉 부문이었다.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농림〉, 〈복지〉, 〈인구〉로 나타나고 있었다.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문은 〈광업/제조업〉, 〈교육/훈련〉, 〈교통/물류〉, 〈기업경영〉, 〈노동〉, 〈보건〉, 〈사회일반〉, 〈수산〉, 〈에너지〉, 〈환경〉이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영역은 〈경제일반〉, 〈과학기술〉, 〈금융〉, 〈도소매/서비스〉, 〈문화여가〉, 〈물가〉, 〈범죄/안전〉, 〈소득/소비/자산〉, 〈임금〉, 〈정보통신〉, 〈정부재정〉 부문이었다.

한편, 소지역통계에 대해서는 영역별 비중이 60% 이상 작성되어 '풍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국민계정〉뿐이었다. 다음으로 부족으로 판단되는 영역은 〈국토이용〉, 〈인구〉, 〈주거〉 영역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 영역의 지역통계, 소지역 통계는 각 12.5%, 4.2%로 지역통계 작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 부문별 지역 및 소지역통계 작성현황

부문	계	기타	전국	지역 (A+B+C)		시도 (A)	소지역 (B+C)		시군구 (B)	읍면동 (C)
계	1293	17	451	825	63.8%	183	642	49.7%	311	331
건설	21	0	16	5	23.8%	4	1	4.8%	1	0
경제일반·경기	15	0	13	2	13.3%	1	1	6.7%	0	1
과학·기술	20	0	19	1	5.0%	1	0	0.0%	0	0
광업·제조업	17	0	12	5	29.4%	3	2	11.8%	2	0
교육·훈련	15	1	9	5	33.3%	5	0	0.0%	0	0
교통·물류	28	1	17	10	35.7%	6	4	14.3%	3	1
국민계정	23	0	5	18	78.3%	2	16	69.6%	16	0
국토이용	10	0	2	8	80.0%	5	3	30.0%	2	1
금융	16	0	15	1	6.3%	1	0	0.0%	0	0
기업경영	27	1	17	9	33.3%	9	0	0.0%	0	0
노동	38	0	27	11	28.9%	8	3	7.9%	2	1
농림	42	1	20	21	50.0%	14	7	16.7%	7	0
도소매·서비스	21	0	17	4	19.0%	4	0	0.0%	0	0
무역·국제수지	17	0	17	0	0.0%	0	0	0.0%	0	0
문화.여가	24	0	21	3	12.5%	2	1	4.2%	1	0
물가	9	1	7	1	11.1%	1	0	0.0%	0	0
범죄·안전	32		27	5	15.6%	4	1	3.1%	1	0
보건	63	2	41	20	31.7%	14	6	9.5%	6	0
복지	28		15	13	46.4%	9	4	14.3%	4	0
사회일반	24	2	12	8	33.3%	6	2	8.3%	2	0
소득·소비·자산	6	0	5	1	16.7%	1	0	0.0%	0	0
수산	14	0	9	5	35.7%	4	1	7.1%	1	0
에너지	16	0	11	5	31.3%	5	0	0.0%	0	0
인구	10	0	5	5	50.0%	2	3	30.0%	1	2
임금	11	0	11	0	0.0%	0	0	0.0%	0	0
정보통신	36	0	33	3	8.3%	3	0	0.0%	0	0
정부재정	21	0	18	3	14.3%	3	0	0.0%	0	0
주거	15	1	4	10	66.7%	5	5	33.3%	4	1
지역통계(제외)	636	5	0	631	99.2%	54	577	90.7%	253	324
환경	38	0	26	12	31.6%	7	5	13.2%	5	0

3) 지역 문화통계 충분성 평가

승인통계의 영역별로 광의의 지역통계와 소지역통계의 작성현황을 활용하여 박현정, 홍현정(2010)이 제시한 지역과 소지역 통계의 쌍 검토 기준으로 지역통계의 충분성을 계량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 지역통계 충분성 검토 기준

검토결과		평가
지역통계	소지역 통계	
풍부	풍부	10
풍부	적정	9
적정	적정	8
풍부	부족	7
풍부	취약	6
적정	부족	5
적정	취약	4
부족	부족	3
부족	취약	2
취약	취약	1

자료: 박현정, 홍현정(2010) 지역통계수요와 공급간의 매칭 연구

위의 검토 기준에 따라 평가 수치를 부여하고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중 평가 수치가 1과 2에 해당하는 경우 중 소지역 통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최우선 검토영역으로 소지역 통계가 있지만, 평균 비중이 20% 이하인 영역을 개선이 시급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 결과를 적용할 경우 **문화영역은 평가점수 1, 평균비중 20% 이하인 시급한 개선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과학/기술, 교육/훈련, 교통/물류, 금융, 기업경영, 도서매/서비스, 무역/국제수지, 물가, 소득/소비/자산, 에너지, 임금, 정보통신, 정부재정 부문이 단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통계의 특성상 지역통계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이므로 이는 생략한다.

〈표 3-8〉 지역통계 충분성 평가 결과

영역	지역		소지역		평가		
	비중	검토	비중	검토	비중 (평균)	점수	구분
계	63.8%	풍부	49.7%	적정	56.7%		
건설	23.8%	부족	4.8%	취약	14.3%	2	
경제일반·경기	13.3%	취약	6.7%	취약	10.0%	1	**
과학·기술	5.0%	취약	0.0%	취약	2.5%	1	***
광업·제조업	29.4%	부족	11.8%	취약	20.6%	2	
교육·훈련	33.3%	부족	0.0%	취약	16.7%	2	***
교통·물류	35.7%	부족	14.3%	취약	25.0%	2	***
국민계정	78.3%	풍부	69.6%	풍부	73.9%	9	
국토이용	80.0%	풍부	30.0%	부족	55.0%	7	
금융	6.3%	취약	0.0%	취약	3.1%	1	***
기업경영	33.3%	부족	0.0%	취약	16.7%	2	***
노동	28.9%	부족	7.9%	취약	18.4%	2	**
농림	50.0%	적정	16.7%	취약	33.3%	4	
도소매·서비스	19.0%	취약	0.0%	취약	9.5%	1	***
무역·국제수지	0.0%	취약	0.0%	취약	0.0%	1	***
문화.여가	12.5%	취약	4.2%	취약	8.3%	1	**
물가	11.1%	취약	0.0%	취약	5.6%	1	***
범죄·안전	15.6%	취약	3.1%	취약	9.4%	1	**
보건	31.7%	부족	9.5%	취약	20.6%	2	
복지	46.4%	적정	14.3%	취약	30.4%	4	
사회일반	33.3%	부족	8.3%	취약	20.8%	2	
소득·소비·자산	16.7%	취약	0.0%	취약	8.3%	1	***
수산	35.7%	부족	7.1%	취약	21.4%	2	
에너지	31.3%	부족	0.0%	취약	15.6%	2	***
인구	50.0%	적정	30.0%	부족	40.0%	5	
임금	0.0%	취약	0.0%	취약	0.0%	1	***
정보통신	8.3%	취약	0.0%	취약	4.2%	1	***
정부재정	14.3%	취약	0.0%	취약	7.1%	1	***
주거	66.7%	풍부	33.3%	부족	50.0%	7	
지역통계(제외)	99.2%		90.7%		95.0%		
환경	31.6%	부족	13.2%	취약	22.4%	2	

주) ***: 평가 1, 2 중 소지역 통계가 0인 지역

**: 평가 1, 2에 해당하며 평균비중 기준으로 '취약' 해당하는 경우

3. 지자체 작성 승인통계 현황

가. 광역자치단체 작성 승인통계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작성은 자체 통계생산업무와 위임통계 작성으로 구분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업무는 통계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위임통계조사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자체통계조사는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를 살펴보면, 조사통계 중 사업체조사, 사회조사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보고통계 2종 주민등록인구통계, 기본통계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사되고 있다. 가공통계의 경우 지역내총생산, 인구추계는 공통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지역통계는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하나,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통계만을 살펴보아도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승인통계 현황분석은 생략하였다.

〈표 3-9〉 광역시도 생산 승인통계 현황

구분	통계수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서울특별시	11	• 사업체조사 • 복지실태조사 • 도시정책지표조사 • 먹거리통계조사 • 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 주민등록인구통계 • 차량통행속도실태조사 • 기본통계	• 지역내총생산 • 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 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부산광역시	16	• 사업체조사 • 차량교통량조사 • 사회조사 • 해양산업조사 • 환경산업조사 • 제조업실태조사 • 일자리종합실태조사 • 복지실태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크루즈행정통계	• 지역내총생산 • 수산업통계 • 경기종합지수 • 베이비부머통계 • 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대구광역시	11	• 사회조사 • 관광실태조사 • 교통량조사 • 노인실태조사 • 사업체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경기종합지수 • 지역내총생산 • 구군별장래인구추계 • 노인등록통계

구분	통계수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인천광역시	10	• 사업체조사 • 사회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지역내총생산 • 경기종합지수 • 군구별장래인구추계 • 청년통계 • 장애인통계 • 노인등록통계
광주광역시	9	• 사업체조사 • 사회조사 • 일자리인식실태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지역내총생산 • 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 경기종합지수 • 청년통계
대전광역시	10	• 사업체조사 • 사회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지역내총생산 • 경기종합지수 • 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 독거노인등록통계 • 베이비부모통계 • 청년통계
울산광역시	10	• 사업체조사 • 사회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지역내총생산 • 경기종합지수 • 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 청년통계 • 베이비부머통계 • 노인등록통계
세종특별자치시	8	• 사회조사 • 사업체조사 • 일자리인식실태조사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청년통계 • 장애인통계
경기도	14	• 사업체조사 • 콘텐츠산업통계조사 • 사회조사 • 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 관광지방문객실태조사	• 주민등록인구통계 • 기본통계 • 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 영유아통계 • 청년통계 • 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 지역내총생산 • 경기종합지수 • 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강원도	8	• 사회조사 • 사업체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지역내총생산 • 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 경기종합지수 • 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충청북도	8	• 사회조사 • 사업체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경기종합지수 • 지역내총생산 • 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 청년통계
충청남도	8	• 사회조사 • 사업체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경기종합지수 • 지역내총생산 • 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 청년통계

구분	통계수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전라북도	8	• 사회조사 • 사업체조사 • 지역사회보장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경기종합지수 • 지역내총생산 • 시군장래인구추계
전라남도	8	• 사회조사 • 사업체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지역내총생산 • 경기종합지수 • 시군별장래인구추계 • 노인등록통계
경상북도	10	• 사회조사 • 사업체조사 • 나잠어업실태조사 • 한옥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시군장래인구추계 • 지역내총생산 • 청년통계 • 경기종합지수
경상남도	7	• 사회조사 • 사업체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지역내총생산 • 경기종합지수 • 시군별장래인구추계
제주특별자치도	14	• 사업체실태조사 • 어가실태조사 • 일자리인식실태조사 • 방문관광객실태조사 • 주거실태조사 • 사회조사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기본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	• 지역내총생산 • 경기종합지수 • 장래인구추계 • 사업체생멸등록통계 • 일자리등록통계

자료: 통계청 승인통계 작성 현황 참조

나. 지역통계 중 문화분야 포함 통계

지역에서 생산하는 문화여가 관련 승인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본통계와 사회조사 항목에 문화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1) 기본통계

〈 기본통계 주요 연혁 〉

■ 시도 기본통계 일반통계로 작성 승인(1993.~2013.)
* 1993.6. (15개 시도), 1997.11.(울산), 2013.12.(세종)
■ 226개 시군구 기본통계 작성 승인(~2007.)
■ 기본통계 표준화 실시(2008~)
- 통계표의 작성기준, 구성항목, 수록범위 등 항목을 표준화하여 기본통계의 지역 간 비교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 기본통계 표준서식 관리부서 변경('19.2월)
- 경제통계심사조정과 → 지역통계총괄과

기본통계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표는 인구, 노동, 사업체,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소득 및 지출 등 17개 부문 307개 통계표('20년 기준)이며, 그중 문화부문에서는 공공도서관, 문화재, 공공체육시설, 신고·등록 체육시설업, 청소년 수련시설, 언론매체 현황 등 시설 현황이 주로 조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매년 지역의 통계연보로 발간되는 것이 지역 기본통계를 의미한다.

〈표 3-10〉 자치단체 기본통계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 인구, 노동, 사업체,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소득 등 분야의 각종 통계를 수집 발간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행정 수행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 해당 자치단체
조사항목	•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총괄, 농림수산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서비스, 주택·건설,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소득 및 지출, 공공행정 및 사법 등 19개 부문에 걸쳐 기본통계를 수록

자료: 통계청. 기본통계 설명자료

기본통계는 243개 지자체에서 생산한 통계 604종 중 243종(40.2%)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 226개 중 101개(44.7%)는 기본통계만 작성하고 있다.

〈표 3-11〉 기관구분별 승인통계 현황(20.11월)

기관구분별 승인통계현황	작성 기관수	작성 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a)	430	1,225	92	1,133	539	478	208
지방자치단체(b)	260*	604	17**	587	211	264	129
비중(b/a*100)	60.5	49.3	18.5	51.8	39.1	55.2	62.0
기본통계(C)	243	243		243		243	
비중(c/a*100)	56.5	19.8		21.4		50.8	

주: * 17개 시도교육청 포함, ** 사업체조사
자료: 통계청(2020)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기본통계 중기 개선 계획안

2) 사회조사

사회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통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이다. 1977년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이고 포

괄적인 조사통계 중 하나다.

〈 사회통계 주요 연혁 〉

■ 조사연혁
○ 1977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구성을 목적으로 최초로 조사
○ 1978 : 사회지표 체계 수립(한국개발연구원 공동연구)
○ 1979~1984 : 총 8개 부문 중 매년 4~5개 부문을 선정하여 조사
○ 1985~1996 : 조사부문을 2~3개로 축소하고 심층조사(항목 수 확대)
○ 1997 : 연 2회(4, 9월)조사로 변경(상.하반기 2개 부문씩 조사)
○ 1998~2005 : 연 1회 조사로 환원(3개 부문씩 각 부문별 4년 주기로 조사)
○ 2006~2007 : 매년 3~4개 부문씩 부문별 3년 주기로 조사주기 전환
○ 2008 : 매년 5개 부문씩 부문별 2년주기로 조사주기 전환,
조사명칭을「사회통계조사」에서「사회조사」로 변경
- 2011 : 조사 대상 변경(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
- 2018 :「보건」,「교육」,「안전」,「가족」,「환경」부문
- 2019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부문

■ 조사체계
조사대상→지방통계청→통계청

'21년 현재 32,203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의 상주 가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분야는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10개 분야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다섯 분야씩 격년제로 조사를 진행한다. 2022년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사회조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조사 영역 중 문화여가 부문이 문화통계 영역이다. 여가부문 조사 항목은 11개이다.

〈표 3-12〉 자치단체 사회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 자치단체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개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 해당 자치단체 내 가구 조사
조사항목	• 공통항목 : 기본사항, 인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문화여가와 관련해서 광역시도의 공통항목 문항 설정 • 특성항목: 자치단체에 따라 특성화 문항 추가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설명자료

〈표 3-13〉 기본통계 및 사회조사 주요 조사 사항

기본통계		사회조사	
통계표	자료출처	지표	세부 문항
공공도서관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여가활용	• 여가활용 • 여가 동반자
문화재	• 국가문화유산포털	여가활용 만족도	• 여가 활용 만족도 • 불만족 이유 • 향후 여가의향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 문체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여행	• 국내 관광 및 횟수 • 해외 여행 및 횟수
체육시설 (신고·등록 체육시설업)	• 문체부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 문화예술 스포츠관람(현장관람) • 문화예술 스포츠관람(온라인 관람)
청소년수련시설	•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레저시설 이용	• 레저시설 이용
언론매체	• 방송산업실태조사 •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신문 및 독서	• 신문보는 인구 • 독서 인구 및 1인당 독서 권수

자료: 기본통계 작성 매뉴얼(2021년), '21년 사회조사 지침서(2021) 참조하여 작성

제2절 지역 문화통계 현황

1. 중앙작성 문화통계 현황

가. 승인통계 현황

1) 문화여가분야 승인통계

통계청의 통계부문 구분에서 문화여가 관련으로 구분된 통계는 총 24개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4〉 문화여가 분야 승인통계 현황

작성기관	통계명	분야	조사 대상	공표 범위	조사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실태조사	문화여가	개인	전국	3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문화여가	사업체	전국	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문화여가	사업체	전국	3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여가	기타	**시군구**	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조사	문화여가	기타	**시도**	1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활용조사	문화여가	개인	전국	3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조사	문화여가	가구	전국	1년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휴가조사	문화여가	개인	전국	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여가	개인	전국	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여가	가구	전국	1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	문화여가	기타	전국	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여가	개인	전국	2년
문화재청	문화재관리현황	문화여가	기타	전국	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문화여가	기타	전국	1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	문화여가	기타	전국	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문화여가	개인	전국	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문화여가	개인	전국	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문화여가	기타	전국	분기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여가	개인	전국	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문화여가	개인	**시도**	월
(사)한국여행업협회	여행사국제관광객유치·송출통계	문화여가	사업체	전국	월
산림청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문화여가	가구	전국	1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기본통계	문화여가	기타	전국	1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방과후활동수요및현황조사	문화여가	개인	전국	3년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하는 통계는 16개이고, 문체부 유관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4개, 외부 공공기관(정부, 공공기관 포함) 작성 통계가 3개, 민간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가 1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인 및 가구 대상의 통계가 13개**, **사업체 대상통계가 3개**, **시설, 프로그램, 자료와 관련된 기타대상 통계가 8개**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및 가구 대상 통계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수요와 관련된 통계로 볼 수 있고, 사업체와 관련된 통계는 공급영역의 산업통계 영역이며 기타통계는 공급영역에서 주로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여가분야 관련통계 중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영역은 문화여가 수요통계영역으로 볼 수 있고, 영역별로 조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여가분야 통계 중 시군구 단위까지 공표하는 통계는 지역문화현황통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기타분야 승인통계 현황

문화여가분야로 구분되지 않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에서 작성하는 문화분야 승인통계는 총 7종으로 확인된다. 보건 및 복지 분야가 2건, 도소매·서비스 분야가 5건으로 나타났고, 통계분야 구분은 통계의 활용목적에 의해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여가분야 외 통계는 **수요측면의 통계가 2건**, **공급부분의 통계가 5건**이었다. 이 중 시군구 단위로 공표하는 통계는 전무하다.

〈표 3-15〉 기타분야 승인통계 현황

작성기관	통계명	통계분야	조사 대상	공표 범위	조사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도소매·서비스	사업체	**시도**	1년
문화체육관광부	광고산업조사	도소매·서비스	사업체	전국	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도소매·서비스	사업체	전국	1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조사	도소매·서비스	사업체	**시도**	1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조사	도소매·서비스	사업체	전국	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측정통계	보건	개인	전국	1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조사	복지	개인	**시도**	1년

3) 승인통계 주제 및 공표범위

포괄적인 문화분야 승인통계를 통계주제 및 공표범위로 구분하여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제별로 문화영역에서 창작 및 자료와 관련된 통계가 2개, 시설(사업체, 프로그램, 종사자) 관련 조사가 6개, 소비와 관련된 조사가 6개, 행정과 관련된 조사가 1개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 및 기타 영역에서는 사업체 관련 통계가 7개, 소비 관련 통계가 9개로 나타난다.

공표범위별로는 문화영역에서 공연예술조사는 시도까지 공표하고 있고, 지역문화현황통계만 유일하게 시군구까지 공표하고 있다.

〈표 3-16〉 통계주제 및 공표범위별 문화승인통계 현황

영역	통계대상 및 주제	계	공표범위	
			전국	시도(시군구)
문화	창작자. 자료	2	예술인실태조사 저작권통계	
	시설, 사업체 프로그램, 종사자	6	전국도서관통계 문화재관리현황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공연예술조사
	소비자	6	한국수어활용조사 문화예술교육조사 근로자휴가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	
	행정/재정	1		지역문화현황통계(시군구)
관광 체육 기타	시설, 사업체 프로그램, 종사자	7	국립공원기본통계 광고산업조사 관광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여행사국제관광유치송출통계	콘텐츠산업조사 스포츠산업조사
	소비자	9	국민여행조사 국민생활체육조사 주요관광객입장객 통계 외래관광객조사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국민체력측정통계 청소년방과후활동수요및현황조사	한국관광통계 장애인생활체육조사

자료: 저작 작성

나. 주요 비승인통계 현황

1) 조사통계 현황

통계청 승인통계 외에도 문화분야 비승인 통계가 다수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화부문 비승인 통계는 문화기반시설 총람이다. 문화기반시설 총람은 비승인 통계임에도 주요 문화시설을 전수 조사한 통계로 다양하게 참조된다. 예를 들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가 문화기반시설 총람이다.

문체부에서 생산하는 주요 비승인 통계는 시설계열 조사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체부에서 생산하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는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작은도서관 정책을 위해 수집되는 통계다. 마찬가지로 미술관, 박물관,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등은 주요 문화공간으로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상세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되고 있다. 대부분 문화기반시설총람의 조사주기인 1년과 동일하고 전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생활문화와 관련된 조사는 아직은 정책의 진화과정에 있어 비정기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실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문화시설과 관련된 조사들이 시설별로 따로 조사되고 있는 것처럼 미술과 공예는 각각의 시장을 따로 조사하고 있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조사주기 1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공예산업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3년이면서 5,000표본 사업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표 3-17〉 문화분야 주요 비승인통계

작성기관	조사명	조사 대상	주기	표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 총람	사업체	1년	전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지역축제총괄표	지자체	1년	전수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운영실태조사	사업체	1년	전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센터운영 실태조사	사업체	비정기	전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동호회실태조사	개인	비정기	전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실태조사	사업체	1년	전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	사업체	1년	전수
한국박물관협회	전국박물관·미술관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사업체	비정기	전수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시장실태조사	사업체	1년	전수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산업실태조사	사업체	3년	5,000

2) 문화통계 시스템 현황

일반적인 통계 형식으로 조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가 축적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대부분이 문체부 유관기관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 주요 문화통계 시스템은 〈표 3-18〉과 같다.

〈표 3-18〉 문체부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

소관 기관	관련 시스템·사업 명칭	수집 데이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 주관 기관별 지원사업정보 • 전체 지원사업 목록 • 지역의 공모·공고 • 문화예술지도 (기관별 공모현황, 지원사업현황)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KOPIS)	• 공연, 공연시설, 기획/제작사, 수상작, 축제, 극작가 DB • 예매상황판 • 공연관련 기간별·지역별·장르별·가격대별 통계
	•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 경매회사, 화랑, 아트페어 정보 • 월간 경매시장 분석자료 • 미술시장 규모, 시장 영역별 규모 자료
	• 공연예술 국제교류 정보 플랫폼	• 해외진출현황 (권역, 기간, 장르, 사업구분) • 해외디렉토리 (행사, 문화기반시설 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셈터	• 문화예술통계, 문화산업통계, 관광·체육통계
한국문화정보원	•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C마켓)	• 문화역세권 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자료 등
	• 문화포털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 공연/전시/행사/축제/교육/체험 프로그램 정보 • 문화시설·체육시설·서점·문화예술단체 위치정보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 지역 문화시설, 인력, 정책, 프로그램 정책 정보
	• 문화N티켓	• 공연/전시/행사·축제 정보 • 문화인물, 문화단체 정보 • 키오스크 위치 정보
	• 문화데이터 광장	• 전시/공연예술/개인전/영화/행사/도서 정보 • 오픈 API • 산업활용DB (3D 데이터, 3D 프린팅 자료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예술활동증명 • 산재보험·의료비지원·창작준비금지원 현황 등 • 예술교류정보 (예술활동공간, 협회·조합, 기타 단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한국문화예술회관 극장기술정보DB	• 일반 정보(이름·주소·개관일·설계자·객석규모 등) • 담당부서 / 연락처, 대관자 사무실 • 작업 방침, 객석 / 로비, 그래픽 / 디스플레이 • 분장실, 연습실, 의상실, 반입구, 화물 엘리베이터 • 장치 보관, 무대 기본 치수, 상부 설비 일람표

소관 기관	관련 시스템·사업 명칭	수집 데이터
		• 하부 무대기계 일람표, 프로니시엄, 무대 바닥 • 무대감독석, 오케스트라파트, 덧마루, 보유 막장치 • 기타 보유 장비, 조명시스템, 조명기, 음향, 편의시설
한국 문화예술교육 진흥원	•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	• 문화예술교육사 개인정보
	• 학교 예술강사 지원 시스템	• 예술강사 개인정보 • 참여 희망하는 학교 담당교사, 운영기관 담당자 정보
한국 문화원연합회	• 지역문화포털 (지역N문화)	• 지역문화 관련 디지털자료, 콘텐츠 • 전국의 주요 관광지, 문화시설, 축제·공연·행사· • 레포츠·쇼핑·음식점 정보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 지역본부·센터 정보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 자원봉사 그룹리스트 (그룹명, 활동영역, 지역)
한국국제 문화교류 진흥원	•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 주요 국제행사/축제 • 국제문화교류 사업현황(사업명, 분야, 행사국가 및 도시, 주관기관, 연락처, 기간, 진행상태) • 교류거점 (국내기관, 해외기관의 연락처·홈페이지)
문화체육 관광부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전국도서관통계 관련 자료

자료: 저자 작성

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의 활용 목적에 따라 시장, 사업, 인력, 정보제공 등의 목적에 따라 자료가 축적되고 있고, 이는 통계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다. 먼저 시장(market)과 관련 있는 시스템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이 있다. 다음 정책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문화센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국제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문화교육사 시스템, 예술강사 지원 시스템,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자료 축적 및 정보제공 목적으로 문화포털, 지역N문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표 3-19〉 목적별 주요 문화정보시스템

시스템 목적	주요시스템	
시장정보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정책정보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 문화센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국제교류종합정보시스템 • 공연예술 국제교류 정보 플랫폼
인적자원정보	• 예술인경력증명시스템 •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시스템

시스템 목적	주요시스템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시스템	
자료축적 및 정보제공	• 지역N문화 • 한국문화예술회관 극장기술정보DB	• 문화포털
빅데이터 및 기타	•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C마켓) • 문화데이터 광장	• 문화N티켓

자료: 저자 작성

2. 중앙작성 문화통계 내용 분석

문화생태계 요소별 현황분석은 문화 분야 승인통계 중 관광과 체육을 제외하고 문화예술 분야 통계와 주요 비승인 문화통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대상에 대해서 문화생태계의 요소별(정책, 자원, 인력, 프로그램 등)로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지역문화정책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공공부분의 공급측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지역문화서비스의 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조사지표는 총 32개 지표(4대 분류 32개 문화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3-20 참조).

4개의 대분류는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인력 및 단체), 문화향유(문화프로그램)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문 문화서비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군구 단위로 공표되는 유일한 문화분야 통계이다.

다만, 문화향유 영역은 사실상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엄격한 의미의 향유조사라고는 할 수 없고, 민간부문을 제외하고 공공부문만 조사하고 있어 문화자원(시설, 사업체 등)의 민간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역의 문화여건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3-20〉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및 자료수집 출처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문화 정책	정책 사업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	지자체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지방자체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지자체
	정책 환경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	지자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	지자체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	지자체
	문화 예산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	지자체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지자체/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문화 자원	문화 유산	시·도 지정 문화재 수*	지자체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	지자체
	기반 시설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문체부 자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지역문화진흥원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	장애인인증개발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	지자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원 활용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공공 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전국지역축제총괄표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	지자체
문화 활동	활동 조직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활동 인력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지자체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관광해설사 수*	지자체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예회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 향유	지역 주민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	지자체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	지자체
	소외 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지자체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지자체

자료: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주: *표기가 되어있는 지표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문화 DB 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지표임

나. 문화자원

1) 문화자원 통계 현황

문화자원은 일반적으로 문화시설,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을 의미하고, 주요 문화시설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등으로 구분된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으로 구분된다.

문화자원과 관련된 통계에서는 공공영역의 문화 인프라를 전수 조사하고 있고, 관련된 승인통계는 전국도서관통계,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재관리현황 등이 있다.

〈표 3-21〉 문화자원 통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승인통계	비승인통계 및 자료
문화자원	문화기반시설	도서관	전국도서관통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체부)
		박물관 미술관	-	전국문화기반기설총람(문체부)/ 전국 박물관·미술관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한국박물관협회)
		문예회관	공연예술실태조사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체부)/ 문예회관 운영현황 실태조사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문화원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체부) 지방문화원 실태조사(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 재단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체부) 지역문화재단실태조사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 센터	-	생활문화센터운영 실태조사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의 집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체부)
		작은 도서관	전국도서관통계	작은도서관운영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포털사이트 등록현황(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문화재	문화재	문화재관리현황	

자료: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의 내용을 재구성

가장 포괄적으로 문화자원을 조사하는 문화기반시설 총람은 공공영역의 문화시설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군구까지 공표가 가능하나, 현재 승인통계는 아니다.

2003년부터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고, 시설에 대한 정보,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이용정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자료수집방법은 각 기설 담

당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22〉 전국문화기반시설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도서관	위치, 설립주체, 도서관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개관연도, 시설규모, 소장자료, 직원현황, 운영예산, 이용현황
박물관	시설정보(위치, 운영주체 등), 시설현황(면적, 시설별 면적 등), 소장자료 현황(유물 종류, 개수 등), 전시 및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수), 개관일수, 관람인원, 관람료, 인력현황, 학예인력, 일반인력 등
문예회관	시설정보(위치, 건립주체 등), 운영주체, 시설현황(면적, 시설별 면적 등), 인력 수, 공연일수, 전시일수, 이용자 수, 운영비
문화원	문화원 명, 문화원 위치, 문화원장명, 설립일, 회원 수, 인력현황, 예산현황, 시설현황, 주요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수
문화재단	문화재단 위치, 설립일, 설치조례, 이사장, 대표이사 명, 최초출연금, 기금구모, 주요사업, 조직현황, 기준정원, 인력현황, 예산현황, 사업현황, 사무실 면적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위치, 운영방식, 공간유형, 선정연도, 개관연도, 개관일, 운영예산, 인력
문화의 집	문화의 집 위치, 개관일, 운영형태 및 운영주체, 연간 이용자 수, 운영인력 수, 휴관일, 개관시간, 총면적, 운영시설 현황, 프로그램 수 및 명, 동아리 현황, 예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 주요 시설별 조사내용 비교

문화관련 통계 현황을 보면 문화시설과 문화소비 영역은 가장 조사가 많이 되는 영역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으로 반증한다. 이에 문화시설의 조사내용의 균질성을 검토한 결과,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표준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주요 시설별 조사 내용 비교

구분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기본정보	주소 및 연락처 설립주체 및 도서관명 개관년도	소재지 국립·공립·사립·대학 여부 1종·2종·미등록 여부 박물관 명칭 박물관 주소 연락처 개관연월일 등록현황 및 등록연월일	시도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개관일자 공연장 등록일
시설 및 설비	부지 및 건물 면적 열람석 수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상시전시실 면적	공연장 면적 무대 면적

구분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시스템 구축현황 유무 (RFID 시스템, 바코드) 자료실 면적 열람실 면적 및 좌석 수 서고, 컴퓨터실, 강의실 면적	기획 및 특별전시실 면적 수장고 면적 및 항온항습 사회교육실, 자료도서실 면적 연구실, 사무실 면적 문화상품점, 매점 면적 주차대수	객석 수 구동무대, 기계, 기구 수
소장자료	도서자료 수 연간증가 도서자료 수 비도서 수 연간증가 비도서 수 연속간행물 수 연간증가 연속간행물 수	소장유물 종류 및 개수 유물교체횟수 지정문화재 등 표준유물 관리시스템 활용여부 자체유물 관리시스템 활용여부 시스템 등재유물 개수 및 비율 유물대장 관리 여부	-
인적자원	총 직원 현원 및 정원 행정직 현원 및 정원 사서직 현원 및 정원 전산직 현원 및 정원 기타직 현원 및 정원 1급 / 2급 / 준사서 여부	학예직공무원 수 공무원 수 일반직 공무원 수 계약직 등 비정규직 수 인턴 수 자원봉사자 수	-
예산 및 결산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총 예산 관람료 수입 자산 운용 수입 외부기부 및 기증 출연금 및 기타 인건비 및 사업비 관리 및 운영비(인건비 제외)	-
이용현황	이용자 수 및 이용책 수 도서관 방문자 수 자료실 이용자 수 이용책 수 (국립도서관) 대출권 수(공공도서관 등	총 예산 관람료 수입 자산 운용 수입 외부기부 및 기증 출연금 및 기타 인건비 및 사업비 관리 및 운영비(인건비 제외)	-

자료: 저자 작성

다. 인력 및 단체

문화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승인통계는 지역문화실태조사와 예술인실태조사가 있다.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문화인력 및 단체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고,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등록예술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외부에 정보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

〈표 3-24〉 인력 및 단체 통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승인통계	비승인통계 및 자료
문화 인력 단체	인력	예술인	전문예술인	예술인실태조사	예술인복지재단
		매개 인력	문화예술 교육사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관광 해설사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 (한국관광공사)
			자원봉사자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한국문화원연합회)
		교육 인력	예술강사	지역문화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합운영시스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문 인력	학예사	지역문화실태조사	전국 박물관·미술관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한국박물관협회)
			사서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역문화실태조사	
	단체	전문 예술단체	-	지역문화실태조사	전문예술법인단체포털사이트 등록현황 (예술경영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포털사이트 등록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제교류 기관		국제문화교류실태 조사	

자료: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의 내용을 재구성

지역문화실태조사의 경우 포괄적인 예술인 및 단체의 숫자 현황만 파악하는 데 반해, 대표적인 인력 관련 승인통계인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14개 문화예술 영역 예술인의 구체적인 예술활동, 고용,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표 3-25〉 예술인실태조사 조사대상 및 항목

구분	내용
조사대상	•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등 14개 분야별 활동 예술인
조사항목	• 예술활동분야, 예술활동내용, 고용 및 근로형태, 생활 및 복지, 예술정책만족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예술인 실태조사

라. 문화프로그램(문화상품)

실질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접점에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경험재 영역의 문화프로그램이 조사되고 있고, 관련 승인통계는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조사 등이 있다. 한편, 비승인통계의 경우 문체부의 대표적인 정책적 필요에 의해 분절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26〉 문화프로그램 통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승인통계	비승인통계 및 자료
문화 프로그램 (사업)	공연 전시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지역문화실태조사	방방곡곡 문화공감(한국문예회관연합회)
			신나는 예술여행(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지역문화진흥원)
	교육 체험	문화예술교육조사	길 위의 인문학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행사 축제	지역문화실태조사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생활문화 등)	-	생활문화센터운영실태조사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자료			

자료: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의 내용을 재구성

가장 포괄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있는 승인통계는 지역문화실태조사와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가 있는데,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문체부 주요 사업,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숫자 등을 파악하고 있고,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에서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세 가지 문화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다.

〈표 3-27〉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문학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문학 단행본 및 잡지, 한국문학 외국어 번역도서
	시각예술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시설기반 총람 등재 전시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 제공 전국 문예회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홈페이지 제공 회원관, 한국화랑협회 홈페이지 제공 회원화랑,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홈페이지 제공 회원사
	공연예술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공연장 등재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 등재 공연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 제공 전국 문예회관, (사)한국소극장협회 회원사 운영 공연장, 전국 대학교 운영 공연장
조사항목	문학	단행본(분류,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12개항목), 단행본(아동), 한국문학 외국어번역도서, 문학잡지, 문학상, 문학행사, 문학학술행사, 문학소사
	시각예술	시각예술활동, 시각예술잡지, 시각예술상, 시각예술전시행사, 시각예술학술행사, 시각예술소사
	공연예술	공연예술활동, 공연예술잡지, 공연예술상, 공연예술행사, 공연예술학술행사, 공연예술소사

자료: 통계청.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설명자료

마. 문화 참여

1) 문화수요 통계 현황

문화참여와 소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승인통계는 문화예술활동조사, 여가활동조사, 국민독서실태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등이 존재한다. 문화예술활동조사와 여가활동조사는 문화영역별 참여와 소비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독서실태조사는 문화영역 중 독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깊이 있게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휴가조사는 문화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문화참여의 기본 여건인 여가시간 및 휴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신한카드 소비지출액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영역별 카드지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밖에 공연예술실태조사, 도서관 정보나루 시스템 등에서 일부 문화참여와 관련된 통계가 조사되고 있다.

〈표 3-28〉 문화참여 통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승인통계	비승인통계 및 자료
문화 참여	여가	여가활동조사	여가관련 카드소비지출액(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문화예술활동조사	여가관련 카드소비지출액(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독서	국민독서실태조사	
	휴가	근로자휴가조사	

대표적으로 문화참여를 파악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 횟수, 관람/참여 방법 및 시간대, 관람/참여 동반자, 문화자원봉사 활동 경험률 및 활동 빈도,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률, 분야별 1년 이내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및 만족도, 문화예술교육 선호 방식, 문화예술 프로그램 선호유형 및 만족도 등이 조사되고 있다.

한편,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1년간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 및 평균 개수,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유형, 동호회 활동 참여유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시간, 하루 평균 여가시간, 월평균 여가비용, 휴가 일수 및 여가활동 유형, 여가활동 동반자 유형, 여가공간 선호유형, 월평균 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표 3-29〉 문화분야 주요 수요 조사 조사항목

조사명	영역	세부조사항목
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관람 실태 : 횟수, 만족도, 의향, 문화예술 참여경험, 만족도, 향후 참여 의향, 참여활동 공간, 참여 지원 형태, 매체를 이용한 관람실태, 문화예술행사 참여실태, 문화예술 관련 지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과거 경험,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교육 만족도 문화예술교육 실태 : 교육기관, 보완점, 선호방식, 교육 걸림돌
	문화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횟수, 문화시설 위치 및 만족도, 문화시설의 문화행사 참석 횟수, 문화시설 프로그램 만족도, 문화시설 이용의 어려운 점, 문화시설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참여 의향 및 희망 프로그램, 참여의 주요한 기준
	문화 관련 활동	문화관련 단체 등 자원봉사 활동 경험(과거 및 지난 1년), 금전 기부경험,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 및 동호회 성격, 활동 공간, 참여빈도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유형, 편의시설 만족도, 향후 방문 의향
	축제 관람 실태	축제 경험, 축제 주제, 축제의 시설 만족도, 향후 관람 의향
	이슈문항	'문화중산층 결정요인 : 경제력, 시간, 사회적활동과 영향력, 취향, 경험 등 문화소비지출 관련 문항
국민여가 활동조사	여가활동 유형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여가활동 참여 형태	여가활동 유형, 목적, 만족도, 경력, 비용
	평일 및 휴일 (휴가, 연휴) 여가활동	평일 및 휴일 여가활동, 여가시간, 휴가 및 연휴 활용
	여가공간	여가공간 이용
	다양한 여가활동	동호회 활동, 사회성 여가활동,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여가인식 및 만족도	여가인식, 행복수준

2) 문화수요 조사구조 비교 검토

관광과 체육영역까지 넓혀 포괄적인 문화서비스 수요조사는 국민생활체육조사와 국민여행조사가 포함된다.

지역 문화통계와 관련해서 공급영역은 민간과 공급을 포함한 시설, 사업체, 종사자, 상품(프로그램)과 관련된 통계라면, 문화수요는 다양한 문화상품(프로그램)의 수요 현황 및 동향을 살피는 조사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참조하는 통계 영역중 하나다.

문화수요와 관련된 통계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선 표본조사로 표본의 수가 9,000명~10,000명이다. 국민여행조사는 월 조사로 매월 4,200명, 년으로 환산하면 50,400명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국민생활체육조사(10세 이상)를 제외하고 모두 15세

이상을 조사하고 있다.

표본추출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권역구분을 하고, 나머지는 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한 후, 1차 층화를 동과 읍/면지역으로 2차 층화를 아파트와 일반조사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고 있다. 주소지는 시군구까지 조사하고 있지만, 시군구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표본추출은 되고 있지 않다.

〈표 3-30〉 여가활동조사 층화 방법

구분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층 수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 서울(4개권역) • 광역시(6개) • 세종특별자치시	동 지역	아파트, 일반조사구	22
		읍,면 지역	아파트, 일반조사구	10
	• 경기도(3개권역) • 도지역(8개)	동 지역	아파트, 일반조사구	22
		읍,면 지역	아파트, 일반조사구	20

자료: 이용자용 통계정보고고서_국민여가활동조사 2020

한편, 응답자의 특성을 묻는 질문도 조사 간에 다소 차이가 있고, 조사분야는 국민여가활동조사가 가장 포괄적인 영역을 질문하고 있고, 문화예술활동조사, 생활체육조사, 국민여행조사는 해당분야에 특화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31〉 문화분야 수요조사 조사구조 비교

구분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생활체육조사	국민여행조사
조사방법	가구조사	가구조사	가구조사	가구조사
표본수	10,000명	10,000명	9,000명	월 4,2000명 (50,400명)
조사대상	15세 이상 국민	15세 이상 국민	10세 이상 국민	15세 이상 국민
주소지 구분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군구
응답자 특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연령 동거 가구원수 동거자녀 유무 가구주 여부 및 관계 가구주 학력 장애등록여부 경제활동 상태 월 평균소득	교육정도 혼인상태 연령 동거 가구원수 가구주 여부 및 관계 가구주 학력 1주간 경제활동상태 근로시간단축 월평균소득 건강상태	교육정도 혼인상태 자녀현황 가구소득 직업 직업이 없는 경우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현황 가구소득 1주간 경제활동상태 직업 직업이 없는 경우 차량보유여부

구분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생활체육조사	국민여행조사
조사분야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역사문화유적지, 축제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자료: 각 조사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바. 문화산업(문화시장)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시장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통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화시장관련 승인통계는 현재 콘텐츠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광고산업조사, 저작권 통계,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로 파악된다.

〈표 3-32〉 문화산업 통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승인통계	비승인통계 및 자료
문화산업	사업체	콘텐츠	콘텐트산업조사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
		광고	광고산업조사	-
		저작권	저작권통계	-
	고용	일자리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

문화시장과 관련된 통계는 통계에 따라 문화시장 전체를 포괄하거나, 일부 영역의 문화산업만 조사하는 통계로 구분되는데, 가장 포괄적인 통계는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다.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는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구축한 DB(기업등록부자료, 4대보험자료) 및 관세청의 관세무역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통계로 기업의 경영활동, 일자리 현황, 수출입 실적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3〉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문화산업: 출판산업, 음악산업, 영화산업 및 방송산업, 광고산업, 게임산업, 시각그래픽 및 캐릭터 • 예술산업: 문학 및 출판, 공연, 시각예술, 공예 • 스포츠산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 관광산업: 관광숙박업 및 식당업, 여행사 및 관광운수업, 문화오락 및 레저산업, 관광쇼핑업, 국제회의 및 전시업
조사항목	• 경영활동: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 일자리 현황: 일자리 전체현황, 일자리 취득현황, 일자리 상실 현황) • 수출입 실적현황: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실적

자료: 문화셈터,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 메타정보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는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일자리만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통계인데, 구조적으로 문화체육관광산업의 분류와 다소 차이가 있다. 문화체육산업통계 문화산업, 예술산업, 스포츠산업, 관광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문화체육일자리현황조사는 콘텐츠산업, 문화예술산업, 스포츠산업, 관광산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3-34〉 문화체육관광산일자리통계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콘텐츠 산업: 출판산업, 만화산업, 음악산업, 영화산업, 게임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방송산업, 광고산업, 캐릭터산업, 지식정보산업, 콘텐츠솔류션산업, 공연산업 • 문화예술산업: 사진산업, 시각예술산업, 공예산업 • 스포츠산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 관광산업: 관광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사업, 카지노업
조사항목	• 사업체 일반현황, 종사자현황, 신규채용 및 퇴사현황, 종사자 변동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정책이슈항목

자료: 문화셈터, 문화체육관광산업 통계 메타정보

문화영역 중 일부 영역만 선별하여 산출한 대표적인 통계는 콘텐츠산업조사이다. 문화영역모두를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으로 분류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류션,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영역의 산업현황, 사업체, 종사자, 해외 거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표 3-35〉 콘텐츠산업조사 개요

조사대상	제공자료
조사대상	• 표본조사: 출판, 만화,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류션 • 전수조사: 애니메이션, 방송(방송영상독립제작사) • 타기관 조사결과인용: 영화, 방송(방송영상독립제작사 제외)
조사항목	• 사업체 정보, 사업체 현황(매출액, 제작건수 및 비용), 종사자 현황(종사자수), 해외거래 현황(수출입액, 해외진출형태 및 경로 등)

자료: 통계청, 콘텐츠산업조사 설명자료

3. 지역작성 문화통계 내용 분석

가. 지역작성 문화지표 현황

1) 주요 자치단체 문화지표 현황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승인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 문화지표를 구축하여 관련통계를 수집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지속성을 가진 자치단체의 문화지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3-36〉 주요 자치단체 문화지표 현황

조사명	내용
서울문화지표 2019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정책과 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승인 통계를 기본 자료 및 직접 수집한 행정자료와 직접 조사자료를 추가 활용함
부산문화지표 2020	문화예술의 일반적 현황 뿐 아니라 문화체계, 문화창작 및 생산자 등의 문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함
인천문화지표 2020	4년 단위의 주기적인 자료생산을 통해 시계열적 분석을 하여 인천 문화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있음
익산문화지표 2016	중단기별 로드맵과 재정투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조사시 도시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배정하였음

일반적으로 지역문화지표 영역 안에 공급과 수요 영역이 포함되고 있는데, 공급 영역 지표는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집되고 있고, 수요 영역은 시민조사를 통해 통계가 수집된다.

2) 주요 지역의 문화지표 구성

지역에서 작성하고 있는 문화지표는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향유, 문화행정의 큰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시장 영역이 대분류에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문화지표에서는 해양문화와 같이 지역특화 지표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표 3-37〉 주요 지역 문화지표의 조사항목

조사명	영역	세부조사항목
서울 문화지표 (2019)	문화자원	문화재, 공공 문화기반시설, 민간문화기반시설
	문화인력	문화예술인력양성,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및 예술인
	문화시장	문화예술사업체, 문화예술유통플랫폼, 문화예술작품유통, 문화예술 매출
	문화향유	여가와 문화예술,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문화생활 및 문화환경, 문화다양성
	문화정책	문화정책환경, 문화예술예산
부산 문화지표 (2020)	인문사회환경	생활환경, 행정환경, 교육환경, 경제환경
	문화기반	역사문화자원, 문화시설
	문화인력	문화인력 현황, 문화인력 양성
	문화시장	문화예술사업체, 문화예술작품 유통
	문화활동	시민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활동, 문화복지활동
	문화행정	재정지원, 행정지원, 창작지원
	해양문화	문화지원, 문화활동, 네트워크, 제도적 지원
인천 문화지표 (2020)	문화정책	제도, 예산, 인력
	문화자원	문화유산, 기반시설, 민간시설
	문화인력	인력양성, 예술인력, 예술활동, 기반인력, 예술단체
	문화활동	지역축제, 문화공급, 문화산업
	문화향유	여가활동, 관람활동, 참여활동, 만족도
익산 문화지표 (2016)	문화정책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문화자원	지방지정문화재수, 4대종교, 문화기반시설
	문화활동	문화단체, 문화인력, 활동현황, 지역축제
	문화향유	문화복지, 문화향유, 문화향유실태조사

서울문화지표는 2015년 최초 문화지표를 발표하였고, 격년제로 조사 및 발표하고 있으며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향유, 문화정책 영역의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문화지표는 2013년 문화지표를 처음 발표하였고, 2020년 두 번째 문화지표를 조사

발표하였다. 대분류 지표 영역은 인문사회환경, 문화기반,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활동, 문화행정, 해양문화로 가장 세분화된 지표체계로 구성된다. 인천광역시는 2004년 최초로 문화지표를 발표하였고, 4년에 한 번씩 문화지표를 발표해 오고 있다. 대분류 영역은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활동, 문화향유로 구성되어 있다.

익산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문화지표를 발간하는 자치단체다. 2012년 최초 문화지표를 개발 발표하였으며, 2016년 두 번째 문화지표를 발표하였다.

나. 지역생산 문화향유 조사

1) 주요 자치단체 문화향유 조사 현황

반복적으로 최근까지 문화수요를 조사하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지역 등이 있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자체 문화향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인천시는 문화지표 조사에 포함하여 문화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2021년 처음으로 문화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3-38〉 지역생산 문화향유 조사 개요

조사명	내용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시민의 문화활동수준과 동향을 파악해 문화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는 조사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부산시민들의 여가생활 문화예술활동 전반에 특화된 설문조사로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2021년 최초로 실시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인천시 문화지표중 수요영역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

2) 자치단체 문화향유 조사항목 비교

조사하는 문항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가, 문화예술, 문화수요 등은 공통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문화여가생활의 변화, 매체를 이용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자세한 조사항목은 다음의 〈표 3-39〉와 같다.

〈표 3-39〉 주요 지역의 문화수요조사 조사항목 비교

조사명	조사항목	세부항목
서울시민 문화 향유 실태조사 (2020)	문화/여가활동 실태	하루 평균 여가시간, 여가시간의 충분성, 주로 하는 여가활동, 여가활동 동반자,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평소 문화예술 관심도
	문화예술 관람 경험 및 만족도	오프라인 문화예술관람 형태(총 횟수/본인 지불 이용 횟수/연간 총 비용/과거 이용 시기/향후 관람 의향), 문화 프로그램 관람 의향, 문화예술관람 동반자, 문화예술행사 주 관람 지역, 문화예술관람 만족도, 문화예술관람 불만족 이유
	문화예술 참여 경험	문화예술 참여 경험(참여 경험/참여 형태/참여 빈도), 문화예술 교육 기간, 최근 문화예술 교육 경험, 문화예술 교육 경로, 문화예술 참여 활동 만족도, 문화예술 참여 활동 불만족 이유
	코로나와 문화예술 활동	코로나로 인한 문화예술 활동 변화, 매체를 통한 문화 활동 경험, 전년 대비 증가한 여가활동, 코로나 이후 문화 활동 변화로 인한 정서적 경험, 온라인 대체 문화관람 활동(경험/만족도), 온라인 대체 문화관람 평가, 오프라인/온라인 관람의 전반적 차이, 온라인 대체 문화관람 이용 매체, 온라인 대체 문화관람 비용 지급, 온라인 대체 문화관람 비용 지급 횟수 및 총비용, 온라인 문화관람 희망 제공 매체, 온라인 대체 문화관람 활동 참여 의향, 전반적 온라인 대체 문화관람 활동 참여 의향, 온라인 대체 관람 활동의 단점, 온라인 대체 관람 활동의 장점
	문화예술활동 경험과 인식	문화예술 활동 동기 및 전이, 문화 활동으로 인한 정서적 경험, 문화예술 활동 전반적 만족도, 문화예술 중요도, 삶의 만족도(행복 정도)
	문화환경 만족도	코로나 발생 이후 문화시설 이용 경험, 코로나 발생 이후 문화시설 경험 평가, 방역 지침 준수 시 문화시설 이용 의향, 방역 지침 준수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문화시설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조사 (2021)	여가실태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성, 여가활동, 여가생활 만족도,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 스마트기기 활용 여가활동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환경진단	문화예술활동 성향, 부산지역 문화환경 평가, 코로나 19이후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관람 (오프라인)	생애기준 문화예술관람 경험률, 문화예술관람 최초시기, 연간 문화예술관람 경험률, 연간 문화예술관람 빈도, 문화예술 관람의향, 문화예술 관람 동반자, 문화예술 관람 정보 취득 경로, 오프라인 문화예술관람 결정 기준, 오프라인 문화예술 관람시 어려움, 문화예술관람 만족도
	문화예술관람 (매체활용)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관람 경험률,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 관람 빈도,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관람 만족도,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관람 플랫폼,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관람 의향,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관람 정보 취득 경로,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관람 이유,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 관람시 어려움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경험, 문화예술활동형태, 문화예술활동 빈도,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의향, 문화예술활동 참여목적, 문화예수활동 정보 취득 경로, 문화예술활동 참여 동반자, 문화예술활동 참여 결정 기준, 문화예술활동 참여시 어려움
	문화예술공간이용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률, 문화예술공간 이용 만족도, 문화예술공간 이용시 어려움, 확충되기를 바라는 문화예술공간

조사명	조사항목	세부항목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2020)	여가활동	여가활동 경험, 주요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공간
	문화예술활동 경험	문화예술활동경험, 문화예술활동 이유/계기,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문화예술 활동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역 비중, 인천 외 지역 문화예술 활동 이유
	문화예술활동과 코로나 바이러스	온라인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온라인 문화예술행사 비참여 이유, 온라인 문화예술행사 전반적 만족도, 온라인 문화예술행사 만족/불만족 이유, 향후 온라인 문화예술행사 참여 의향, 온라인 문화예술행사 참여/비참여 의향 이유, 미디어 문화향유 활동 경험, 미디어 문화향유시 사용하는 매체, 미디어 문화향유 활동 전반적 만족도, 미디어 문화향유 활동 이유, 미디어 문화향유 활동 변화
	문화예술 활동 지출 및 장애물	월평균 문화행사/활동 참여 지출, 문화행사/활동 참여 유/무료 비중, 문화예술 활동 지출금액 변화, 비용부담으로 문화예술 활동 포기한 경험, 비용 외 이유로 문화예술 활동을 포기한 경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개선 사상
	문화예술활동수요	향유 문화예술 활동 의향
	문화예술교육/ 창작 수요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 이유,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 애로사항, 선호하는 문화예술 교육방식, 선호하는 문화예술 교육분야, 인천 지역 문화예술 교육 우선사항,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 경험, 동호회 활동 애로사항, 동호회 활동 시 필요한 사항, 교육 및 동호회 활동 관련 관심 분야
	문화환경 평가 및 문화도시 인식	문화역량 만족도,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환경 만족도, 인천시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도시에 대한 이미지, 인천시 문화도시 근접 정도
	삶의 질 평가	관심/의향 대비 문화예술 관련 활동 정도, 문화활동 기회 제공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삶의 영역 만족도, 행복정도

3) 자치단체 문화향유조사 조사구조 비교

조사내용뿐 아니라 조사구조도 3개 지역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본수는 각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서울시(2,500명)가 가장 많고, 부산(2,000명), 인천(1,000명) 순이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일빈 시민 외에도 문화관심 집단에 대한 조사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 '20년 여가활동조사에서 각 도시의 표본수는 서울시 1,931명, 부산시 681명, 인천시 556명에 비해 약 74% 더 많이 조사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부산시는 15세 이상 시민이고, 인천은 20세 이상 시민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주기는 서울시가 2년이고, 부산시와 인천시는 다소 비정기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응답자 특성 조사 문항도 3개 지역이 유사하긴 하나 다소간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유사하긴 하나, 동일하게 비교하기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표 3-40〉 지역 문화수요조사 조사구조 비교

구분	서울시민 문화활동조사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조사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표본수	일반 시민 2,500명	일반 시민 2,000명	1,000명
조사대상	서울시 온라인 패널 (15세 이상 시민)	15세 이상 시민	만 20세 이상 시민
조사주기	2년	-	-
응답자 특성	거주기간 학력 직업 가구특성 혼인상태 동거자녀유무 소득	거주기간 학력 직업 월평균가구소득 결혼상태 가구구성 18세 미만 자녀 장애인등록여부	교육정도 혼인상태 자녀현황 가구소득 직업 직업이 없는 경우
'20년 여가활동조사 할당 표본수	1,931명	681명	556명

* 자료: 각 조사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제3절 시사점

승인통계 중심으로 지역 문화통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거시적으로 전체 국가통계 내에서 문화통계의 현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단위 통계가 경제, 복지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에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문화와 관련해서 지역단위 문화통계 미흡한 수준이라기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승인통계는 주로 경제와 관련된 사업체 조사, 인구조사, 그리고 일부 복지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작성하는 승인통계 중 사회조사와 기본통계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고 있었다. 기본통계에서는 주로 문화시설이 수집되고 있는데, 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포괄하지 못하고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현황 등 일부 시설의 정보만을 생산하고 있었다. 사회조사에서는 문화수요와 관련된 11개 항목이 조사되고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조사되고 있어 문화예술분야의 자세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미시적으로 문화분야 승인통계를 살펴본 결과, 첫째, 문화예술분야만 국한하면 13개의 승인통계가 생산되고 있는데 공급분야에서 공연예술조사, 행정부문에서 지역문화현황통계만이 지역단위 통계가 생산되고 있었다. 수요분야에서는 지역단위까지 볼 수 있는 조사는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표 3-41〉 수요·공급 관련 승인 문화통계의 공표범위 현황

구분	전국	지역단위
공급	8종	1종
수요	6종	-

전국을 대상으로 생산되고 있는 문화공급 및 수요와 관련해서도 민간시장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분야는 중앙에서 승인통계 외에도 비승인통계와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통계가 생산되고 있고, 문화예술생태계의 핵심적 영역인 문화시설과 인력통계가 대표적이다. 시설과 인력의 경우 대부분 전수로 조사되고 있고, 이는 시군구까지 공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통계 중 문화기반시설총람은 전국의 문화시설을 전수로 조사하고 있고, 시군구 단위의 문화시설을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의 지표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사, 예술인 등도 중앙의 시스템을 통해 전수가 관리되고 있다. 다만, 수요와 관련된 통계는 비승인 통계 중에서도 시군구 단위까지 볼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문화통계는 주로 광역시를 중심, 비승인 통계로 나타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지표를 구성하여 지표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표의 구성과 조사내용이 광역자치단체별로 **다소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징적으로 지역에서는 **문화시장(민간)**의 지표와 인문사회환경 지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가장 포괄적인 중앙 문화지표인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공공시장만 다루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었다.

〈표 3-42〉 광역자치단체 문화지표 비교

구분	중앙	지역		
	지역문화실태조사	서울문화지표	부산문화지표	인천문화지표
문화정책	●	●		
문화자원	●	●	●	●
문화인력	●	●	●	●
문화참여(수요)		●		
문화시장		●	●	●
인문사회환경			●	●

문화수요와 관련해서 비승인통계를 포함해도 지역단위까지 볼 수 있는 조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서울, 부산,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문화수요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에서 진행하는 조사의 표본 수로는 해당 자치단체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 1,931명

→2,500명, 부산 681명→2,000명, 인천 556명→1,000명으로 표본수를 늘려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내용이 자치단체별로 다소 상이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 이용은 공통적이었지만, 문화예술활동 및 여가활동 구분 다소 차이가 나타났고, 중앙에서는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었는데, 지역에서는 둘을 한 번에 조사하고 있었다.

〈표 3-43〉 중앙과 지역의 문화수요 부분 조사내용 비교

구분	중앙	지역		
	문화향수 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문화활동조사	부산시민 문화조사	인천시민 문화 수요조사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	●	●	●
문화관련 활동	●	●	●	●
문화예술교육	●	●	●	●
문화시설이용	●	●	●	●
역사문화유적지	●			●
축제 관람실태	●		●	●
여가활동 참여 실태	●	●	●	●
여가생활	●	●	●	
문화의식과 문화정책		●	●	●
주거 만족도				●

요컨대, 전반적으로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참여(수요) 영역은 국가, 자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조사하고 있었지만, 문화수요는 시군구단위까지 볼 수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조사내용에서도 표준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문화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시장은 크게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으로 구분되며, 공공과 민간의 엄격한 의미에서 분리되지만, 공공지표와 민간지표가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재되고 있었다.

제4장

설문조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조사의 목적은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문화통계의 현황 및 문화통계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지역별 문화통계의 생산 및 관리 현황,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 등으로 구성하였다.

나. 조사 설계

조사 대상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228개 자치단체(행정시 포함)의 문화통계 담당자, 17개 광역시도 광역문화재단, 전국 116개 기초문화재단 문화통계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문화통계 담당자는 2020년 지역실태조사 입력 담당자, 광역문화재단은 재단별로 구성된 광역문화재단연합의 지역문화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혹은 광역문화재단연합회 운영위원,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정책 주무부서 담당자에게 설문을 발송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8월 1일~2022년 8월 17일까지였고, 조사 설계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는 조사대행기관에서 수행하였다.

〈표 4-1〉 조사 설계 내용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전국 17시 광역시도, 228 자치단체 지역문화실태조사 입력 담당 공무원 • 전국 17개 광역문화재단, 전국 116개 기초문화재단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 2022년 08월 1일 ~ 08월 17일
조사 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대행기관(코그니티브컨설팅)

2. 조사 항목

조사항목은 크게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 지역단위 문화통계 정책 수요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문화통계의 생산·관리현황에서는 문화통계의 생산·관리 여부, 문화통계의 생산·관리 현황,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지속성 및 근거,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목적,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중요성 인식, 문화통계지표 보유 여부, 문화통계 생산·관리 전담관리 인력 지정 여부,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애로점 등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지역단위 문화통계 정책수요 영역에서는 현재 주로 활용하는 문화통계,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필요성,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중요도, 시급성, 활용성,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생산관리 주체,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거버넌스 수요, 지역단위 문화통계 전담조직의 필요성,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표 4-2〉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 항목

구분	주요 조사내용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	• 문화통계 생산·관리 여부 • 문화통계 생산·관리현황 •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지속성 및 근거 •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목적 •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중요성 인식 • 문화통계지표 보유 여부 • 문화통계 생산·관리 전담관리 인력 •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애로점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	• 주로 활용하는 문화통계 •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필요성 •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중요도, 시급성, 활용성 •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생산관리 주체 •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거버넌스 • 지역단위 문화통계 전담조직의 필요성 •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기대효과

제2절 조사결과

1. 응답기관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기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181개 기관이 응답했으며,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127곳, 광역문화재단 16곳, 기초문화재단 30곳이 응답하였다. 소재지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72곳, 중소도시 71곳, 읍면지역 이하가 38곳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52곳, 충청권 30곳, 경상권 51곳, 전라권 29곳, 강원/제주권이 19곳이었다.

〈표 4-3〉 응답기관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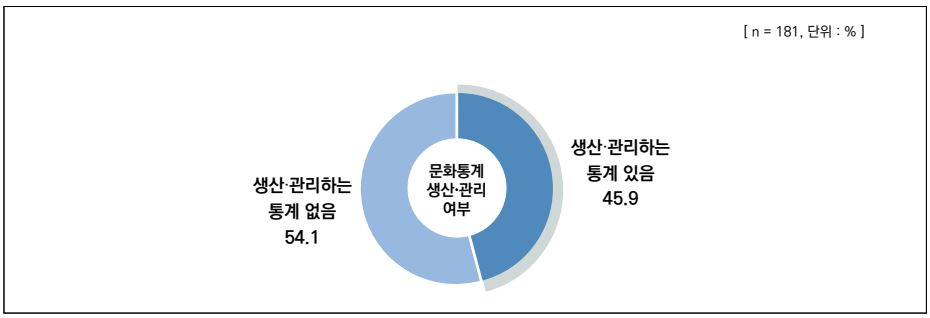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비중
전체		181	100.0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8	4.4
	기초자치단체	127	70.2
	광역문화재단	16	8.8
	기초문화재단	30	16.6
소재지규모	대도시	72	39.8
	중소도시	71	39.2
	읍면지역 이하	38	21.0
소재지	수도권	52	28.7
	충청권	30	16.6
	경상권	51	28.2
	전라권	29	16.0
	강원/제주권	19	10.5

2.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

가. 문화통계 생산·관리 여부

가장 먼저 문화통계 생산·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생산·관리하는 통계 있음'이 45.9%, '생산·관리하는 통계 없음'이 54.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4-1] 문화통계 생산·관리 여부



〈표 4-4〉 문화통계 생산·관리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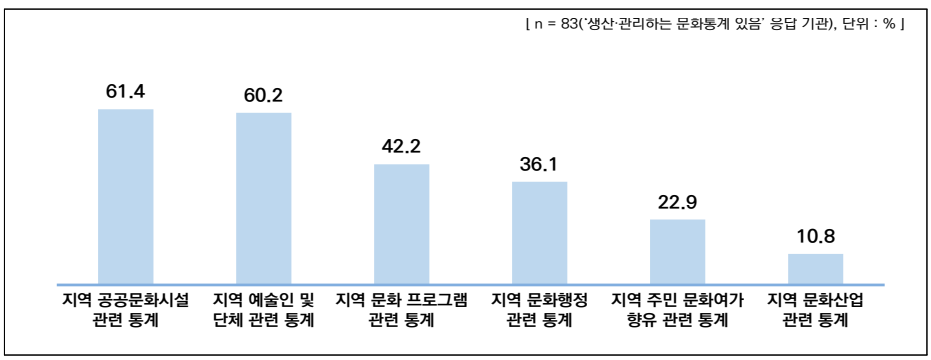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생산·관리하는 통계 있음	생산·관리하는 통계 없음
전체		181	45.9	54.1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8	62.5	37.5
	기초자치단체	127	38.6	61.4
	광역문화재단	16	81.3	18.8
	기초지역문화재단	30	53.3	46.7
소재지규모	대도시	72	50.0	50.0
	중소도시	71	46.5	53.5
	읍면지역 이하	38	36.8	63.2
소재지	수도권	52	42.3	57.7
	충청권	30	56.7	43.3
	경상권	51	43.1	56.9
	전라권	29	44.8	55.2
	강원/제주권	19	47.4	52.6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소속 기관별로는 광역자치단체 및 재단은 상대적으로 생산 및 관리하는 통계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초자치단체의 통계 생산관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 규모별로는 대도시의 생산관리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소재지별로는 충청권의 생산관리 비율이 높았다.

나.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관리하는 통계를 살펴보면,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가 61.4%로 가장 많았고,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60.2%)', '지역 문화 프로그램 관련 통계(42.2%)',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36.1%)' 순으로 생산관리 비율이 높았다.

[그림 4-2]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복수응답)



기관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공공문화시설, 지역 예술인 및 단체, 지역문화산업과 관련된 통계를 관리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공문화시설과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광역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 및 단체, 지역 문화프로그램과 관련된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기초문화재단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관의 특성과 상관없이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향유와 지역의 문화행정과 관련된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비율은 낮게 나고 있었다.

소재지 규모별로는 대도시는 문화통계영역 전반과 관련해서 생산관리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와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지역 예술인 및 단체와 관련된 통계 생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5〉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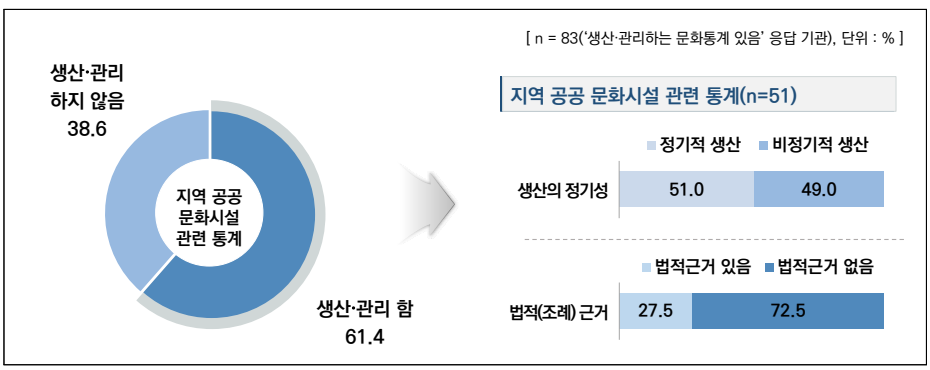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사례수	공공 문화시설	지역 예술인 및 단체	지역 문화 프로그램	지역 문화 행정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지역 문화산업
전체		83	61.4	60.2	42.2	36.1	22.9	10.8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80.0	80.0	60.0	60.0	40.0	80.0
	기초자치단체	49	69.4	51.0	34.7	34.7	12.2	4.1
	광역문화재단	13	38.5	76.9	53.8	30.8	46.2	7.7
	기초문화재단	16	50.0	68.8	50.0	37.5	31.3	12.5
소재지 규모	대도시	36	66.7	47.2	41.7	33.3	33.3	13.9
	중소도시	33	60.6	66.7	39.4	39.4	15.2	3.0
	읍면지역 이하	14	50.0	78.6	50.0	35.7	14.3	21.4
소재지	수도권	22	59.1	45.5	40.9	40.9	36.4	9.1
	충청권	17	76.5	47.1	58.8	29.4	17.6	5.9
	경상권	22	68.2	63.6	45.5	36.4	22.7	22.7
	전라권	13	38.5	69.2	30.8	53.8	0.0	7.7
	강원/제주권	9	55.6	100.0	22.2	11.1	33.3	0.0

다. 문화통계별 생산의 정기성, 법적 근거

1)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

[그림 4-3]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 정기성과 법적 근거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 중에 '정기적 생산'이 51.0%, '비정기적 생산'이 49.0%로 나타났고, '법적 근거 있음'이 27.5%, '법적 근거 없음'이 7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의 정기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문화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재지 규모별로는 대도시,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의 정기적 생산관리 비율이 높았다.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대도시, 수도권에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 4-6〉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의 정기성과 법적 근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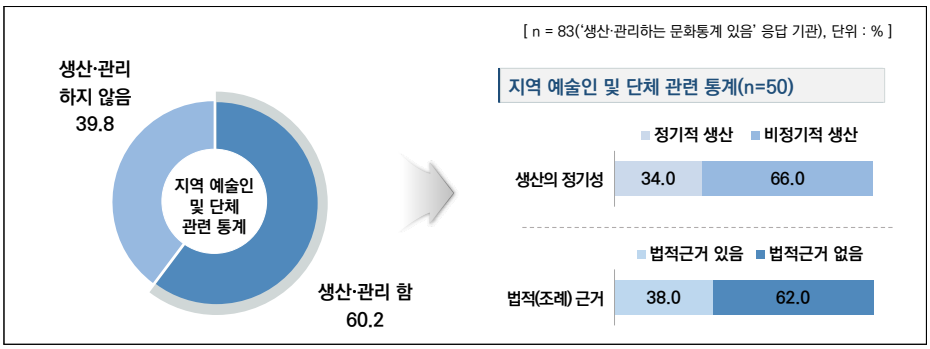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생산·관리 하지 않음	생산·관리 하고 있음	사례수	생산의 정기성		법적(조례) 근거	
						정기적	비정기적	있음	없음
전체		83	38.6	61.4	51	51.0	49.0	27.5	72.5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20.0	80.0	4	50.0	50.0	50.0	50.0
	기초자치단체	49	30.6	69.4	34	47.1	52.9	29.4	70.6
	광역문화재단	13	61.5	38.5	5	60.0	40.0	20.0	80.0
	기초문화재단	16	50.0	50.0	8	62.5	37.5	12.5	87.5
소재지규모	대도시	36	33.3	66.7	24	62.5	37.5	33.3	66.7
	중소도시	33	39.4	60.6	20	45.0	55.0	25.0	75.0
	읍면지역 이하	14	50.0	50.0	7	28.6	71.4	14.3	85.7
소재지	수도권	22	40.9	59.1	13	61.5	38.5	46.2	53.8
	충청권	17	23.5	76.5	13	53.8	46.2	30.8	69.2
	경상권	22	31.8	68.2	15	46.7	53.3	13.3	86.7
	전라권	13	61.5	38.5	5	40.0	60.0	0.0	100.0
	강원/제주권	9	44.4	55.6	5	40.0	60.0	40.0	60.0

2)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은 중 '정기적 생산'이 34.0%, '비정기적 생산'이 66.0%로 나타났고, '법적 근거 있음'이 38.0%, '법적 근거 없음'이 6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의 정기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중소도시, 소재지가 충청권인 기관에서 '정기적 생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적 근거는 광역문화재단, 소재지 규모가 대도시, 소재지가 충청권인 기관에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4-4]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정기성과 법적근거



〈표 4-7〉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의 정기성과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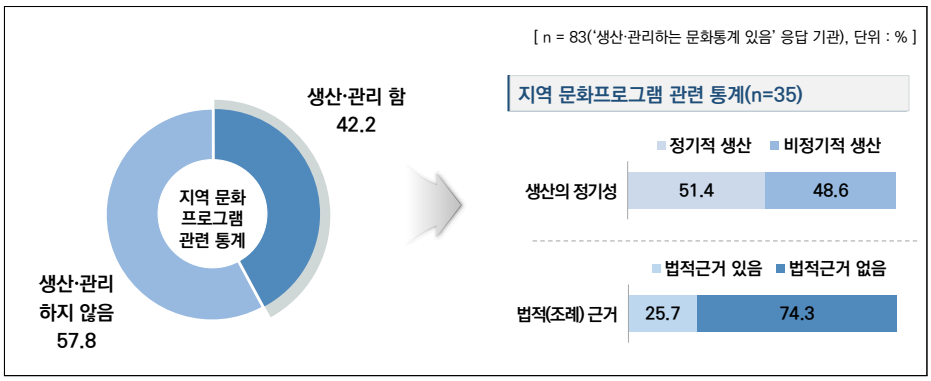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생산·관리 하지 않음	생산·관리 하고 있음	사례수	생산의 정기성		법적(조례) 근거	
						정기적	비 정기적	있음	없음
전체		83	39.8	60.2	50	34.0	66.0	38.0	62.0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20.0	80.0	4	50.0	50.0	50.0	50.0
	기초자치단체	49	49.0	51.0	25	24.0	76.0	28.0	72.0
	광역문화재단	13	23.1	76.9	10	50.0	50.0	70.0	30.0
	기초지역문화재단	16	31.3	68.8	11	36.4	63.6	27.3	72.7
소재지규모	대도시	36	52.8	47.2	17	35.3	64.7	47.1	52.9
	중소도시	33	33.3	66.7	22	36.4	63.6	31.8	68.2
	읍면지역 이하	14	21.4	78.6	11	27.3	72.7	36.4	63.6
소재지	수도권	22	54.5	45.5	10	20.0	80.0	40.0	60.0
	충청권	17	52.9	47.1	8	62.5	37.5	62.5	37.5
	경상권	22	36.4	63.6	14	35.7	64.3	28.6	71.4
	전라권	13	30.8	69.2	9	22.2	77.8	22.2	77.8
	강원/제주권	9	0.0	100.0	9	33.3	66.7	44.4	55.6

3)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 중 '정기적 생산'을 하고 있는 기관은 51.4%, '비정기적 생산'을 하는 기관은 48.6%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있음'이 25.7%, '법적 근거 없음'이 74.3%로 나타나 법적근거가 없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림 4-5]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의 정기성과 법적근거



〈표 4-8〉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의 정기성과 법적근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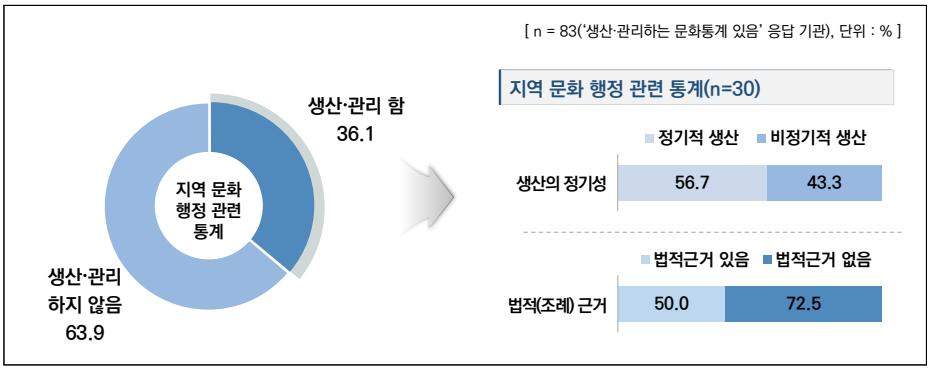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생산·관리 하지 않음	생산·관리 하고 있음	사례수	생산의 정기성		법적(조례) 근거	
						정기적	비 정기적	있음	없음
전체		83	57.8	42.2	35	51.4	48.6	25.7	74.3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40.0	60.0	3	66.7	33.3	66.7	33.3
	기초자치단체	49	65.3	34.7	17	41.2	58.8	23.5	76.5
	광역문화재단	13	46.2	53.8	7	57.1	42.9	28.6	71.4
	기초문화재단	16	50.0	50.0	8	62.5	37.5	12.5	87.5
소재지규모	대도시	36	58.3	41.7	15	53.3	46.7	33.3	66.7
	중소도시	33	60.6	39.4	13	46.2	53.8	23.1	76.9
	읍면지역 이하	14	50.0	50.0	7	57.1	42.9	14.3	85.7
소재지	수도권	22	59.1	40.9	9	55.6	44.4	44.4	55.6
	충청권	17	41.2	58.8	10	50.0	50.0	30.0	70.0
	경상권	22	54.5	45.5	10	50.0	50.0	20.0	80.0
	전라권	13	69.2	30.8	4	50.0	50.0	0.0	100.0
	강원/제주권	9	77.8	22.2	2	50.0	50.0	0.0	100.0

생산의 정기성은 광역자치단체, 중소도시,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이 높았으며, 법적 근거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소속기관이 광역자치단체, 소재지 규모가 대도시, 소재지가 수도권인 기관에서 '법적 근거 있음'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4)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은 36.1%이었으며, 이들 중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비율이 56.7%, '비정기적 생산'이 43.3%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는 '법적 근거 있음'이 50.0%, '법적 근거 없음'이 72.5% 수준이었다.

[그림 4-6]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의 정기성과 법적근거



〈표 4-9〉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의 정기성 및 법적근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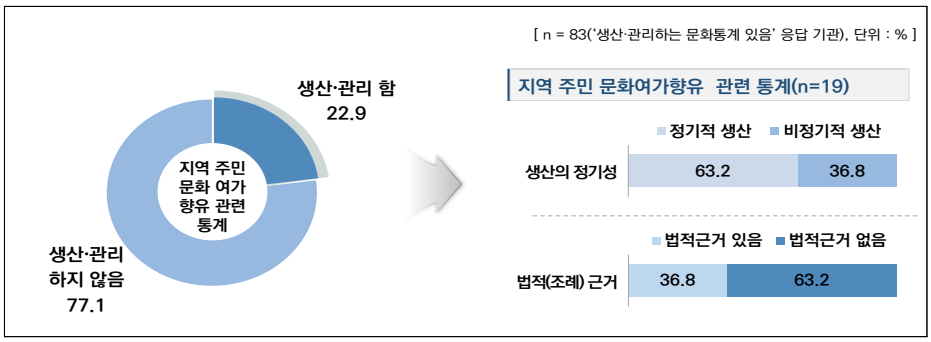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생산·관리 하지 않음	생산·관리 하고 있음	사례수	생산의 정기성		법적(조례) 근거	
						정기적	비 정기적	있음	없음
전체		83	63.9	36.1	30	56.7	43.3	50.0	50.0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40.0	60.0	3	66.7	33.3	66.7	33.3
	기초자치단체	49	65.3	34.7	17	47.1	52.9	47.1	52.9
	광역문화재단	13	69.2	30.8	4	75.0	25.0	75.0	25.0
	기초문화재단	16	62.5	37.5	6	66.7	33.3	33.3	66.7
소재지 규모	대도시	36	66.7	33.3	12	41.7	58.3	41.7	58.3
	중소도시	33	60.6	39.4	13	61.5	38.5	61.5	38.5
	읍면지역 이하	14	64.3	35.7	5	80.0	20.0	40.0	60.0
소재지	수도권	22	59.1	40.9	9	55.6	44.4	55.6	44.4
	충청권	17	70.6	29.4	5	60.0	40.0	80.0	20.0
	경상권	22	63.6	36.4	8	50.0	50.0	50.0	50.0
	전라권	13	46.2	53.8	7	57.1	42.9	14.3	85.7
	강원/제주권	9	88.9	11.1	1	100.0	0.0	100.0	0.0

생산의 정기성은 광역문화재단, 읍면지역 이하, 강원/제주권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법적 근거는 광역문화재단, 중소도시, 강원/제주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5)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은 22.9%이었고, 생산하는 기관 중 '정기적 생산'이 63.2, '비정기적 생산'이 36.8%로 나타났다.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있음'이 36.8%, '법적 근거 없음'이 63.2%이었다.

[그림 4-7]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의 정기성 및 법적근거



〈표 4-10〉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의 정기성 및 법적근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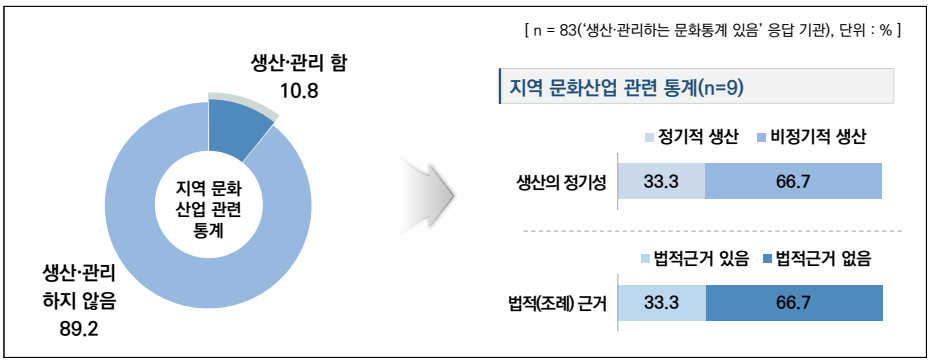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생산·관리 하지 않음	생산·관리 하고 있음	사례수	생산의 정기성		법적(조례) 근거	
						정기적	비 정기적	있음	없음
전체		83	77.1	22.9	19	63.2	36.8	36.8	63.2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60.0	40.0	2	100.0	0.0	100.0	0.0
	기초자치단체	49	87.8	12.2	6	50.0	50.0	50.0	50.0
	광역문화재단	13	53.8	46.2	6	83.3	16.7	33.3	66.7
	기초문화재단	16	68.8	31.3	5	40.0	60.0	0.0	100.0
소재지 규모	대도시	36	66.7	33.3	12	66.7	33.3	25.0	75.0
	중소도시	33	84.8	15.2	5	60.0	40.0	60.0	40.0
	읍면지역 이하	14	85.7	14.3	2	50.0	50.0	50.0	50.0
소재지	수도권	22	63.6	36.4	8	50.0	50.0	37.5	62.5
	충청권	17	82.4	17.6	3	66.7	33.3	66.7	33.3
	경상권	22	77.3	22.7	5	100.0	0.0	40.0	60.0
	전라권	13	100.0	0.0	0	-	-	-	-
	강원/제주권	9	66.7	33.3	3	33.3	66.7	0.0	100.0

지역문화여가관련 통계의 생산관리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생산관리는 정기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다.

6) 지역 문화산업 관련 통계

지역 문화산업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비율은 가장 낮은 10.8%이었고, 이중 '정기적 생산'이 33.3%, '비정기적 생산'이 66.7%이었다. 법적근거도 동일하게 '법적 근거 있음'이 33.3%, '법적 근거 없음'이 66.7%이었다.

[그림 4-8] 지역 문화산업 관련 통계의 정기성 및 법적근거



〈표 4-11〉 지역 문화산업 관련 통계의 정기성 및 법적근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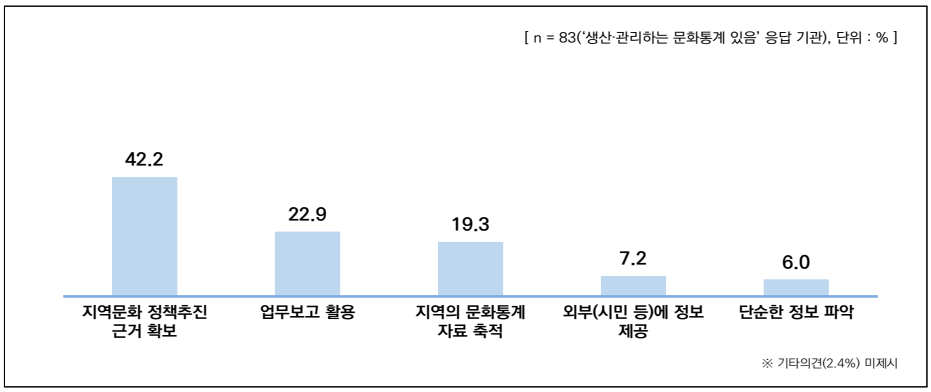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생산·관리 하지 않음	생산·관리 하고 있음	사례수	생산의 정기성		법적(조례) 근거	
						정기적	비정기적	있음	없음
전체		83	89.2	10.8	9	33.3	66.7	33.3	66.7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20.0	80.0	4	75.0	25.0	75.0	25.0
	기초자치단체	49	95.9	4.1	2	0.0	100.0	0.0	100.0
	광역문화재단	13	92.3	7.7	1	0.0	100.0	0.0	100.0
	기초문화재단	16	87.5	12.5	2	0.0	100.0	0.0	100.0
소재지규모	대도시	36	86.1	13.9	5	60.0	40.0	60.0	40.0
	중소도시	33	97.0	3.0	1	0.0	100.0	0.0	100.0
	읍면지역 이하	14	78.6	21.4	3	0.0	100.0	0.0	100.0
소재지	수도권	22	90.9	9.1	2	50.0	50.0	50.0	50.0
	충청권	17	94.1	5.9	1	0.0	100.0	0.0	100.0
	경상권	22	77.3	22.7	5	20.0	80.0	20.0	80.0
	전라권	13	92.3	7.7	1	100.0	0.0	100.0	0.0
	강원/제주권	9	100.0	0.0	0	-	-	-	-

지역 문화산업과 관련된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은 많지 않았지만, 광역, 대도시권의 기관들은 일부 관심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었다.

라. 문화통계 생산·관리 주요 목적

지역에서 문화통계 생산·관리 주요 목적은 '지역문화 정책 추진 근거 확보'가 42.2%로 가장 높고, '업무보고 활용(22.9%)', '지역의 문화통계 자료 축적(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문화통계 생산·관리 주요 목적



기관별로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목적이 차이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근거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기초자치단체는 업무보고 활용의 목적이 높게 나타났다. 광역문화재단은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정책추진의 근거확보 목적이 높았으며, 기초문화재단은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지역문화정책추진의 근거확보 목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광역문화재단의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목적은 다르지 않았지만, 기초수준에서는 자치단체와 재단의 통계생산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다만, 기초문화재단의 표본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규모별로도 통계생산의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는 정책추진의 근거확보 목적이 다른 목적에 비해 월등히 높았지만, 중소도시는 통계자료의 축적 목적도 비교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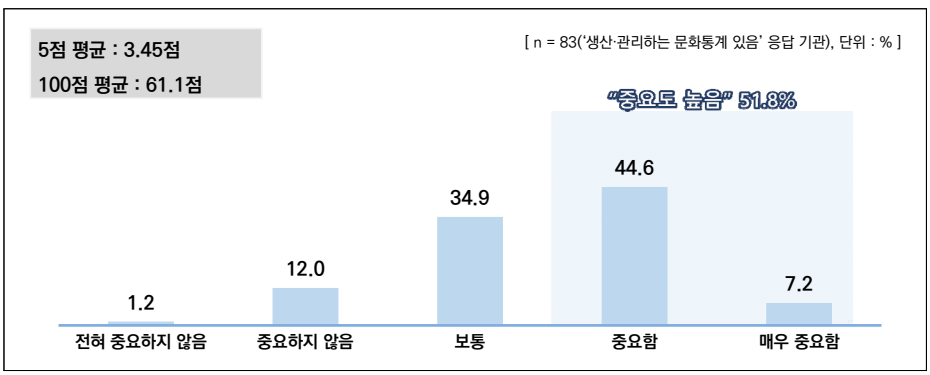
〈표 4-12〉 문화통계 생산·관리 주요 목적

(단위: %)

구 분		사례수	지역문화 정책추진 근거 확보	업무보고 활용	지역의 문화 통계 자료 축적	외부(시민 등)에 정보 제공	단순한 정보 파악	기타
전체		83	42.2	22.9	19.3	7.2	6.0	2.4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60.0	20.0	0.0	0.0	20.0	0.0
	기초자치단체	49	28.6	30.6	20.4	12.2	8.2	0.0
	광역문화재단	13	76.9	0.0	15.4	0.0	0.0	7.7
	기초문화재단	16	50.0	18.8	25.0	0.0	0.0	6.3
소재지규모	대도시	36	41.7	27.8	13.9	8.3	2.8	5.6
	중소도시	33	33.3	21.2	27.3	9.1	9.1	0.0
	읍면지역 이하	14	64.3	14.3	14.3	0.0	7.1	0.0
소재지	수도권	22	45.5	31.8	13.6	4.5	0.0	4.5
	충청권	17	35.3	11.8	23.5	17.6	5.9	5.9
	경상권	22	40.9	27.3	18.2	4.5	9.1	0.0
	전라권	13	38.5	23.1	15.4	7.7	15.4	0.0
	강원/제주권	9	55.6	11.1	33.3	0.0	0.0	0.0

마. 문화통계 관련 업무 중요도 인식

[그림 4-10] 문화통계 관련 업무 중요도 인식



문화통계 관련 업무의 중요도 인식에 대해 '중요함(중요함+매우 중요함)' 응답을 한 기관은 51.8%이며, '중요하지 않음(중요하지 않음+전혀 중요하지 않음)' 응답은 13.2%로 나타났다.

문화통계 관련 업무 중요도 인식은 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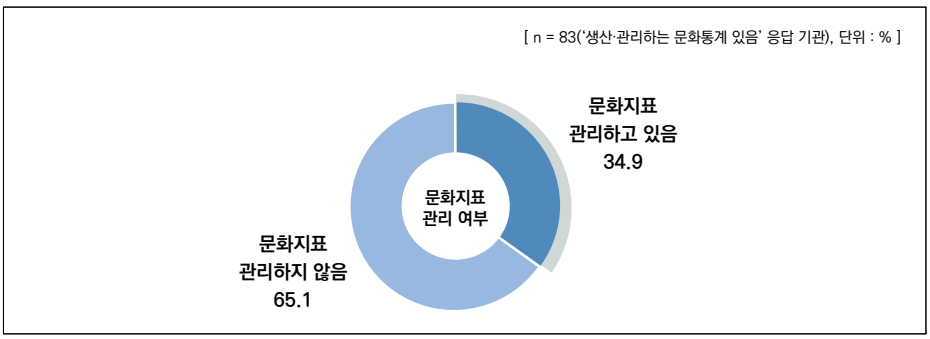
〈표 4-13〉 문화통계 관련 업무 중요도 인식

(단위: %, 점(100점 만점))

구 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83	1.2	12.0	34.9	44.6	7.2	3.45	61.1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0.0	20.0	0.0	60.0	20.0	3.80	70.0
	기초자치단체	49	2.0	16.3	32.7	49.0	0.0	3.29	57.1
	광역문화재단	13	0.0	7.7	30.8	38.5	23.1	3.77	69.2
	기초문화재단	16	0.0	0.0	56.3	31.3	12.5	3.56	64.1
소재지 규모	대도시	36	2.8	13.9	36.1	41.7	5.6	3.33	58.3
	중소도시	33	0.0	15.2	39.4	42.4	3.0	3.33	58.3
	읍면지역 이하	14	0.0	0.0	21.4	57.1	21.4	4.00	75.0
소재지	수도권	22	4.5	9.1	36.4	50.0	0.0	3.32	58.0
	충청권	17	0.0	23.5	29.4	41.2	5.9	3.29	57.4
	경상권	22	0.0	9.1	31.8	50.0	9.1	3.59	64.8
	전라권	13	0.0	15.4	38.5	30.8	15.4	3.46	61.5
	강원/제주권	9	0.0	0.0	44.4	44.4	11.1	3.67	66.7

바. 문화통계 지표 관리

[그림 4-11] 문화지표 관리 현황



지역 문화관련 정보 및 통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문화지표 관리 여부는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34.9%,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65.1%는 문화지표를 따로 관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지표도 광역 수준에서 관리되는 비율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4-14〉 문화지표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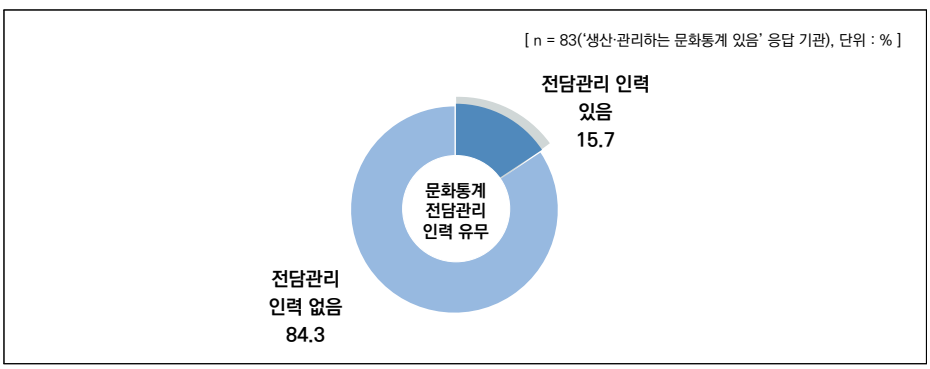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사례수	문화지표 관리하고 있음	문화지표 관리하지 않음
전체		83	34.9	65.1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40.0	60.0
	기초자치단체	49	34.7	65.3
	광역문화재단	13	38.5	61.5
	기초문화재단	16	31.3	68.8
소재지규모	대도시	36	38.9	61.1
	중소도시	33	33.3	66.7
	읍면지역 이하	14	28.6	71.4
소재지	수도권	22	45.5	54.5
	충청권	17	23.5	76.5
	경상권	22	31.8	68.2
	전라권	13	38.5	61.5
	강원/제주권	9	33.3	66.7

사. 문화통계 전담인력

문화통계 전담인력이 있는 기관은 15.7%, 전담관리 인력이 없는 기관이 84.3%로 나타났다.

[그림 4-12] 문화통계 전담관리 인력



〈표 4-15〉 문화통계 전담관리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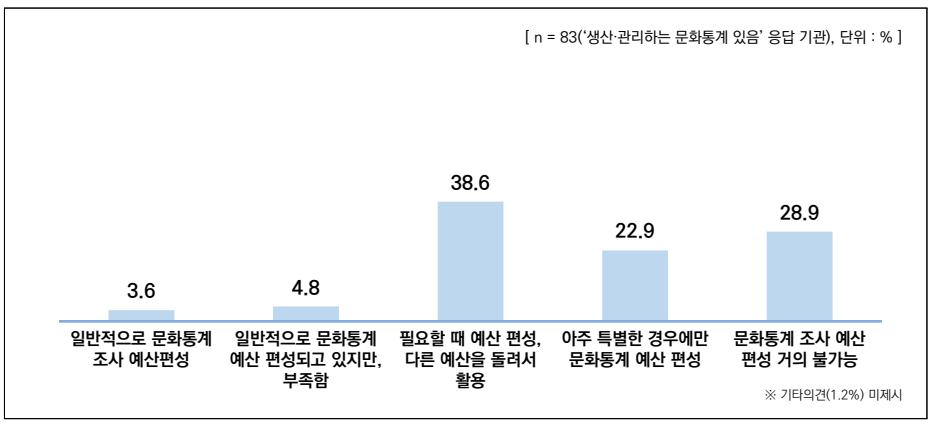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사례수	전담 관리 인력 있음	전담 관리 인력 없음
전체		83	15.7	84.3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40.0	60.0
	기초자치단체	49	12.2	87.8
	광역문화재단	13	23.1	76.9
	기초문화재단	16	12.5	87.5
소재지 규모	대도시	36	11.1	88.9
	중소도시	33	21.2	78.8
	읍면지역 이하	14	14.3	85.7
소재지	수도권	22	13.6	86.4
	충청권	17	29.4	70.6
	경상권	22	18.2	81.8
	전라권	13	7.7	92.3
	강원/제주권	9	0.0	100.0

문화통계 전담인력이 있는 비율도 기초자치단체, 기초문화재단에 비해 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이 높게 나타났지만, 비율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았다. 특징적으로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관이 전담인력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 문화통계 관련 예산 확보 현황

[그림 4-13] 문화통계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지역의 문화통계 관련 예산 확보는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른 예산을 돌려서 활용'이 38.6%로 가장 높고, 특별한 경우에만 문화통계 예산 편성 '할 수 있는 경우가 22.9%, '문화통계 조사 예산 편성이 거의 불가능'이 28.9%로 나타났다.

〈표 4-16〉 문화통계 관련 예산 확보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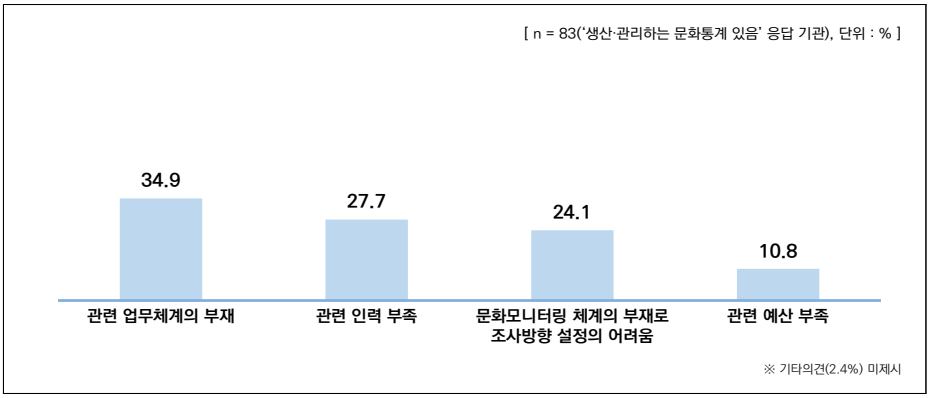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일반적으로 문화통계 조사 예산 편성	일반적으로 문화통계 예산 편성 되고 있지만, 부족함	필요할 때 예산 편성, 다른 예산을 돌려서 활용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문화통계 예산 편성	문화통계 조사 예산 편성 거의 불가능	기타
전체		83	3.6	4.8	38.6	22.9	28.9	1.2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20.0	20.0	0.0	20.0	40.0	0.0
	기초자치단체	49	4.1	2.0	32.7	30.6	30.6	0.0
	광역문화재단	13	0.0	15.4	61.5	7.7	7.7	7.7
	기초문화재단	16	0.0	0.0	50.0	12.5	37.5	0.0
소재 지규 모	대도시	36	2.8	5.6	38.9	19.4	30.6	2.8
	중소도시	33	6.1	6.1	30.3	30.3	27.3	0.0
	읍면지역이하	14	0.0	0.0	57.1	14.3	28.6	0.0
소재 지	수도권	22	0.0	9.1	22.7	22.7	45.5	0.0
	충청권	17	0.0	0.0	41.2	29.4	29.4	0.0
	경상권	22	9.1	0.0	54.5	22.7	9.1	4.5
	전라권	13	7.7	7.7	30.8	23.1	30.8	0.0
	강원/제주권	9	0.0	11.1	44.4	11.1	33.3	0.0

기관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문화통계예산 편성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산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자치단체도 예산편성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필요할 때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단의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자.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애로사항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체계의 부재'가 34.9%로 가장 높고, '관련 인력 부족(27.7%)', '문화모니터링 체계의 부재로 조사방향 설정의 어려움(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애로사항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관련업무체계의 부재가 지역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었고, 문화재단의 경우 광역재단은 예산,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지표체계의 부재 응답이 높았다.

〈표 4-17〉 문화통계 생산·관리 시 불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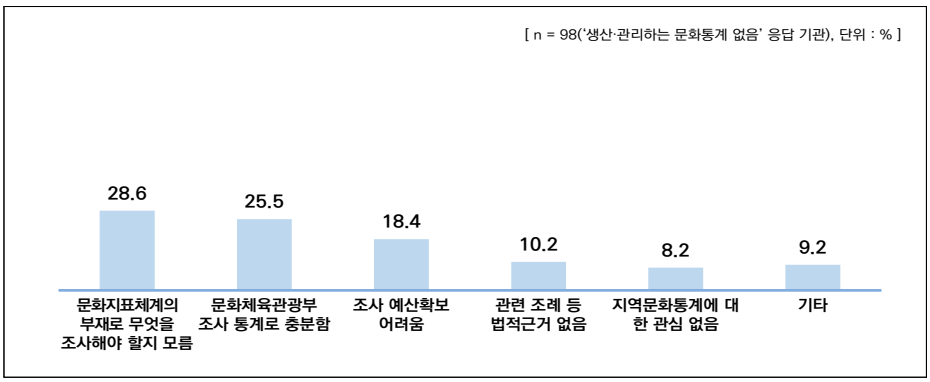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사례수	관련 업무 체계의 부재	관련 인력 부족	문화모니터링 체계의 부재	관련 예산 부족	기타
전체		83	34.9	27.7	24.1	10.8	2.4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5	40.0	20.0	40.0	0.0	0.0
	기초자치단체	49	42.9	32.7	22.4	2.0	0.0
	광역문화재단	13	23.1	15.4	15.4	38.5	7.7
	기초문화재단	16	18.8	25.0	31.3	18.8	6.3
소재지 규모	대도시	36	36.1	30.6	22.2	5.6	5.6
	중소도시	33	30.3	27.3	27.3	15.2	0.0
	읍면지역 이하	14	42.9	21.4	21.4	14.3	0.0
소재지	수도권	22	36.4	31.8	18.2	9.1	4.5
	충청권	17	35.3	23.5	17.6	17.6	5.9
	경상권	22	31.8	27.3	40.9	0.0	0.0
	전라권	13	38.5	38.5	15.4	7.7	0.0
	강원/제주권	9	33.3	11.1	22.2	33.3	0.0

차. 문화통계 생산·관리하지 않는 이유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에게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문화지표체계의 부재로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모름'이 28.6%로 가장 높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통계로 충분(25.5%)', '조사 예산 확보가 어려움(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문화통계 생산·관리하지 않는 이유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지표체계의 부재로 인한 통계 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문화통계 생산·관리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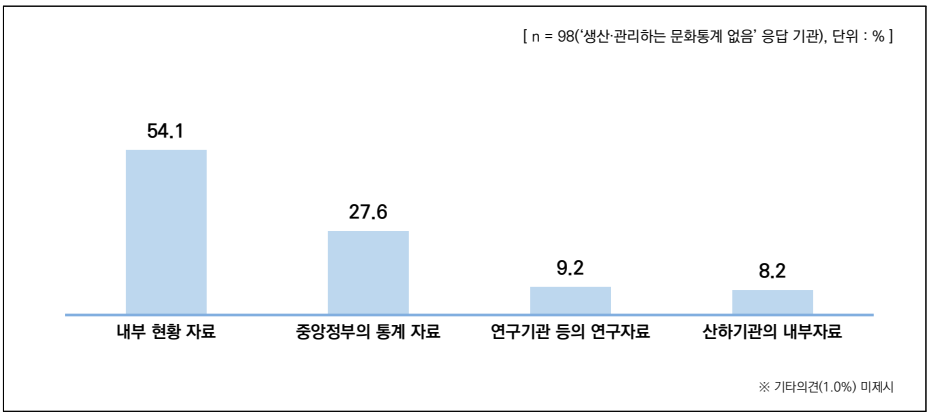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사례수	문화지표 체계의 부재	중앙통계로 충분	예산확보 어려움	법적근거 없음	통계에 대한 관심 없음	기타
전체		98	28.6	25.5	18.4	10.2	8.2	9.2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3	0.0	33.3	33.3	33.3	0.0	0.0
	기초자치단체	78	33.3	29.5	10.3	10.3	7.7	9.0
	광역문화재단	3	0.0	0.0	100.0	0.0	0.0	0.0
	기초문화재단	14	14.3	7.1	42.9	7.1	14.3	14.3
소재지 규모	대도시	36	16.7	27.8	19.4	11.1	11.1	13.9
	중소도시	38	36.8	18.4	18.4	13.2	2.6	10.5
	읍면지역이하	24	33.3	33.3	16.7	4.2	12.5	0.0
소재지	수도권	30	30.0	16.7	16.7	6.7	16.7	13.3
	충청권	13	23.1	23.1	15.4	30.8	7.7	0.0
	경상권	29	17.2	41.4	20.7	10.3	0.0	10.3
	전라권	16	50.0	6.3	18.8	6.3	12.5	6.3
	강원/제주권	10	30.0	40.0	20.0	0.0	0.0	10.0

카. 문화통계 미생산 기관의 활용 정보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지 않을 시 활용하는 정보는 '내부 현황 자료'가 54.1%로 가장 높고, '중앙정부의 통계 자료(27.6%)',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료(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문화통계 미생산 기관의 활용 정보



〈표 4-19〉 문화통계 미생산 기관의 활용 정보

(단위: %)

구 분		사례수	내부 현황 자료	중앙정부의 통계 자료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료	산하기관의 내부자료	기타
전체		98	54.1	27.6	9.2	8.2	1.0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3	0.0	33.3	66.7	0.0	0.0
	기초자치단체	78	62.8	21.8	6.4	7.7	1.3
	광역문화재단	3	0.0	100.0	0.0	0.0	0.0
	기초문화재단	14	28.6	42.9	14.3	14.3	0.0
소재지 규모	대도시	36	47.2	27.8	16.7	8.3	0.0
	중소도시	38	55.3	31.6	7.9	5.3	0.0
	읍면지역 이하	24	62.5	20.8	0.0	12.5	4.2
소재지	수도권	30	40.0	33.3	20.0	6.7	0.0
	충청권	13	61.5	30.8	7.7	0.0	0.0
	경상권	29	58.6	27.6	3.4	10.3	0.0
	전라권	16	56.3	18.8	6.3	12.5	6.3
	강원/제주권	10	70.0	20.0	0.0	1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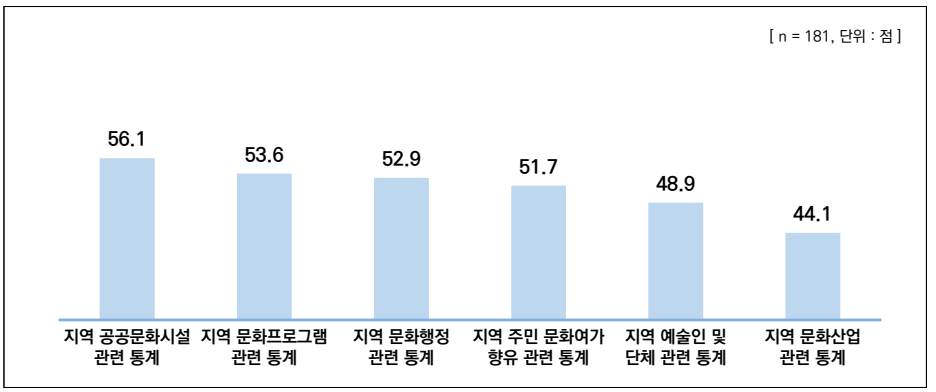
기관별로 광역자치단체는 연구기관 자료, 기초자치단체는 내부현황자료,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중앙 통계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

가. 기관의 중앙정부 문화통계 활용도

지방차치단체 및 재단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앙정부 통계는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중앙정부 문화통계 활용도 - 총괄(100점 만점)



중앙정부 문화통계 활용이 높은 영역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공공문화시설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통계, 지역 문화산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통계 활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프로그램, 문화행정, 문화향유, 예술인에 관한 통계의 활용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통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지역 예술인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통계, 지역공공문화시설, 지역문화행정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통계활용이 높았다. 기초문화재단은 지역공공문화시설, 지역주민 문화향유와 관련된 중앙정부 통계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규모가 클수록 중앙정부의 통계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추측건대, 중앙정부의 통계로도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20〉 중앙정부 문화통계 활용도 - 총괄(100점 만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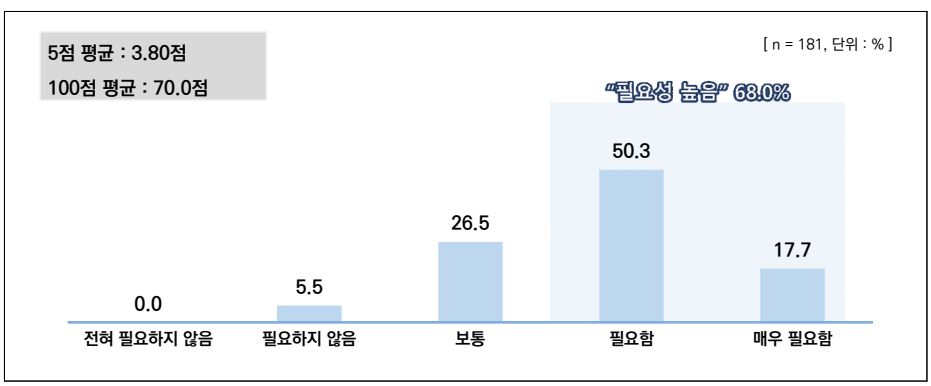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지역 공공 문화시설 관련 통계	지역 문화 프로그램 관련 통계	지역 문화 행정 관련 통계	지역 주민 문화향유 관련 통계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지역 문화 산업 관련 통계
전체		181	56.1	53.6	52.9	51.7	48.9	44.1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8	62.5	59.4	59.4	59.4	53.1	62.5
	기초자치단체	127	52.4	50.0	48.4	46.7	43.9	41.3
	광역문화재단	16	67.2	64.1	67.2	65.6	70.3	48.4
	기초화재단	30	64.2	61.7	62.5	63.3	57.5	48.3
소재지 규모	대도시	72	60.1	54.5	54.9	54.9	50.0	46.2
	중소도시	71	54.2	54.2	52.1	49.3	49.6	44.0
	읍면지역이하	38	52.0	50.7	50.7	50.0	45.4	40.1
소재지	수도권	52	55.3	52.9	51.9	51.9	48.1	38.9
	충청권	30	57.5	57.5	56.7	50.0	47.5	46.7
	경상권	51	58.3	53.4	53.4	51.0	48.5	49.5
	전라권	29	57.8	55.2	55.2	57.8	50.9	45.7
	강원/제주권	19	47.4	47.4	44.7	46.1	51.3	36.8

나.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필요성

1)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필요성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필요성은 '필요함(필요함+매우 필요함)' 응답을 한 기관이 68.0%이었으며, '필요하지 않음(필요하지 않음+전혀 필요하지 않음)'을 응답한 기관은 5.5%로 나타났다.

[그림 4-18]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필요성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필요성은 자치단체에 비해 문화재단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21〉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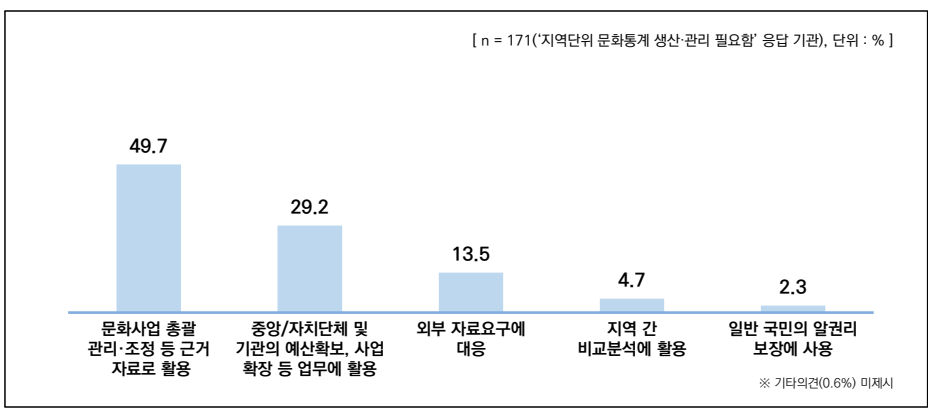
(단위: %, 점(100점 만점))

구 분		사례수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81	-	5.5	26.5	50.3	17.7	3.80	70.0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8	-	0.0	12.5	75.0	12.5	4.00	75.0
	기초자치단체	127	-	6.3	36.2	49.6	7.9	3.59	64.8
	광역문화재단	16	-	0.0	6.3	25.0	68.8	4.63	90.6
	기초문화재단	30	-	6.7	0.0	60.0	33.3	4.20	80.0
소재지 규모	대도시	72	-	6.9	20.8	54.2	18.1	3.83	70.8
	중소도시	71	-	4.2	28.2	45.1	22.5	3.86	71.5
	읍면지역 이하	38	-	5.3	34.2	52.6	7.9	3.63	65.8
소재지	수도권	52	-	11.5	19.2	44.2	25.0	3.83	70.7
	충청권	30	-	0.0	33.3	40.0	26.7	3.93	73.3
	경상권	51	-	3.9	23.5	64.7	7.8	3.76	69.1
	전라권	29	-	6.9	31.0	48.3	13.8	3.69	67.2
	강원/제주권	19	-	0.0	36.8	47.4	15.8	3.79	69.7

2)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한 이유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한 이유로는 '문화사업 총괄 관리·조정 등 근거 자료로 활용'이 49.7%로 가장 높고, '중앙/자치단체 및 기관의 예산확보, 사업 확장 등 업무에 활용(29.2%)', '외부 자료요구에 대응(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한 이유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성과 상관없이 문화사업의 근거자료 확보, 예산확보, 사업확장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4-22〉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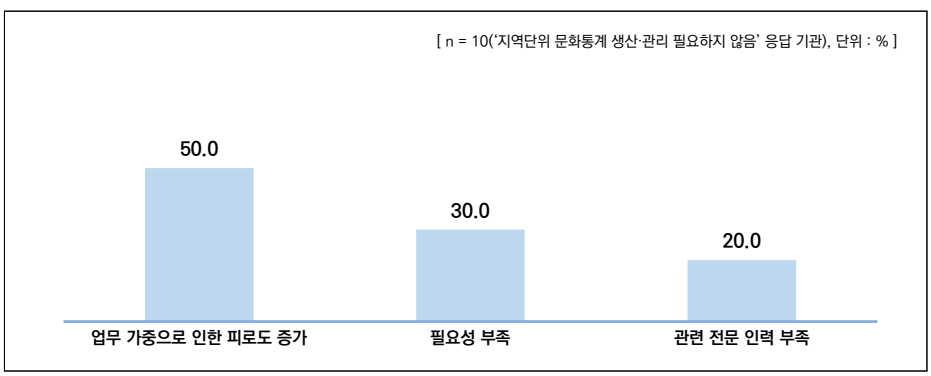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사례수	문화사업 근거 자료	기관의 예산확보, 사업 확장	외부 자료 요구에 대응	지역 간 비교분석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타
전체		171	49.7	29.2	13.5	4.7	2.3	0.6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8	37.5	50.0	0.0	0.0	12.5	0.0
	기초자치단체	119	47.9	24.4	17.6	6.7	2.5	0.8
	광역문화재단	16	37.5	62.5	0.0	0.0	0.0	0.0
	기초문화재단	28	67.9	25.0	7.1	0.0	0.0	0.0
소재지 규모	대도시	67	46.3	32.8	10.4	6.0	4.5	0.0
	중소도시	68	51.5	29.4	13.2	4.4	0.0	1.5
	읍면지역 이하	36	52.8	22.2	19.4	2.8	2.8	0.0
소재지	수도권	46	60.9	28.3	6.5	2.2	2.2	0.0
	충청권	30	53.3	26.7	16.7	3.3	0.0	0.0
	경상권	49	36.7	34.7	14.3	10.2	4.1	0.0
	전라권	27	40.7	33.3	14.8	3.7	3.7	3.7
	강원/제주권	19	63.2	15.8	21.1	0.0	0.0	0.0

3)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n=10)에게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업무 가중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50%)' '필요성 부족(30.0%)', '관련 전문 인력 부족(20.0%)'의 이유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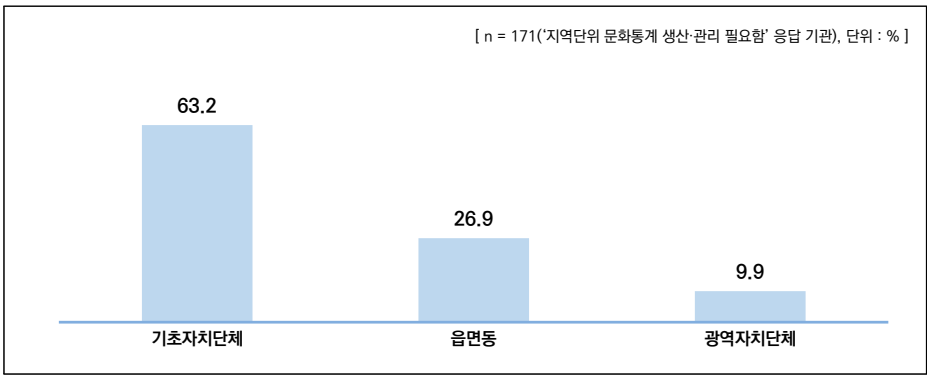
[그림 4-20]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다.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공간적 수집 범위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생산하는 경우 어떤 수준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은 결과 '기초자치단체' 수준이 63.2%로 가장 높고, '읍면동(26.9%)' 수준, '광역자치단체(9.9%)' 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공간적 수집범위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통계가 수집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읍면동 수준의 상황 파악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4-23〉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공간적 수집범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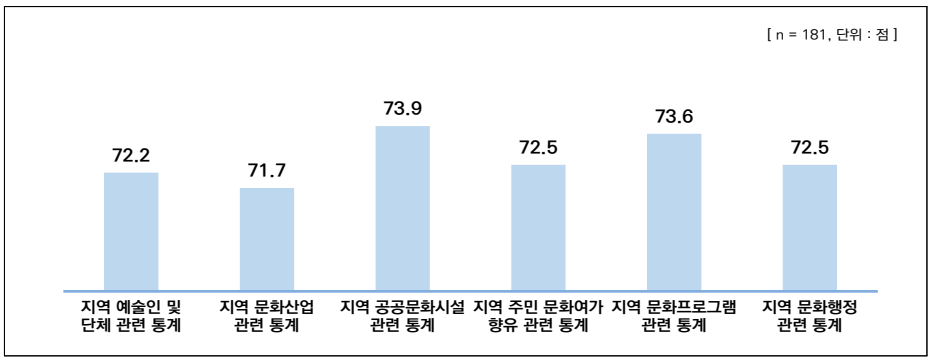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기초자치단체	읍면동	광역자치단체
전체		171	63.2	26.9	9.9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8	50.0	50.0	0.0
	기초자치단체	119	65.5	23.5	10.9
	광역문화재단	16	50.0	43.8	6.3
	기초문화재단	28	64.3	25.0	10.7
소재지규모	대도시	67	59.7	25.4	14.9
	중소도시	68	63.2	32.4	4.4
	읍면지역 이하	36	69.4	19.4	11.1
소재지	수도권	46	63.0	26.1	10.9
	충청권	30	53.3	43.3	3.3
	경상권	49	65.3	16.3	18.4
	전라권	27	77.8	18.5	3.7
	강원/제주권	19	52.6	42.1	5.3

라.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중요도, 시급성, 활용성 인식

1) 영역별 중요도 인식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영역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 73.9점,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73.6점)',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72.5점)',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7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중요도 - 총괄(100점 만점)



〈표 4-24〉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중요도 - 총괄(100점 만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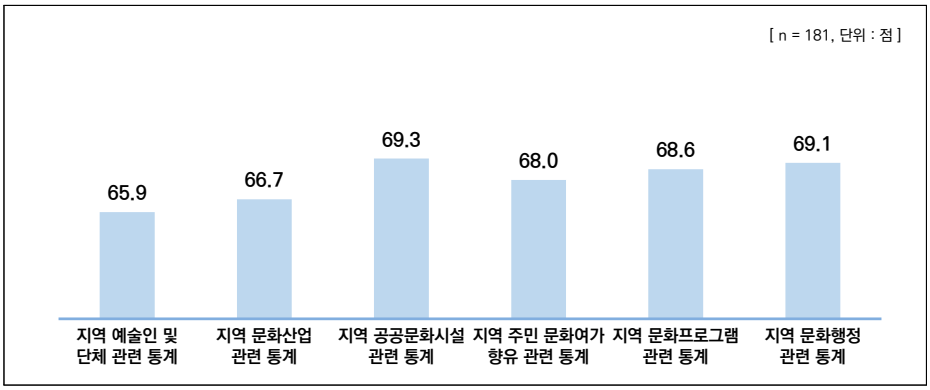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지역 예술인 및 단체	지역 문화산업	지역 공공문화시설	지역 주민 문화향유	지역 문화프로그램	지역 문화행정
전체		181	72.2	71.7	73.9	72.5	73.6	72.5
소속기관	광역자치단체	8	71.9	71.9	71.9	81.3	78.1	68.8
	기초자치단체	127	66.3	67.7	70.9	66.9	69.3	69.1
	광역문화재단	16	96.9	89.1	87.5	96.9	93.8	90.6
	기초문화재단	30	84.2	79.2	80.0	80.8	80.0	78.3
소재지 규모	대도시	72	71.2	72.9	74.0	73.6	75.0	73.6
	중소도시	71	76.1	73.9	76.8	75.4	73.9	74.3
	읍면지역 이하	38	67.1	65.1	68.4	65.1	70.4	67.1
소재지	수도권	52	73.1	73.1	76.9	75.0	75.0	73.1
	충청권	30	74.2	70.0	74.2	76.7	77.5	75.0
	경상권	51	68.1	71.1	70.1	65.7	69.1	71.1
	전라권	29	73.3	70.7	75.0	75.0	75.0	70.7
	강원/제주권	19	76.3	73.7	73.7	73.7	73.7	73.7

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지역 문화향유와 관련된 영역의 지역단위 통계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평균적으로는 문화산업의 지역단위 통계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2) 영역별 도입 시급성 인식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영역별 도입 시급성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 69.3점으로 가장 높고,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69.1점)',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68.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도입 시급성 - 총괄(100점 만점)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의 시급성 인식이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표 4-25〉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도입 시급성 - 총괄(10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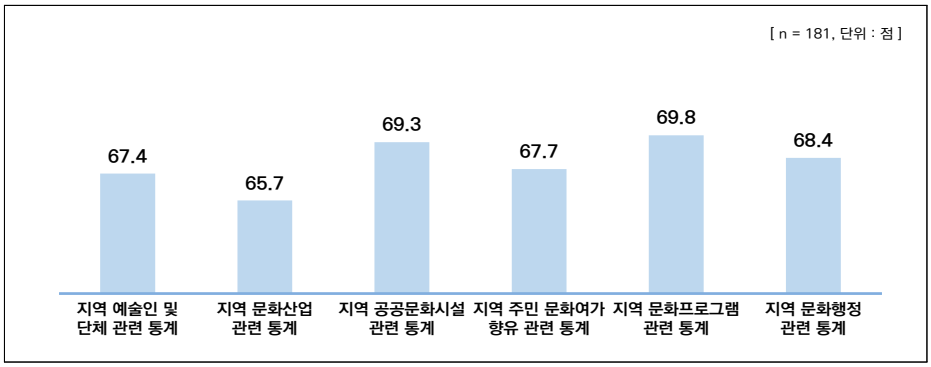
(단위: 점)

구 분		사례수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지역 문화 산업 관련 통계	지역 공공 문화시설 관련 통계	지역 주민 문화여가 향유 관련 통계	지역 문화 프로그램 관련 통계	지역 문화 행정 관련 통계
전체		181	65.9	66.7	69.3	68.0	68.6	69.1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8	65.6	65.6	65.6	65.6	75.0	65.6
	기초자치단체	127	59.3	62.8	66.7	62.8	64.4	65.0
	광역문화재단	16	89.1	81.3	81.3	87.5	87.5	85.9
	기초문화재단	30	81.7	75.8	75.0	80.0	75.0	78.3
소재지 규모	대도시	72	64.6	65.3	67.4	66.7	68.8	68.1
	중소도시	71	69.0	71.5	72.5	72.2	72.2	72.2
	읍면지역 이하	38	62.5	60.5	67.1	62.5	61.8	65.1
소재지	수도권	52	66.8	64.9	68.8	69.2	67.3	69.2
	충청권	30	66.7	66.7	70.8	68.3	74.2	73.3
	경상권	51	61.3	65.7	68.1	63.2	65.7	67.2
	전라권	29	66.4	66.4	69.8	70.7	69.0	65.5
	강원/제주권	19	73.7	75.0	71.1	72.4	71.1	72.4

3) 영역별 정책 활용성 인식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영역별 정책 활용성은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가 69.8점으로 가장 높고,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69.3점)',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68.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4]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정책 활용성 - 총괄(100점 만점)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영역별 정책 활용성과 관련해서는 광역문화재단의 수준에서는 예술인 통계 활용성이 특징적으로 높았다.

〈표 4-26〉 지역단위 문화통계 영역별 정책 활용성 - 총괄(100점 만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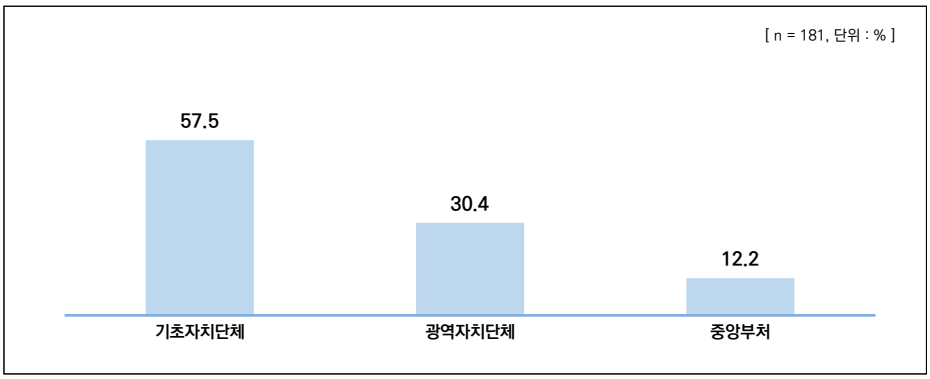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지역 문화 산업 관련 통계	지역 공공 문화시설 관련 통계	지역 주민 문화여가 향유 관련 통계	지역 문화 프로그램 관련 통계	지역 문화 행정 관련 통계
전체		181	67.4	65.7	69.3	67.7	69.8	68.4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	8	59.4	62.5	65.6	65.6	65.6	59.4
	기초자치단체	127	62.6	62.0	65.7	63.6	66.5	65.0
	광역문화재단	16	90.6	79.7	82.8	82.8	89.1	87.5
	기초문화재단	30	77.5	75.0	78.3	77.5	74.2	75.0
소재지 규모	대도시	72	66.3	67.7	69.1	70.5	70.5	69.8
	중소도시	71	70.1	66.9	72.5	68.7	70.8	70.1
	읍면지역 이하	38	64.5	59.9	63.8	60.5	66.4	62.5
소재지	수도권	52	69.2	65.4	70.7	69.2	68.8	70.7
	충청권	30	69.2	63.3	70.0	65.8	73.3	71.7
	경상권	51	64.2	68.6	67.2	66.7	70.6	67.6
	전라권	29	64.7	62.1	68.1	68.1	69.0	63.8
	강원/제주권	19	72.4	68.4	72.4	68.4	65.8	65.8

마. 지역단위 문화통계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1)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57.5%로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30.4%)', '중앙부처(12.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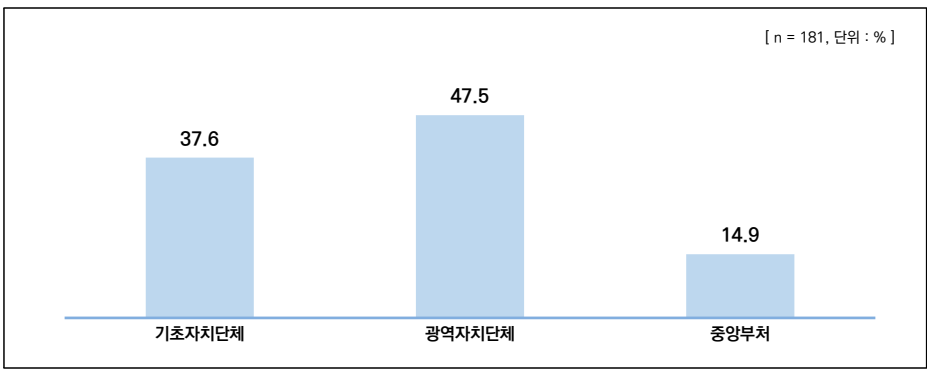
[그림 4-25]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2) 지역 문화산업 관련 통계

지역 문화산업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47.5%로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37.6%)', '중앙부처(14.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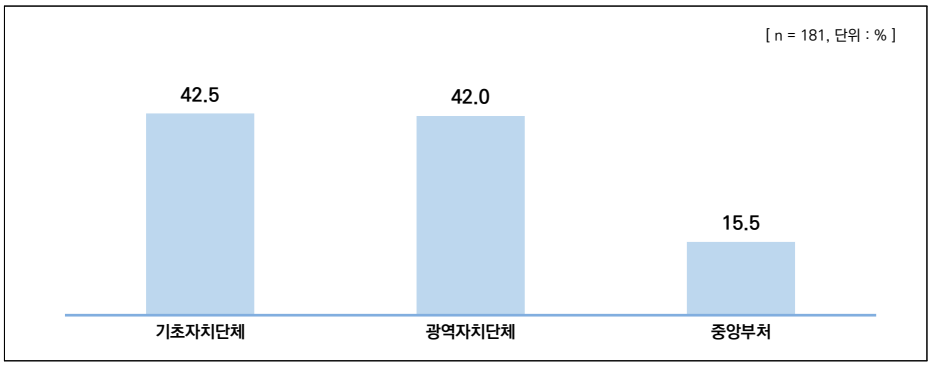
[그림 4-26]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문화산업 관련 통계



3)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의 적합한 생산·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42.5%로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42.0%)', '중앙부처(15.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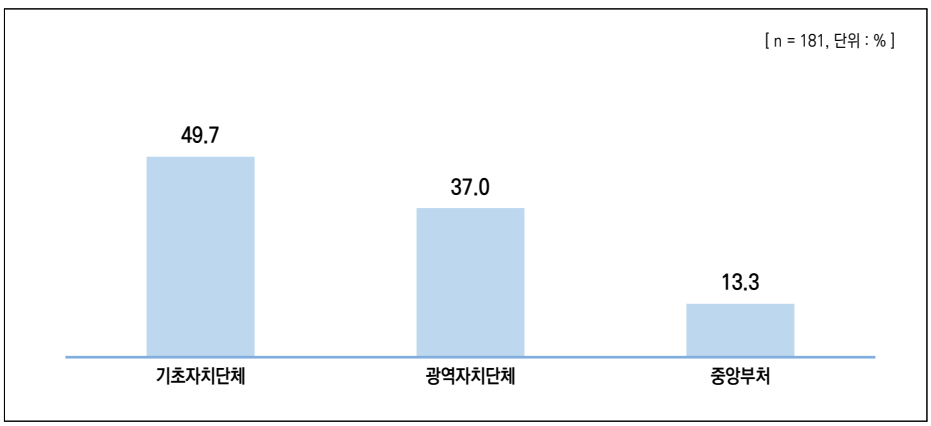
[그림 4-27]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



4)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의 적합한 생산·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49.7%로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37.0%)', '중앙부처(13.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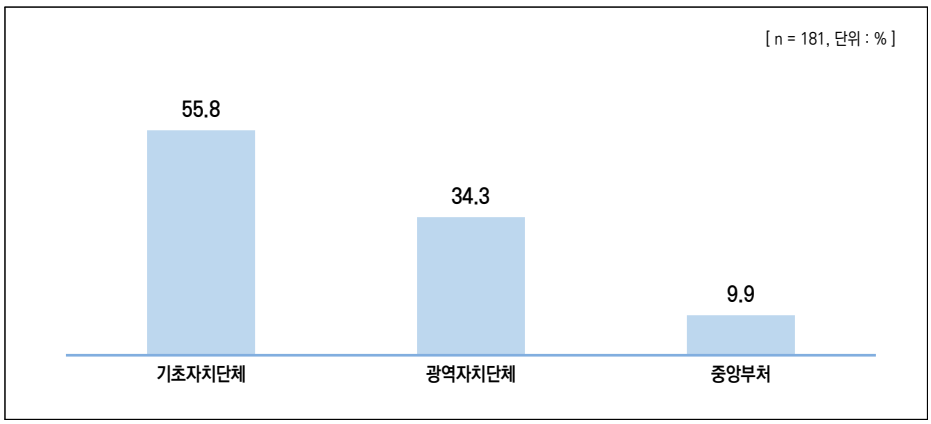
[그림 4-28]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주민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



5)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의 적합한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55.8%로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34.3%)', '중앙부처(9.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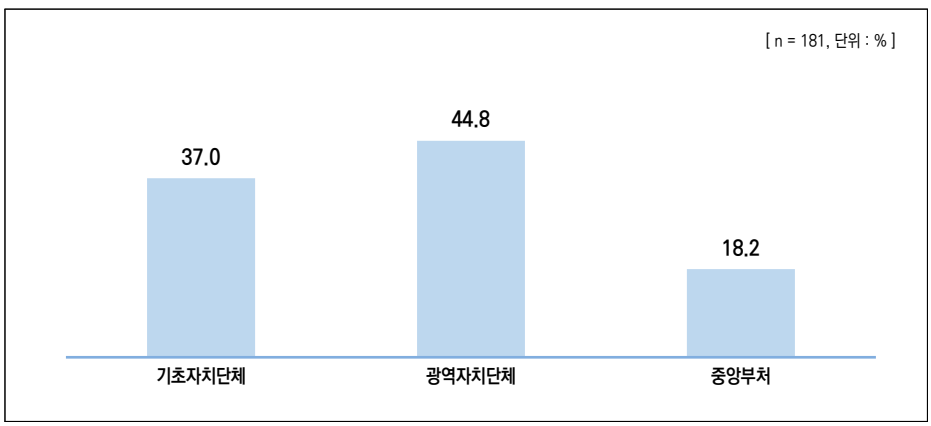
[그림 4-29]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문화프로그램 관련 통계



6)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의 적합한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44.8%로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37.0%)', '중앙부처(1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0]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 지역 문화행정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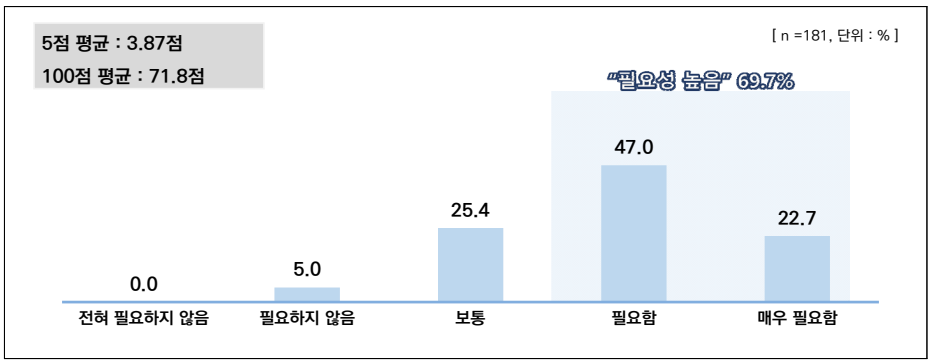


바.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협력체계 필요성

1) 협력체계 필요성 인식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에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필요함+매우 필요함)' 응답을 한 기관은 69.7%이며, '필요하지 않음(필요하지 않음+전혀 필요하지 않음)' 응답을 한 기관은 5.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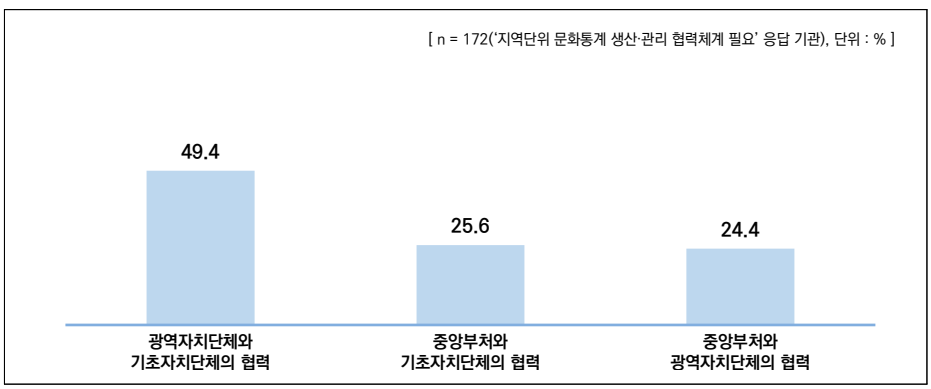
[그림 4-31]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협력체계 필요성



2) 적절한 협력체계 인식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협력체계 구축 시 적절한 협력체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49.4%로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25.6%)',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협력(2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협력체계 구축 시 적절한 협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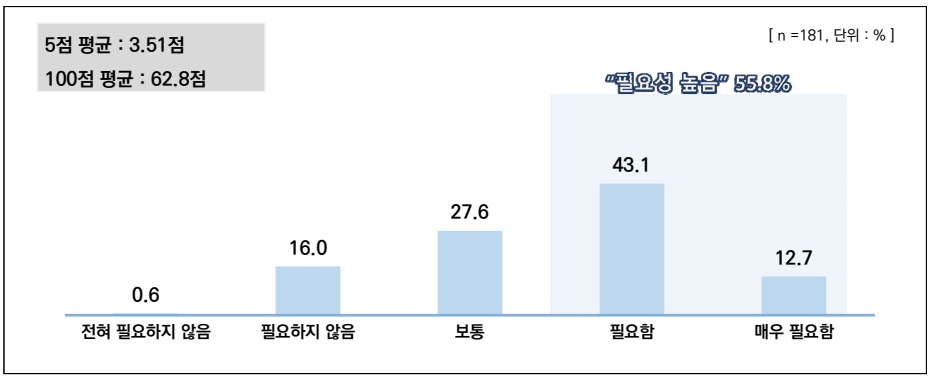


사.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전담조직 필요성

1) 전담조직의 필요성 인식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필요함+매우 필요함)'으로 응답한 기관은 55.8%이며, '필요하지 않음(필요하지 않음+전혀 필요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기관은 16.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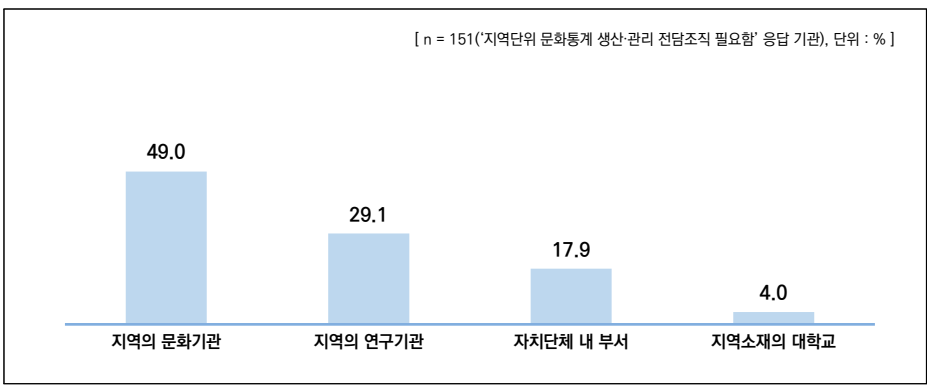
[그림 4-33]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전담조직 필요성



2) 적절한 전담조직 인식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전담조직 지정 시 적절한 조직에 대해서 '지역 문화기관'이 49.0%로 가장 높고, '지역 연구기관(29.1%)', '자치단체 내 부서(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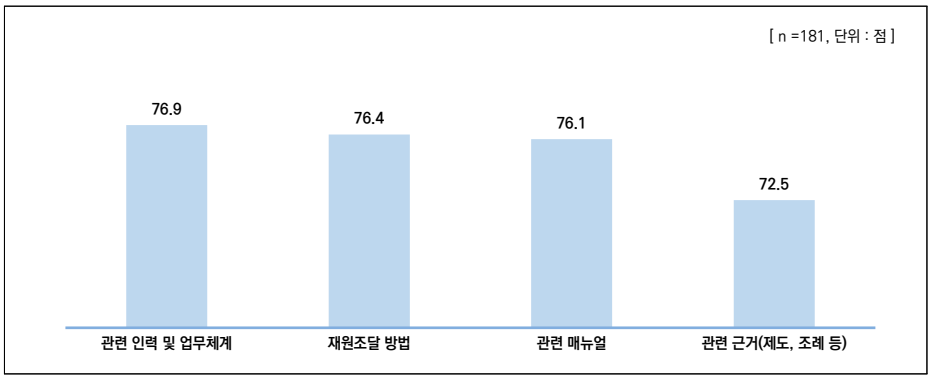
[그림 4-34] 전담조직 지정 시 적절한 조직



아.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인력 및 업무체계'가 76.9점으로 가장 높고, '재원조달 방법(76.4점)', '관련 매뉴얼(76.1점)', '관련 근거(제도, 조례 등)(7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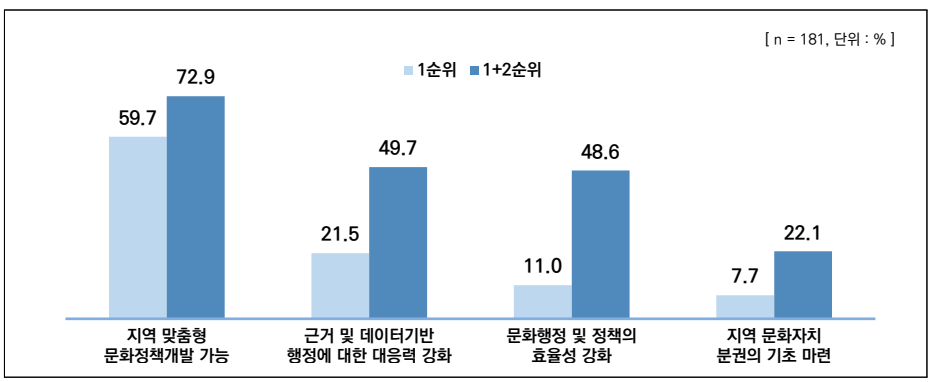
[그림 4-35]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 - 총괄(100점 만점)



자.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 시 기대효과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 시 기대효과로는 1순위 기준 '지역 맞춤형 문화정책 개발 가능'이 59.7%로 가장 높고, '근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대응력 강화(21.5%)', '문화행정 및 정책의 효율성 강화(11.0%)', '지역 문화자치 분권의 기초 마련(7.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6]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 시 기대효과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설문조사는 크게 문화통계의 생산·관리 현황과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 두 부문으로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통계관리의 주체는 자치단체이지만, 현실적으로 재단이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어 광역, 기초재단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먼저 지역의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과 관련된 내용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4-27〉과 같다.

〈표 4-27〉 지역의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생산·관리 비율	•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비율이 45.9%
생산·관리 영역	• 문화시설(61.4%)과 예술인(60.2%) 비율이 높음
생산의 법적근거	• 시설 27.5%, 예술인 38%, 문화프로그램 25.7%, 문화행정 50% • 문화향유 22.9%, 문화산업 33.3%
생산의 목적	•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근거확보 42.2% • 업무보고 활용 22.9% • 지역의 문화통계 자료 축적 19.3%
생산의 중요도 인식	• 문화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의 51.8%가 중요하다고 인식
문화지표 관리	• 문화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 34.9% • 광역수준에서 지표관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문화통계 전담인력	•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가 84.3%
예산확보	•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비율 8.4% •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거나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
애로사항	• 관련 업무체계의 부재 34.9%, 관련인력 부족 27.7% • 문화지표,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로 무엇을 생산할지 모름 24.1%
비생산 이유	• 문화지표,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로 무엇을 생산할지 모름 24.1% • 중앙 통계로 충분함 25.5% • 예산확보의 어려움 18.4%

지역에서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비율은 45.9%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광역수준에서 관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생산 및 관리하는 문화통계 영역은 문화시설(61.4%)과 예술인(60.2%)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가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의 문화정책 중 문화시설과 예술인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산확보나 통계의 지속성을 위한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는 예술인 관련이 통계의 근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역에서 문화통계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문화정책의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문화통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통계를 관리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화지표체계가 필요한데, 문화지표를 관리하는 비율이 34.9%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지역 문화통계의 체계적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은 15.7%만 있다고 응답, 문화통계 예산은 8.4%만이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담인력과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통계를 생산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공히 문화지표체계의 부재가 문화통계를 수집할 수 없는 이유로 나타났고, 관련업무체계의 부재, 관련인력의 부재,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이 지역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생산 및 관리가 미흡함, 표준화된 지표체계의 부재, 전담인력의 부재,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지역의 맞춤형 문화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와 관련된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에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앙 생산 문화통계는 공공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소재한 시설, 프로그램임에도 중앙의 통계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필요성은 6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맞춤형 문화정책의 추진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일부는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생산이 자칫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집의 공간 인식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수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2%로 나타났다.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영역별 중요성은 공공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이 높았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문화향유 통계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영역별 도입 시급성은 공공문화시설, 문화행정 관련 통계가 높게 나타났다. 활용도 측면에서는 문화프로그램, 공공문화시설이 높게 나타났으나, 광역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 통계의 활용성을 특별히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28〉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

구 분	주요 내용
중앙생산 문화통계 활용도	• 공공문화시설 통계 56.1%, 문화프로그램 통계 53.6% 문화행정 통계 52.9%, 문화향유 통계 51.7%의 활용이 많음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필요성	• (동의) 전체 응답자의 68%가 필요성 동의 • (필요 이유) 문화정책의 추진근거로 활용 49.7% • (불필요 이유) 업무가중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50%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공간적 범위 인식	•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수집 필요 63.2%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영역별 중요성, 시급성, 활용도	• (중요도) 공공문화시설 73.9점, 문화프로그램 73.6점, 다만, 세분해서 보면 광역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지역 문화향유통계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 • (시급성) 공공문화시설 69.3점, 문화행정 69.1점 • (활용도) 문화프로그램 69.8점, 공공문화시설 69.3점 다만, 광역문화재단의 수준에서는 예술인 통계 활용성을 높게 인식.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영역별 생산관리 주체	• (예술인) 기초자치단체 57.5% • (문화산업) 광역자치단체 47.5% • (공공문화시설) 기초자치단체 42.5%, 광역자치단체 42% • (문화향유) 기초자치단체 49.7% • (문화프로그램) 기초자치단체 55.8% • (문화행정) 광역자치단체 44.8%
지역단위 문화통계 거버넌스	• (협력 필요성) 전체 응답자의 69.7% 필요성 동의 • (적절한 협력체계)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49.4%
지역단위 문화통계 전담조직	• (필요성) 전체 응답의 55.8% 필요성 인식 • (적절한 조직) 지역 문화기관 49%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 고려사항	• 관련 인력 및 업무체계 76.9%, 재원 조달 76.4%, 관련 매뉴얼 76.1%

다음으로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생산·관리 주체는 문화통계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생산·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문화산업, 문화행정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예술인, 공공문화시설, 문화향유, 문화프로그램과 관련된 통계

의 생산관리 주체는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전담조직은 지역 문화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단위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7%, 협력 거버넌스의 형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거버넌스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는 관련 인력과 업무체계 구축, 재원조달, 매뉴얼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단위 문화통계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소한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의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었다. 기관에 따라 어떤 영역의 통계가 필요한지 인식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향유 통계의 중요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생산관리의 주체는 전반적으로 영역에 따라 시민 문화수요와 밀접한 통계는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산업 등 영역은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의 문화기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통계 행정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력, 업무체계, 재원, 매뉴얼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개방형(서술)으로 질문한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의견 및 요구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지역 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하며 정책개발 및 추진에 유용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제도·예산·인력 등 실제 행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신뢰성 높은 통계의 생산은 매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지역 단위 문화통계를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 개선 및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중앙-광역-기초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중앙-지자체 간 협업을 전제로 한 효율적 통계생산체계 구축이 단시간 내 힘든 만큼 중앙정부 주도의 통계 생산 및 관리 일원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수였다.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 차원의 문화통계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통계 매뉴얼 제공, 단순 조사를 넘어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체계로 전환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지역 차원의 통계생산·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통계관련 전문기

관 및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통계전문기관 및 전담인력 배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외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지표의 개발, 통계의 생산·관리·유통이 일원화된 통합통계시스템 구축 필요 등이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었다.

〈표 4-29〉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의견 및 요구사항 (개방형 설문)

구분	주요 내용
통계생산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 단위의 통계생산과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법) 및 예산이 요구하며, 통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생산 및 관리의 일원화 필요. 특히 지자체 여건(조직, 인력, 예산)의 한계로 중앙정부 주도 하의 통계생산 및 관리 필요 • 데이터 기반의 문화행정 확립을 위해 문화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가 시급 • 중앙-광역-기초 간의 명확한 사무분장 필요
통계 정확성 제고	• 대체적으로 통계 신뢰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다수의 허수 존재) • 지역차원의 문화통계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통계 매뉴얼 시급 • 단순 조사가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누적데이터 생산 필요
전문기관 설치 및 인력 배치	•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부정확한 문화통계가 생산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통계 전문기관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필요(광역단위 연구기관 활용)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통계 교육 필요
통합시스템 구축	• 통계자료의 접근성 개선 필요(예. 새올 등 기초행정시스템 내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조치) • 통계의 생산·관리·유통이 일원화된 통합통계시스템 구축 필요
지역특성 반영	• 지역의 실정에 맞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통계지표에 있어 공통지표와 특화지표를 구분하여 지역특성 반영

제5장

사례분석

제1절 국내 사례

1. 사회조사 (통계청)

가. 조사 개요

사회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작성되고 있다. 사회조사통계는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18호)이다.

사회조사의 시작은 1977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구성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1984년까지 총 8개 부문 중 매년 4~5개 부문을 선정하여 조사하다가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조사부문을 2~3개로 축소하되 항목수를 확대하여 심층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매 시기 조사부문과 항목의 변화를 가져오다가 2008년 매년 5개 부문씩 2년 주기로 조사주기로 전환하고 조사명칭을 사회통계조사에서 사회조사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표 5-1 참조).

〈표 5-1〉 '사회조사' 조사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77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구성을 목적으로 최초 조사
1979~1984	• 총 8개 부문 중 매년 4~5개 부문을 선정하여 조사
1985~1996	• 조사부문 2~3개로 축소, 항목 수 확대하여 심층 조사
1997	• 연 2회(4, 9월) 조사로 변경 (상·하반기 2개 부문씩 조사)
1998~2005	• 연 1회로 환원 (3개 부문씩 각 부문별 4년 주기로 조사)
2006~2007	• 매년 3~4개 부문씩 3년 주기로 조사주기 전환
2008	• 매년 5개 부문씩 2년 주기로 조사주기 전환, 조사명칭 변경 (사회통계조사 → 사회조사)
2011	• 조사대상 연령 확대 (만 15세 이상 → 만 13세 이상)

연도	주요 내용
2020	• 제5차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부문 명칭 변경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2021	• 표본 개편(4년 고정표본), 조사부문 명칭 변경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지침서

나. 조사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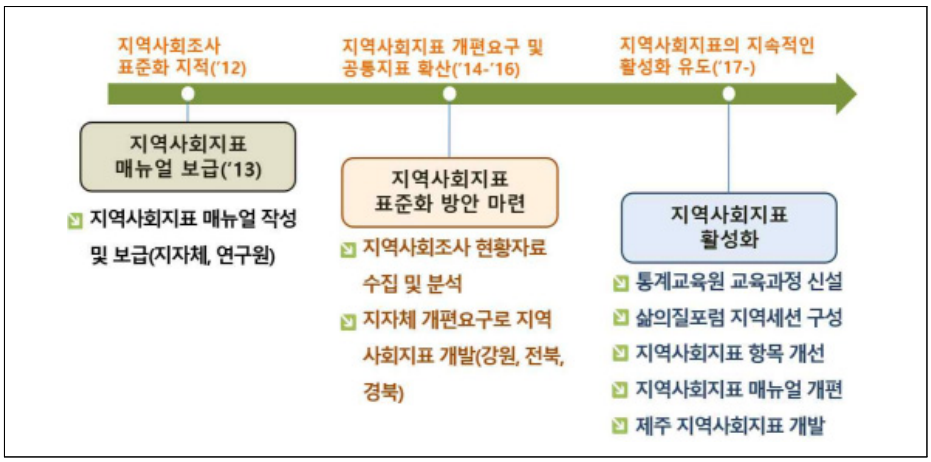
1) 조사방법

사회조사의 조사 주기와 조사 규모를 보면, 주기는 매년 실시하되 각 부문별로 2년의 주기성을 가지며, 조사 규모는 대상으로 전국 1,548개 조사구에 약 32,203가구이며 동일 조사구, 18,576가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목표 모집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시점 기준으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며,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 가구만을 조사 모집단으로 사용한다.

표본설계 방식은 첫째, 표본추출틀을 작성하는데, 2021년 사회조사의 경우 2019년 등록센서스의 일반조사구를 대상으로 17개 시도별 공표 및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7대 특·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9개 도 지역에 대한 동/읍면부를 층화한다(총 27개 층). 최종적으로 2021년 조사의 경우 전국 1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6,000여 명이 응답한 결과로서, 표본 수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별 경향, 특히 시군 및 읍면동과 같은 소지역 단위 국민들의 사회인식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 차원의 사회조사 실시 필요성이 사회지표 측정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1992년 지자체 차원의 지역사회조사가 경상남도에서 실시된 이래로 17개 지자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자체적인 지역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초기에는 지역별로 각기 지표와 조사항목이 달라 상호 비교가 어려워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통계청은 2013년 지역사회지표 매뉴얼을 보급**하였다(2016년 일부 개편), 또한 **통계교육원 내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지표 매뉴얼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온라인 사이버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남상민, 심수진, 김샛별, 2020).

[그림 5-1] 표준화 요구 이후 지역사회지표 관련 추진 내용



출처: 남상민, 심수진, 김샛별(2020). 지역사회지표 체계 및 매뉴얼 개편

2) 조사내용

조사항목은 짝수 년에 건강·교육과 훈련·범죄와 안전·가족·생활환경 등 5개 부문, 홀수 년에 복지·사회 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등 5개 부문이다. 2021년부터 '문화와 여가'는 '여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홀수 년인 2021년 조사의 경우 복지·사회 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등 5개 부문에 '코로나 19'부문이 추가되어 진행되었다.

짝수 년 조사부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기본사항(17), 건강(12), 교육과 훈련(23), 범죄와 안전(10), 가족(16), 생활 환경(9) 등 총 87개 항목 조사가 이루어진다(표 5-2 참조).

〈표 5-2〉 '사회조사' 조사항목 (짝수년, 2020년)

연도	조사 항목 (87개)
기본사항 (17)	① 성별 ② 생년월일 ③ 가구주와의 관계 ④ 교육정도 ⑤ 혼인상태 ⑥ 활동 제약 상태 ⑦ 주관적 만족감 ⑧ 성취에 관한 만족도 ⑨ 지난 1주간 경제활동 ⑩ 산업 ⑪ 직업 ⑫ 종사상의 지위 ⑬ 거처의 종류 ⑭ 점유형태 ⑮ 배우자의 지난 1주간 경제활동 ⑯ 가구 소득 ⑰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 여부*
건강 (12)	① 건강 평가 ② 건강 관리 ③ 흡연 ④ 음주 ⑤ 의료 서비스 만족도 ⑥ 의료 서비스 불만족 이유 ⑦ 유병 기간 ⑧ 치료 방법 ⑨ 스트레스 정도 ⑩ 자살 충동 ⑪ 자살 충동 이유 ⑫ 암에 대한 두려움
교육과 훈련 (23)	① 학생 여부 ② 초·중·고 재학생 여부 ③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④ 학습동기 ⑤ 자아 존중감 ⑥ 기대하는 교육 수준 ⑦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 ⑧ 대학(원)생 여부 ⑨ 대학(원)생 등록금 마련 방법 ⑩ 교육 기회의 충족도 ⑪ 대학(교) 및 특성화고

연도	조사 항목 (87개)
	졸업 여부 ⑫ 현재 및 과거 취업 여부 ⑬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⑭ 학교 교육의 효과 ⑮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 ⑯ 학생 자녀 유무 ⑰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⑱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 ⑲ 자녀가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 ⑳ 자녀의 유학 ㉑자녀의 유학 희망 이유 ㉒ 교육비 부담 인식 ㉓가장 부담되는 교육비 항목
범죄와 안전 (10)	①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②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③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5년 전) ④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5년 후) ⑤ 다른 사람들의 준법 수준 ⑥ 자신의 준법 수준 ⑦ 공공질서 준수 수준 ⑧ 야간 보행의 안전도 ⑨ 야간 보행이 불안한 이유 ⑩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가족 (16)	① 부모 생존 여부 ② 부모 동거 여부 ③ 부모 생활비 마련 방법 ④ 부모 부양에 관한 견해 ⑤ 결혼 ⑥ 결혼 문화 ⑦ 결혼식 문화 ⑧ 이혼 ⑨ 재혼 ⑩ 입양 ⑪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⑫ 가사 분담 ⑬ 가사 분담 실태 ⑭ 가족 관계 만족도 ⑮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⑯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
생활환경 (9)	① 현재 체감 환경 ② 생활 환경 상황 변화(5년 전) ③ 생활 환경 상황 변화(5년 후) ④ 환경 보호 비용 분담 ⑤ 환경 문제 ⑥ 환경 오염 방지 노력 ⑦ 자동차 요일제 참여 ⑧ 자동차 운전 여부 ⑨ 친환경 운전 습관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지침서
* 2019년 이후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조사표 항목으로 조사하지 않음.

홀수 년의 경우, 통계분류 필수항목(8), 공통(3), 복지(16), 사회참여(15), 여가(11), 소득과 소비(6), 노동(12) 등 71개이며, 2021년에는 코로나 19 관련 조사항목 9개를 추가하였다. 여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까지 '문화와 여가'로 지칭되다가 이후 여가로 변경되었으며, 문화예술·스포츠관람, 레저시설 이용, 관광경험, 여가활용 및 만족도 등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5-3〉 '사회조사' 조사항목 (홀수년, 2021년)

연도	조사 항목 (87개)
통계 분류 (8)	① 성별 ② 생년월일 ③ 가구주와의 관계 ④ 교육 정도 ⑤ 혼인 상태 ⑥ 거처의 종류 ⑦ 점유 형태 ⑧ 가구 소득 * 장애인복지카드 소유 여유 (행정자료 대체)
공통 (3)	① 주관적 만족도 ② 성취에 대한 만족도 ③ 활동 제약 상태
복지 (16)	① 생활 여건의 변화 ②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③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④ 선호하는 장례 방법 ⑤ 장애인과의 유대 관계 ⑥ 사회의 장애인 차별 정도 ⑦ 장애인 관련 시설 ⑧ 장애인 복지 사업 ⑨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장애인 복지 사업 ⑩ 노후 준비 방법 ⑪ 자원봉사 활동 내용 ⑫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⑬ 생활비 마련 방법 ⑭ 자녀 유무 ⑮ 자녀와의 동거 여부 ⑯ 자녀와 동거 의향
사회 참여 (15)	①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② 신뢰 ③ 사회적 관계망_도움 청할 사람 수 ④ 사회적 관계망_일 평균 교류자 수 ⑤ 단체 참여 ⑥ 기부 여부 및 이유 ⑦ 기부 내용 ⑧ 기부문화 확산 ⑨ 기부 의사 ⑩ 자원봉사 활동 여부 및 이유 ⑪ 자원봉사 활동 내용 ⑫ 자원봉사 활동 의사 ⑬ 계층 의식 ⑭ 계층 이동_본인 세대 ⑮ 계층이동_자식 세대

연도	조사 항목 (87개)
여가 (11)	①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② 독서 ③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④ 레저시설 이용 ⑤ 국내 관광여행 ⑥ 해외여행 경험 ⑦ 여가 활용 ⑧ 여가 활동 동반자 ⑨ 여가 활용 만족도 ⑩ 여가 활용 불만족 이유 ⑪ 하고 싶은 여가 활동
소득과 소비 (6)	① 주관적 소득 수준 ② 소득과 부채의 변화 ③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 ④ 긴축 소비지출 항목 ⑤ 소득 만족도 ⑥ 소비 생활 만족도
노동 (12)	① 직업 선택요인 ② 창(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③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④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 ⑤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⑥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⑦ 고용의 안정성 ⑧ 산업 ⑨ 직업 ⑩ 종사상의 지위 ⑪ 근론 여건 만족도 ⑫ 배우자의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상태
코로나19 관련* (9)	① 자신의 방역수칙 준수 ② 타인의 방역수칙 준수 ③ 사회적 관계방 변화 ④ 소비생활 변화 ⑤ 재택근무 ⑥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인 이유 ⑦ 원격 수업 ⑧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⑨ 코로나19 일상생활 변화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지침서
* 2019년 이후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조사표 항목으로 조사하지 않음.

2.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관리청)

가. 조사 개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건강통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보건 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2008년 이래 법률(「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사의 추진 목적은 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② 지역보건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③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구축, ④ 주민의 건강수준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조사내용 및 수행체계 표준화이다[1].

1)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s://chs.kdca.go.kr/chs/bsnsIntrcn/bsnsSumryMain.do, 2022.5.29. 검색)

중점추진과제로는 ① 지역단위 생산체계 구축 (시·도/시·군·구 단위 원자료 생산 감시체계 구축, 기존 자료 가공생산 통합분석체계 구축), ②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 표준화(조사지표 표준화, 공동 표준추출, 조사수행 표준화),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지역사회건강조사 협력수행체계 구축,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술지원 체계 확립) 등이 있으며, 감시 전문인력 양성,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 강화 등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림 5-2] 지역사회 건강조사 전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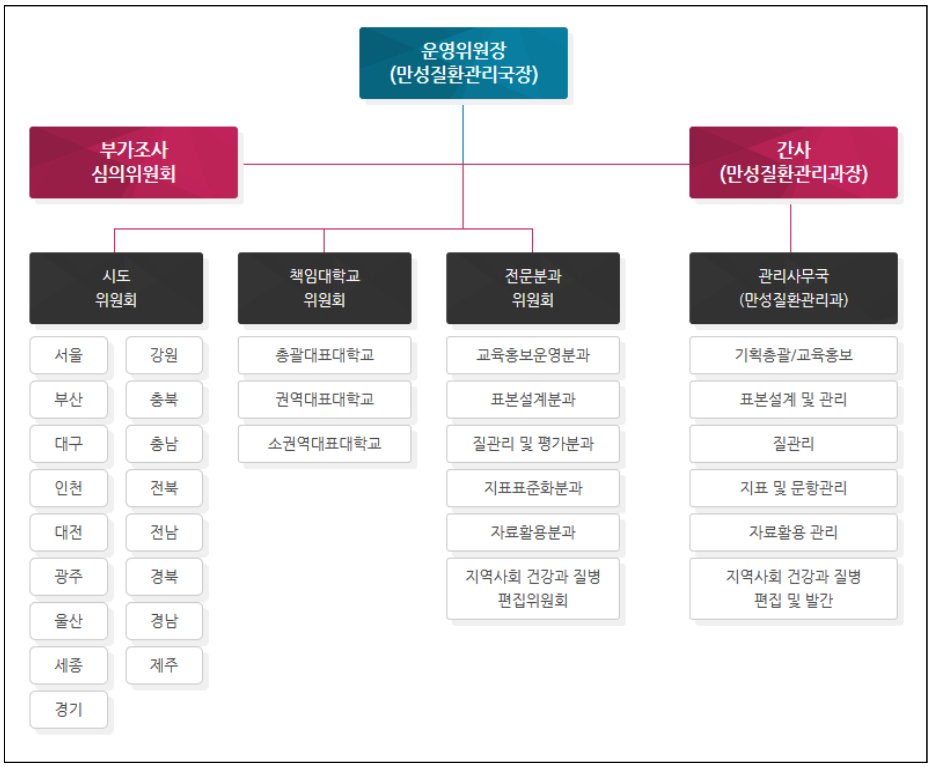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s://chs.kdca.go.kr/chs/bsnsIntrcn/bsnsSumryMain.do, 2022.5.29. 검색)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추진체계는 운영위원장 아래 시도위원회, 책임대학교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가 있으며, 부가조사심의위원회와 간사가 실무지원을 담당한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총괄하며 만성질병관리과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지역 조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시도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표 표준화, 표본설계 등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민간의 전문역량, 특히 기술적인 측면의 전문

성을 조사·통계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거점 대학 중심의 '책임대학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2]이다.

[그림 5-3]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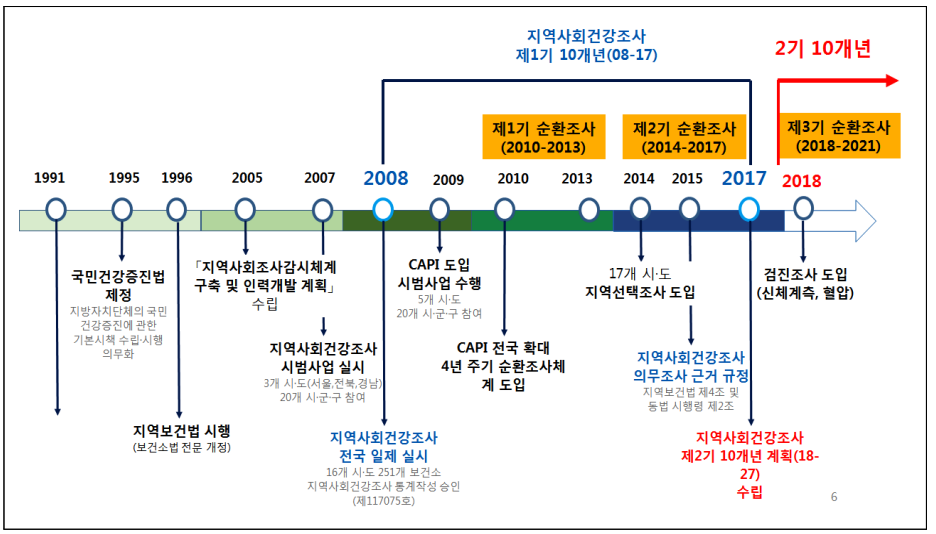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s://chs.kdca.go.kr/chs/bsnsIntrcn/bsnsSumryMain.do, 2022.5.29. 검색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 시범사업(서울, 전북, 경남 20개 보건소)을 시작으로 2008년에 16개 시도 251개 보건소로 확대·추진되었으며, 2009년에는 CAPI(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가 시범 도입되어 2010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순환조사 실시, 2014년 17개 시도 지역선택조사 도입, 2018년 신체계측(키, 몸무게) 도입, 2019년 혈압측정조사 도입, 그리고 지난 10년간 시군구 단위의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일반통계)로 본 조사의 필요성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 권역 17개 대표대학과 소권역 책임대학교 35개 책임교수들로 구성된 책임대학교 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교육 및 훈련, 조사수행, 자료수집, 분석, 통계집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을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김동현 외, 2019,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체계 개선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질병관리본부)

[그림 5-4] 지역사회건강조사 연혁



* 출처: 질병관리본부(2018). 소지역통계 생산방안과 연중 조사체계 전환을 위한 2차 정책세미나 자료

나. 조사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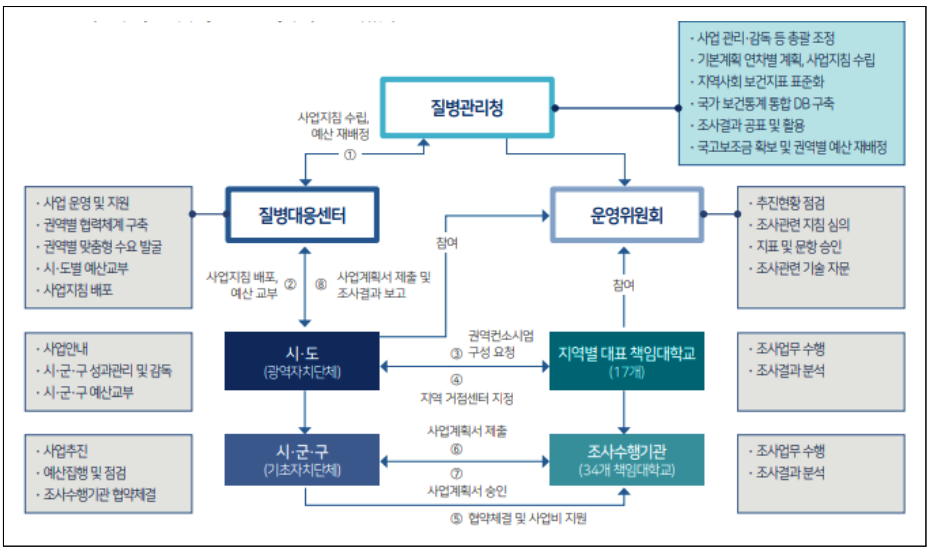
1) 수행체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세부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질병관리청, 2021)[3]. 우선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하고, 표본설계, 조사문항 및 지침표준화, 교육 및 홍보물 개발 등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는 전국의 시·도 및 책임대학교 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진된다.

시·도는 권역대표대학교를 지정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을 위한 지역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아 시·군·구 보건소로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수행한다. 시·군·구 보건소는 책임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수행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한다. 책임대학교의 역할은 사업교육/홍보/대외협력 지원, 조사현장 지원 콜센터 운영, 조사원 및 조사정도 관리, 자료 분석 및 보건통계 생산, 조사수행지원 등의 업무 등이 있다.

3) 질병관리청(2022), 2021 지역건강통계 한 눈에 보기

[그림 5-5]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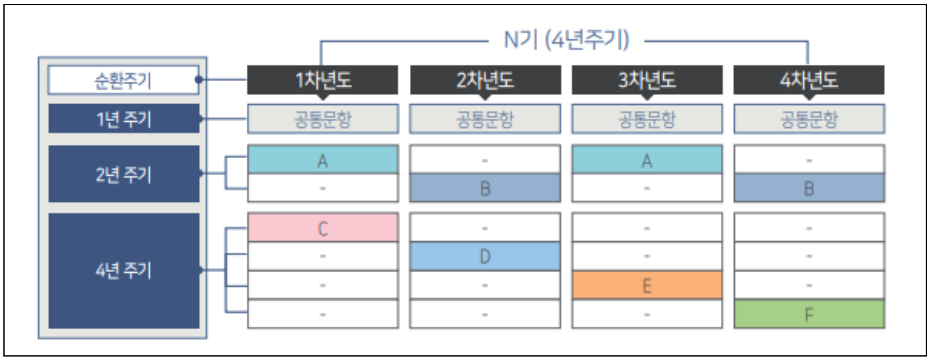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2022), 2021 지역건강통계 한 눈에 보기, p.31

2) 조사방법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대상은 조사시점에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2002년 7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조사단위는 가구(가구조사) 및 가구원(개인조사)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순환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4년을 하나의 조사주기로 설정하고 지표의 중요도와 활용성, 표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조사항목을 1년, 2년, 4년 주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1기 순환조사 : 2010-2013년, 2기 순환조사 : 2014-2017년, 3기 순환조사 : 2018-2021년, 4기 순환조사: 2022-2025). 2010-2013년 순환조사에서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공통지표를 생산하였고, 연도주기별 조사항목의 비율은 순서대로 70%, 20%, 10%순이다. 2014-2017년 순환조사에서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동일한 문항을 조사하는 전국 공통문항 외에 17개 시·도 단위의 지역 선택문항을 도입하였고, 2018-2021년 순환조사에는 계측조사(키, 몸무게, 혈압 측정)를 도입하였다. 단,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조사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항 수 조정을 위해 일부 순환문항만을 조사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5-6] 지역사회건강조사 순환조사체계



출처: 질병관리청(2022), 2021 지역건강통계 한 눈에 보기, p.33

3) 조사내용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설문조사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로 이루어진다.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공통 조사표는 18개 영역, 총 16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문항으로부터 124개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조사에서는 표본 가구당 만 19세 이상 성인 1인에게 세대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가구소득을 조사하고, 개인조사는 가구원 모두에게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등),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개인위생, 교육 및 경제활동을 조사한다. 그리고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 보건 분야의 핵심 이슈이므로 코로나19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격리 경험 혹은 입원장소, 유증상 경험, 행동수칙 수행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표 5-4〉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영역 및 항목 (2021년)

영역			조사항목
설문조사	가구조사(*가구대표 1인 참여)		세대유형, 기초생활수급 여부, 연간 가구소득,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변화 및 필수 소비지출 변화
	개인조사	흡연	평생흡연(일반담배,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현재흡연(일반담배,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금연시도, 금연계획, 간접흡연(가정내, 직장내, 공공장소)
		음주	평생음주, 음주 시작 연령,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빈도, 절주·금주시도, 음주폐해
		안전의식	안전벨트 착용(자동차), 음주운전 경험(자동차, 오토바이)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걷기 실천, 유연성 운동

영역			조사항목
			실천, 근력운동 실천
		식생활	아침식사 일수, 영양표시 인지·독해·활용
		비만 및 체중조절	본인인지 신장 및 체중 자가보고, 본인인지 체형, 연간 체중조절 시도
		구강건강	주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 경험, 어제 하루 칫솔질 실천, 미충족의료(치과) 경험·이유
		정신건강	수면시간, 스트레스 및 우울감, 정신상담, 우울증상유병, 자살생각 경험·상담·원인, 자살 시도경험·정신상담, 인지 장애 경험
		예방접종 및 검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검진·암검진 수진 경험
		이환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 고혈압, 당뇨병 등
		의료이용	미충족의료 경험, 미충족의료 이유
		사고 및 중독(낙상)	낙상 경험 및 건수·치료, 사고중독 경험 및 건수, 사고중독 원인 및 치료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주관적 건강수준, 행복감지수, 삶의 질(EQ-5D)지수
		사회 물리적 환경	지역 사회 물리적 환경에 대한 태도, 광역 시·도 및 시·군·구 거주기간
		개인위생	식사 전 손 씻기 실천,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 실천, 외출 후 손 씻기 실천, 비누 혹은 손 세정제 사용
		교육 및 경제활동	최종학력 및 졸업상태, 직업 및 종사상지위,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혼인상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행동수칙 준수, 방역수칙 실천,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일상생활 영향, 세부적 일상생활 변화, 심리적 영향,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사

* 출처: 질병관리청(2022), 2021 지역건강통계 한 눈에 보기, p.34

제2절 국외 지역 통계 사례

1. 영국 : Active Lives Survey

가. 조사 개요

Active Lives Survey는 14세 이상 영국 전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신체 활동 및 문화 활동을 포함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에 대한 조사로, Arts Council England, Sports England, Public Health England 및 Department for Transport 등 문화예술, 스포츠, 건강에 관한 영국 정부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설문조사는 2015년 11월부터 5년간 진행되었는데, 우편 및 온라인 방법이 병행되었으며, 전체 응답자는 매년 약 198,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림 5-7] Active Lives Survey 온라인 설문 인터페이스

* 출처: https://surveys.ipsosinteractive.com/mrlWeb/mrlWeb.dll?I.Project=S20028846&i.timeout=120 (검색일자 : 2022.8.24.)

Active Lives Survey는 2005/6년부터 시행된 Sport England 주도의 Active People Survey를 대체하는 통계이다. Active People Survey는 Sports England의 주도하에 지역 차원으로 스포츠 및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로 출발한다. 최초의 조사 표본 규모는 약 363,000명 정도의 16세 이상 성인이었으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후속 연도 조사에서 약 190,000명으로 표본 수를 늘리는 한편 스포츠뿐만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예술 등 문화 활동 참여까지 조사 내용을 확대하게 된다. 한편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 문화 분야 통계인 'Taking Part' Survey와도 지리적 범위와 표본 수, 조사방법 및 내용 등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Taking Part가 16세 이상 10,000명과 5~15세 아동청소년 2,000명을 대상(종단 샘플 포함)으로 한 국가 단위의 공식 정부 통계라면, Active Lives Survey는 20만 명에 가까운 많은 표본 수를 유지함에 따라 기존 국가 단위에 머무는 한계에서 벗어나 영국(엄밀히 말해 잉글랜드) 내 지역 수준의 유의미한 조사통계인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Arts Council England는 세부 지역공간단위와 인구 집단의 문화예술 참여 여부와 그 패턴이 드러나는 이 조사의 결과를 ① 정책 및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 ② 마케팅 및 잠재고객 발굴 수단 개발, ③ 연구 및 평가 프로젝트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조사 방법 및 내용

1) 조사 방법

Active Lives Survey의 표본 추출은 지역 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런던시와 실리섬은 각각 250명, 영국 내 326개 지역에서 각각 최소 500명, 8개의 핵심도시(맨체스터, 리버풀, 리즈, 뉴캐슬, 셰필드, 노팅엄, 버밍엄, 브리스톨)에서 각각 최소 2,000명의 표본 수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Sports England에서 선정한 49개 우선순위 지역은 각각 1,000명을,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의 요청에 따라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노리치 등 3개 지역은 750 표본 샘플을 확보하고 있다.

응답자는 영국 우편번호주소파일(PAF, Post Archive Faction)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게 되는데, PAF는 영국에서 고품질 사회조사를 위한 샘플링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스

이며, Royal Mail[4]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역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별로 계층화하여 추출된다.

각 가구당 최대 2명(만 14세 이상)이 설문조사 대상이 되며, 응답자는 온라인(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포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은 응답자에게 지난 12개월 동안 각 분야의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참여했다면 얼마나 자주, 언제 마지막으로 참여했는지를 질문한다.

2) 조사 내용

Active Lives Survey에서 조사되는 내용은 크게 문화예술 영역과 스포츠·신체활동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측정될 문화예술 참여는 다섯 분야로, ① 예술 참여 1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연극, 음악 또는 공예 활동), ② 예술 참여 2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무용, 연극 또는 음악활동과 관련된 이벤트나 공연 혹은 축제 참여), ③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④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⑤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춤(dance)이 포함된 춤 활동 참여 등이 그것이다. 문화예술 관련 각 질의 항목별 세부 내용은 다음 〈표5-5〉와 같다.

〈표 5-5〉 Active Lives Survey 내 문화예술 관련 질의 항목 및 내용

항목	내용
(예술참여 1)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연극, 음악 또는 공예 활동 직접 참여	• 그림, 예술사진, 조각, 디지털 또는 전자예술/음악, 공예, 음악, 문학, 드라마 및 연극, 카니발, 서커스 및 축제 활동 직접 참여 (거주지 또는 거주지 외, 프로/아마추어 여부 포함)
(예술참여 2)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무용, 연극 또는 음악활동과 관련된 이벤트나 공연 혹은 축제 관람	• 실내 또는 실외 이벤트, 그림·조각·공예·음악·문학·무용·드라마 및 연극·카니발 및 서커스 등과 관련된 공연 또는 축제 관람 (거주지 또는 거주지 외, 프로/아마추어 여부 포함)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 거주지 혹은 거주지 외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여부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 거주지 또는 거주지 외 지역의 도서관 방문 여부, 방문 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및 온라인 도서관서비스 이용 여부(책 혹은 전자책 대출, 도서관정보 접근, 회의 및 행사 참여 등)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춤(dance)이 포함된 활동	• 예술적이고 창의적 춤을 췄는지 여부, 언제 이 활동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의 신체적 강도와 지속시간 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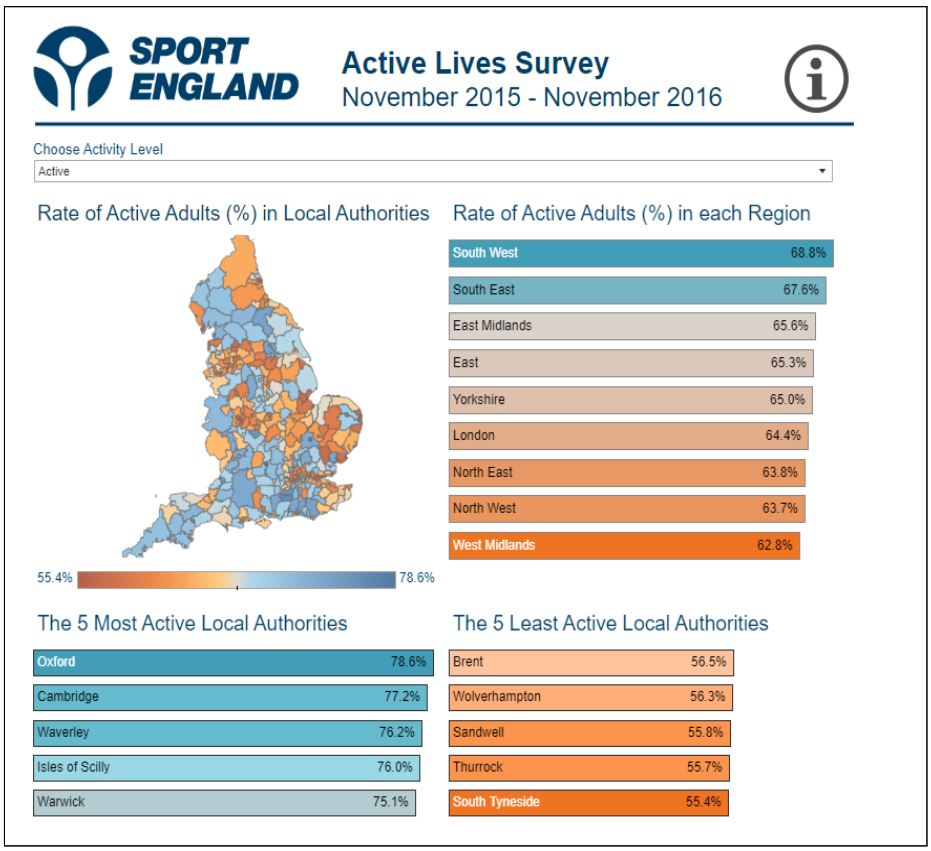
* 출처 : Arts Council England, The Active Lives Survey : Frequently Asked Questions의 주요 내용을 저자 정리

4) Royal Mail은 1516년 설립된 영국의 우편 및 택배회사이다.

스포츠·신체활동 영역의 경우 스포츠 및 주요 신체활동의 참여 여부를 측정하는데 여기엔 걷기, 자전거타기, 정원 가꾸기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스포츠 및 신체 활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도 조사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설문의 기본 항목으로 연령,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근로상태, 교육수준, 종교 등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한다.

[그림 5-8] Active Lives Survey 결과 (활동적 성인)



* 출처: https://public.tableau.com/views/SportEnglandsActiveLivesSurvey/ActiveLivesSurvey?%3Aembed=y&%3AshowVizHome=no&%3Adisplay_count=y&%3Adisplay_static_image=y&%3AbootstrapWhenNotified=true (검색일자 : 2022.8.24.)

2. 프랑스 : Atlas Culture

가. 문화통계 개요

프랑스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는 대중에게 공공문화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열린 데이터(Open Data)'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5] 개인정보(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와 지적 재단권(droit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보호하는 가운데 문화콘텐츠를 더 가치(valorisation des contenus culturels)있게 하고, 확산하고, 순환하도록 하는데 최고의 여건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가 '공공 데이터(données publiques)'에 접근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한 것은 정보의 확산과 나눔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방식을 찾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 문화부는 공공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공공정책의 평가, 공공정책의 개선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연구와 혁신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하다. 문화부문의 공공 데이터는 시민이 문화향유, 청소년 교육, 혁신적 문화서비스 창출에 기여하여 문화민주주의와 지식 전달을 촉진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문화 데이터의 소비 방식과 사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으로 인해 이 데이터의 재사용 문제가 문화정책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의 개방형 데이터 전략(Stratégie Open Data)은 '디지털 공공문화서비스(service public culturel numérique)'의 중요 기반 중 하나이다. 문화 부문의 디지털 공공 데이터 보급 및 재사용은 다음의 6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 ① 우선순위 부서별 데이터 세트 개방, ② 양질의 데이터 확산을 위한 도구 제공, ③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활성화, ④ 문화 데이터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시각화를 장려, ⑤ 공공정보의 재사용과 제도의 진보에 대한 작업에 참여, 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발달

5) 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Innovation-numerique/Faciliter-l-acces-aux-donnees-et-aux-contenus-culturels/Ouvrir-partager-et-valoriser-les-donnees-et-les-contenus-culturels/Ouvrir-et-reutiliser-les-donnees-Open-Data

나. 공공정보 제공의 대표 사례 : Atlas Culture

1) 'Atlas Culture' 개요

공개 데이터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개방과 확산에 대한 노력이 문화 부문에서는 'Atlas Culture'에서 잘 나타났다. Atlas Culture는 프랑스 영토에서 문화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pour comprendre les dynamiques culturelles sur les territoires) 인터넷 사이트이다. Atlas Culture는 2017년 지역 규모의 문화역학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기 위해 DEPS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Atlas Culture는 문화 행위자가 해당 지역의 문화 활동을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참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자신이 받고 있는 자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게 설계가 되었다. Atlas Culture는 광역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레지옹(région) 단위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Atlas Culture는 문화 부문 종사자, 시장에서 문화기업의 비중, 3,500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문화지출 그리고 문화 장소와 시설(극장, 박물관, 도서관, 온실, 공원, 저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지표는 인구에서 젊은 인구의 비율, 중위 생활 수준과 같은 프랑스 전체에 대한 이용 가능한 사회경제적 데이터(특정 데이터에 대한 일부 예외, 프랑스 대도시로 제한됨)와 상호 참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는 Atlas Culture는 현재 18개 프랑스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Atlas Culture에서는 문화공급, 고용 및 직업 그리고 공공문화지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계 데이터를 종합해서 지역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6] 즉 Atlas Culture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프랑스 각 지역의 지도를 바탕으로 시각화된 자료에 함축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문화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돕는 사이트이다.

---

6) 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Etudes-et-statistiques/Publications/Collections-de-synthese/Culture-etudes-2007-2022/Atlas-Culture-dynamiques-et-disparites-territoriales-culturelles-en-France-CE-2022-3

2) ‘Atlas Culture’ 주요 내용 및 구성

Atlas Culture는 지도 제작 도구와 초상화 카드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문화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이다. 이는 2016년에 시작한 ‘공익을 위한 기업가 프로그램(programme Entrepreneurs d’Intérêt Général)[7]’의 일부로 설계되었다. 이는 Etalab에서 추진하고, 담당했다. Etalab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자원에 대한 행정부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행정부 내 시민 참여를 촉진해서 공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Atlas Culture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위 생활수준, 지역의 경제적 상태, 공무원 비율 등 지리적 및 사회·경제적 정보를 상호 참조할 수 있다. Atlas Culture는 71,600개의 장소, 사이트 및 문화 시설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전국 인구 조사가 진행 중인 수천 개의 축제가 추가되어 있다. Atlas Culture는 프랑스 영토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 관련 정보(장소와 제공(lieux et offre), 공공지출(dépenses publiques), 공공정책(politiques publiques), 기업과 일자리(entreprises et emploi))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Atlas Culture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지출과 모든 수준의 관리에 대한 시각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는 다른 지역과 교차 비교할 수 있다.[8] 이러한 것을 대화형 지도(carte interactive)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다.

Atlas Culture는 크게 대화형 지도(Carte interactive), 데이터 비주얼화(Datavisualisation), 지역의 일반 개황 자료(Fiches portraits culturels)의 3개 카테고리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대화형 지도(Carte interactive)

- 문화 장소와 제공(Offre et lieux culturels) : 공연예술(Arts du spectacle), 시각예술(Arts visuels), 영화(Cinéma), 교육과 직업교육(Éducation et formation), 축제(Festivals), 도서, 신문(Livre, lecture et presse), 문화유산(Patrimoine),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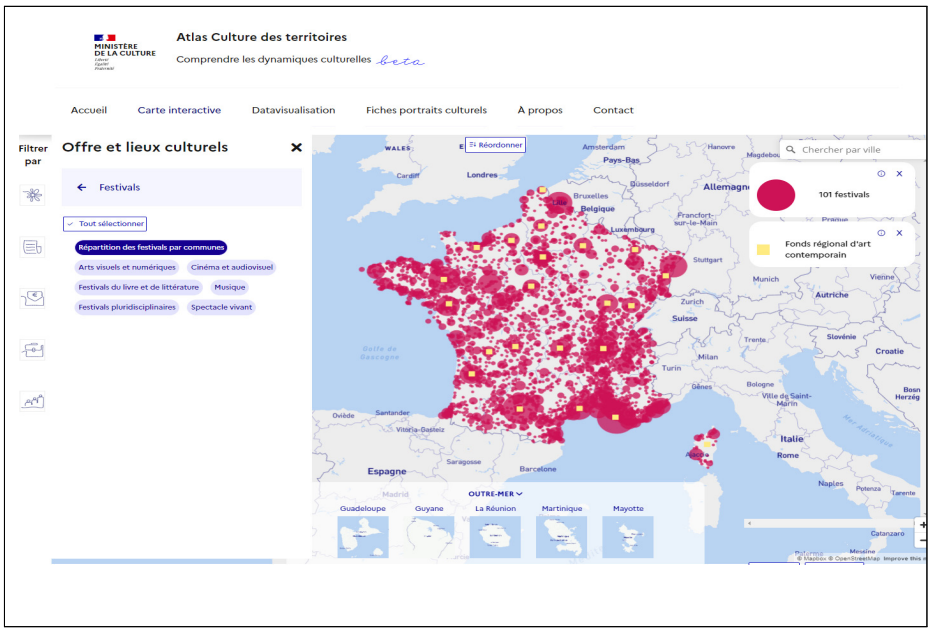
7)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개월 동안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공공활동의 현대화(Transition numérique de l’Etat et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기금의 일환으로 ‘미래 투자 프로그램(programme d’investissement d’avenir)’을 통해 3년 동안 자금을 지원 받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재정법에서 영구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

8) https://www.culture.gouv.fr/Presse/Communiques-de-presse/Le-ministere-de-la-Culture-lance-l-Atlas-Culture-des-territoires

카이브 서비스(Services d'archives)

- 지역문화정책(Politiques culturelles territoriales)
- 문화공공지출(Dépenses publiques culturelles)
- 관련 데이터(Données de contexte)

[그림 5-9] Atlas Culture 내 축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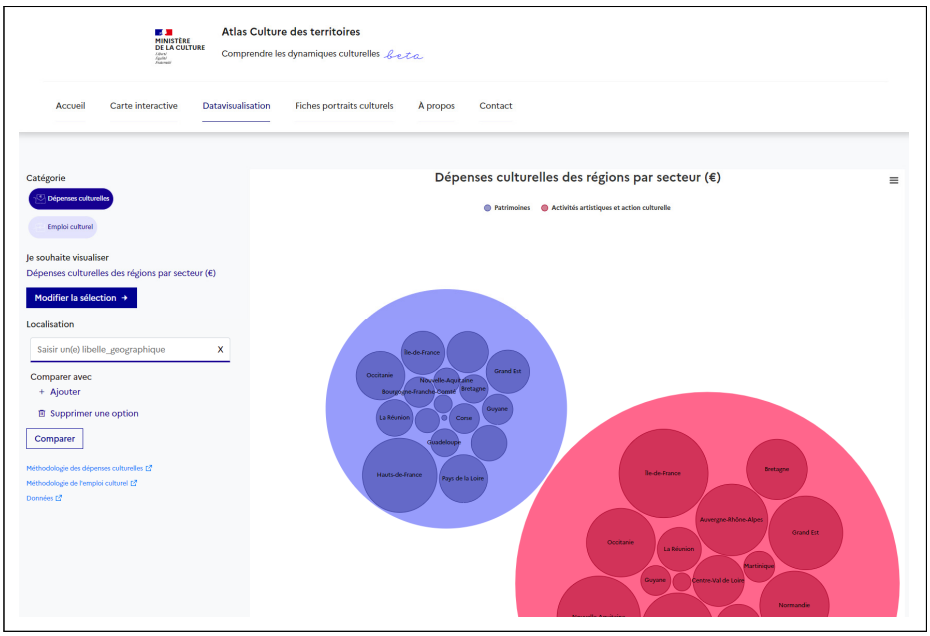
* 출처: https://atlasculture.fr/carte/donnees (검색일자 : 2022.8.24.)

② 데이터 비주얼화(Datavisualisation)

데이터 비주얼화에서는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 문화지출(Dépenses culturelles)과 문화 관련 일자리(Emploi culturel Emploi culturel)로 되어 있다.

문화지출(Dépenses culturelles)은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공공재정통계(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du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고 문화부, 레지옹, 데빠르뜨망, 꼬뮌, 그리고 꼬뮌연합(intercommunalités)에 대해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 관련 일자리(Emploi culturel Emploi culturel)는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림 5-10] Atlas Culture 내 지역별 문화지출 검색



* 출처: https://atlasculture.fr/datavisualisation (검색일자 : 2022.8.24.)

③ 지역의 일반 개황 자료(Fiches portraits culturels)

Atlas Culture는 각 레지옹(région)[9]의 일반 개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 인구, 사회·경제 통계와 문화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표 5-6〉 Atlas Culture의 지역 일반 개황자료 주요 항목

분야	제공통계 항목
인구·사회·경제 분야 통계	지리(Géographie), 인구(Démographied), 생활수준(Niveau de vie), 경제(Économie), 노동시장(Marché du travail), 교육수준(Niveau d'éducation), 삶의 질(Qualité de vie) 문화통계:
문화통계	문화제공(Offre culturelle), 문화 관련 일자리(Emploi culturel), 문화 관련 기업(Entreprises culturelles), 문화 관련 공공지출(Dépenses culturelles publiques)

* 출처: https://atlasculture.fr/fiches-regions 내용을 저자 정리

9) 프랑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행정구역 개편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개편으로 인해서 레지옹(régions) 18곳, 데파르뜨망(départements) 101곳으로 구분된다. 레지옹 18곳은 프랑스 대륙 13곳과 해외영토 5곳으로 되어 있다(18개 레지옹 : France entiere, Auvergne-Rhone-Alpes, Bourgogne-Franche-Comte, Bretagne, Centre-Val de Loire, Corse, Grand-Est, Guadeloupe, Guyane, Hauts-de-France, Ile-de-France, La Reunion, Martinique, Mayotte, Normandie, Nouvelle-Aquitaine, Occitanie, Pays de la Loire, Provence-Alpes-Cote d'Azur)

제3절 시사점

지역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요구가 높아지고 국가적 현안이 됨에 따라 근거 기반의 정책(evidence based policy)을 위한 지역 단위 통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지역 단위의 통계 생산·유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2년 주기로 항목 변경)되고 있는 본 조사 자체가 지역 단위 통계로 설계되었다기보다는 표준화된 조사지표와 매뉴얼을 보급으로 지역 자체 조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우 설계 초기부터 지역 단위의 통계생산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담은 법적 근거(「지역보건법」제4조) 마련, 통계생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역(시·도, 시·군·구)간 통계생산 체계 구축,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 표준화를 기획·추진하였다. 무엇보다도 통계생산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특히 지역 내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통계품질을 관리·개선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조사는 초기부터 지역 단위 통계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된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또한 몇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의 통계 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 영국 'Active Lives Survey'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국가통계인 'Taking par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 조사통계를 별도로 기획·추진하게 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자치·분권이 중앙정부 핵심 정책 의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역 단위 통계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은 데에 따른 지속적 문제 제기의 결과이다.

하지만 지역, 특히 시·군·구 단위까지의 통계 생산·활용에는 여전히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첫째,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확보이다. 광역시도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별도의 통계 조직이 없는 예가 많으며 전담인력 또한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조사의 경우 1977년 최초 실시된 이래 1992년에 최초로 지역사회조

사(경상남도)가 실시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 통계청 차원에서 지역사회지표 매뉴얼이 보급되고 시·군·구 단위까지 지역사회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지자체의 열악한 현실에서 기인한다.

둘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이다. 조사 통계는 생산된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야 하며 시간적·공간적으로 상호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의 표준화, 매뉴얼의 개발 및 안정적 인력 교육, 통합적 통계관리체계 구축 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중앙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최초 조사통계의 기획 단계부터 이들을 염두에 두고 통계생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중앙부처(질병관리청) 내 관리사무국 설치, 시도위원회의 구성, 전문성을 갖춘 기관(대학)과의 협업 추진 등 설계 당시부터 신뢰성 높은 지역 단위 통계 생산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하지만 초기부터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안정적인 통계생산체계를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국의 Active Lives Survey와 같이 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통계생산을 추진(중앙부처 내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 단위까지 포괄하는 충분한 샘플 수 확보 등)하되 이후 지역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생산된 통계의 효율적인 공급과 활용이다. 우리나라 또한 인터넷(혹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통계서비스가 통계청은 물론 각 부처, 유관기관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단위 통계의 개방과 서비스 제공은 통계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프랑스의 'Atlas Culture'는 문화예술 특화 온라인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매우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이며, 2021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종합진단 및 정책과제

제1절 종합진단 및 기본방향

1. 현황 진단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는 직관적으로 잘 이해되는 용어는 아닐 수 있다. 체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게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의에 따라 현재 상황을 종합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는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하는 수집대상의 영역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하는 수집방법(누가, 어떻게 협력하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표 6-1〉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의 진단 영역

구분	내용
지역단위 문화통계프레임	• 문화통계 프레임은 수집되거나 수집해야 하는 문화통계 영역, 문화장르, 문화순환주기 등 통계의 대상을 의미 •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공급 측면과 수요측면의 내용이 포함되는 개념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집관리체계	• 문화통계 수집관리체계는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수집하고 있는 사람, 조직, 행정,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것을 의미

가.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부재

현재 표준화된 시군구 지역단위 문화통계 프레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시군구에서 수집되고 있는 기초통계와 사회조사의 일부 항목으로 시군구 단위 문화통계프레임을 살펴보면, 기초통계에서는 문화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고 있으며, 사회조사에서는 문화수요와 관련된 내용이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2〉 문화통계현황 진단

구분	시장관계	세부 조사 내용
지역통계	공급	• (주요통계) 기본통계 • (조사내용) 공공도서관, 문화재,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민간 체육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 언론매체를 수집 • (특이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할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고 있음
	수요	• (주요통계) 사회조사 • (조사내용) 여행, 문화예술/스포츠관람(온/오프 관람), 레저시설 이용, 신문/독서, 여가활동 등의 내용을 수집 • (특이사항)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문화수요 조사하고 있음
문화분야 승인통계	공급	• (주요통계) 지역문화현황통계 •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조직/인력, 문화프로그램 등 공공의 공급영역을 조사하고 있음
	수요	• **(주요통계) 시군구까지 볼 수 있는 통계 부재** • (쟁점) 여가활동조사, 문화활동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군구 단위까지 볼 수 있는 문화수요관련 승인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문화분야 비승인통계	통합	• (주요통계) 문화기반시설 총람, 전국지역축제총괄표 • (주요시스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문화예술교육사시스템, 문화체육관광자원봉사 시스템 등 • **(쟁점)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주요통계, 주요시스템은 전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공표범위 조정을 통해 시군구 통계를 볼 수 있음**
지역 생산 문화 통계	통합	• (주요지역) 서울, 부산, 인천 등 • (쟁점1)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문화지표체계를 구축하고 문화통계를 수집 중에 있는데, **표준화된 통계체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가 어려운 상황**임 • (쟁점2) 중앙단위의 문화지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리된 것과 달리 지역에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같이 다루고 있음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면, 기본통계는 주로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고, 사회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문화여가활동 참여가 조사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본통계는 문화분야의 축소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조사는 문화관련 정책적 개입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세부적으로 조사되고 있지 않는 점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본통계의 공급측면은 주로 공공영역의 문화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반면, 사회조사는 공공과 민간의 문화수요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수요-공급의 매칭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타 부처 혹은 다른 정책 영역의 통계작성 현황과 비교해보면 지역의 문화통계체계의 부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민계정〉, 〈인구〉, 〈국토이용〉, 〈주거〉, 〈농림〉, 〈보건〉, 〈복지〉 분야의 시군구 통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작성되고 있는 반면, 문화여가와 관련된 통계는 1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문화통계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나마

지역단위로 볼 수 있는 문화통계가 공공부문 문화서비스 여건과 관련되어 있고, 문화수요와 관련된 지역단위 통계는 전무하여 지역의 문화수요를 파악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책대상(시민, 예술인 등)에 대한 조사 통계는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의 통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예술인 피해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자치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예술인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통계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없을뿐더러 시계열적 분석이 될 수 없어 현실의 변화, 정책의 성과 등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한편, 지역에서 주로 관리되고 있는 통계는 행정중심의 문화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통계, 주요 문화정책의 성과와 관련된 통계다. 여기서 또 주요 문화정책 성과와 관련된 통계는 이용자 통계 일부 산출된다는 점에서 수요통계일 수도 있지만, 전체 수요측면에서의 현황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이미 존재하는 정책에 대한 결과적 수요만 조사될 뿐 미래 수요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공급 통계의 부산물 측면이 강하다.

나. 표준화된 문화통계프레임의 부재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근거가 되는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현재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부재는 지역단위 문화통계 개발의 필요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만,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화 내용, 대상에 대한 통계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문화통계체계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우선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보면 문화상품의 종류와 문화상품의 공급 측면, 문화상품의 수요측면이 수집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1) 국가단위 문화통계

지역단위로 수집되고 있지 않지만, 문화통계프레임을 살펴보면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사람, 공급하는 공간, 수요자가 소비하는 상품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서 전체적인 수요-공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

면, 대표적으로 국민의 문화활동을 조사하는 국민문화활동조사의 경우, 국민들이 향유하는 상품으로 문학행사, 인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화상품을 조사하는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에서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만을 제시하고 있고, 문화상품이 유통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문화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등으로 다소간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표 6-3〉 문화통계 장르의 차이

<table>
<tr><th>공급측면</th><th>문화상품</th><th>수요측면</th></tr>
<tr><td>〈문화기반시설총람〉
• (시설)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td><td rowspan="2">〈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 (장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td><td>〈국민문화활동조사〉
• (장르) 문학행사, 인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역사유적지, 축제
• (시설) 시·군·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집,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 공연장</td></tr>
<tr><td>〈예술인실태조사〉
• (장르)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등 14개 분야</td><td rowspan="2">〈여가활동조사〉
– 장르
• 문화예술관람(전시회, 박물관, 음악연주회, 전통예술공연, 연극공연, 무용공연, 영화, 연예공연)
• 문화예술참여(문학행사, 글짓기, 미술활동, 악기연주, 전통예술 학습, 사진촬영, 춤/무용학습)
– 시설
• (문화)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사설문화센터,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대형서점
• (오락문화) 노래방, pc방, 만화방, 클럽, 복합문화 거리 등</td></tr>
<tr><td colspan="2">〈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 문화산업: 출판산업, 음악산업, 영화산업 및 방송산업, 광고산업, 게임산업, 시각그래픽 및 캐릭터
• 예술산업: 문학 및 출판, 공연, 시각예술, 공예</td></tr>
</table>

각 조사의 목적이나 근거법령에 제시된 장르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문화상품이 어떻게 생산되어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문화상품을 목록의 표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다소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영역일 수도 있지만, 문화수요를 파악하는 통계의 응답자 특성도 일관성이 없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정책대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엽적인 문제로만은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가 된

다. 최근 문화정책의 방향이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에서 질적인 면이 강조되는 문화다양성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표 6-4〉 주요 문화수요조사의 응답자 특성항목 비교

구분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생활체육조사	국민여행조사
응답자 특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연령 동거 가구원수 동거자녀 유무 가구주 여부 및 관계 가구주 학력 장애등록여부 경제활동 상태 월 평균소득	교육정도 혼인상태 연령 동거 가구원수 가구주 여부 및 관계 가구주 학력 1주간 경제활동상태 근로시간단축 월평균소득 건강상태	교육정도 혼인상태 자녀현황 가구소득 직업 직업이 없는 경우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현황 가구소득 1주간 경제활동상태 직업 직업이 없는 경우 차량보유여부

2) 지역생산 문화통계

중앙에서 작성하는 문화통계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인해 서울, 부산, 인천 등 몇몇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체 문화지표를 구성하고 통계를 수집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마다 다른 기준의 지표를 생산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보편적 문화여건을 타지역과 비교하는 데는 다소 애로가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지표와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수요조사 모두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문화상품의 분류도 다소간 상이한 면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수요조사의 응답자 특성 항목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비교 등에는 부적절한 상황이다.

〈표 6-5〉 주요 광역자치단체 문화통계 비교

구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문화지표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향유, 문화정책	인문사회환경, 문화기간,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활동, 문화행정, 해양문화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활동, 문화향유
문화예술 장르	미술관, 박물관, 음악공연, 무용공연, 전통공연, 연극공연, 문학행사, 극장영화, 대중공연, 축제관람	미술전시,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문학행사, 극장영화, 대중공연, 거리예술/축제	지역축제, 대중공연, 역사문화유적, 연극/뮤지컬, 미술전시회, 문학행사, 클래식/음악회/오페라/합창, 전통예술행사, 무용

구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문화예술 공간	작은도서관, 거리공연, 독립서점, 복합문화공간, 북카페, 아트플리마켓, 캐리커처	서점,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민간공연장,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문예회관, 공방, 갤러리, 생활문화센터, 사설문화센터, 복지관/청소년수련관, 문화원	광역문예회관, 주민자체센터, 사설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박물관, 기초문예회관, 전시시설, 청소년/여성/노인문화시설
응답자 특성	거주기간, 학력, 직업, 가구특성, 혼인상태, 동거자녀유무, 소득	거주기간, 학력, 직업, 월평균가구소득, 결혼상태, 가구구성 18세 미만 자녀, 장애인등록여부	교육정도, 혼인상태, 자녀현황, 가구소득, 직업, 직업이 없는 경우

다. 수집관리체계의 부재

1) 수집관리체계의 부재

〈표 6-6〉 지역의 문화통계 생산·관리 현황 및 기반

구분		세부 조사 내용
수집 체계	생산관리 현황	• (생산관리여부) 지역 응답기관의 45.9%가 문화통계 수집관리 • (생산통계) 공공문화시설, 지역예술인, 지역문화프로그램, 문화행정 등 공급중심의 통계 생산이 높음 • (문화지표보유) 문화통계 생산·관리 기관의 34.9%가 문화지표 보유
	생산관리 기반	• (법적근거)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27.5%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생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음 • (예산) 일반적으로 문화통계 조사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3.6%로 극히 미미 • (전담인력)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 중 15.7%만이 문화통계 전담인력 확보
제약사항		• 관련 업무체계의 부재 34.9%, 관련 인력의 부족 27.7%, 문화지표의 부재 24.1%

설문조사 결과, 지역문화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역문화통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전담인력 없이 관리자가 계속 바뀌는 구조이다. 따라서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할 경우 지역의 연구기관에 의뢰해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고, 지속관리를 위해 지표체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례로 전북연구원(2015년 연구)에서 지역문화통계 체계구축안을 제안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개별적으로 연구자에게 통계를 요청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조사 체계의 일관성 유지, 효과적인 데이터 큐레이션 및 서비스,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조사 체계에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해당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요자에게 맞춘 큐레이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문화통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활용을 제고하지 못하여

조사 시행의 의의를 높이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2) 통계체계미비로 인한 통계 신뢰성 미흡

한편, 전담인력이나 업무체계의 부재는 통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조사 체계의 일관성 유지,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과 서비스 및 품질관리는 통계자료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 요인이며, 그러므로 자료 관리체계의 운영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지역에서는 문화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지 못하여 타 분야와 비교해 아직 문화통계 분야에서는 수집 및 관리 방식에서의 체계화 및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통계 작성을 위해 목적과 취지, 지표의 정합성을 고려해 자료를 작성하기보다는 복사·붙여넣기의 반복적, 관성적 자료 제출이 일반화되어 자료 제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국가시스템상의 통계정보, 시/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정보, 시/구 홈페이지나 언론에 공개된 정보 등 각각의 정보가 상이한 경우도 나타난다. 게다가 반복되는 통계 자료의 중복 제작은 일선 문화현장의 업무 피로도를 높이며 통계자료를 제출하는 일선 현장의 담당자 역시 통계상 지표 해석, 맥락 파악, 목적과 취지에 근거해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기보다는 형식적 자료 제출을 빈번하게 만든다.

라. 지역문화통계의 해석 오류

지역문화통계 해석상의 오류는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데서 온다. 문화기반시설총람의 통계가 보여 주는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기반시설 설치 비율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통계해석의 오류가 있다. 수도권의 민간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를 단순히 해석하게 되면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공시장 내에서도 국립시설의 수도권 집중, 대형 문화예술 시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때로는 기초자치단체로 분리해서 해석하면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광역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공간적으로 보다 넓은 시도, 그렇지

않은 시도에 따라 상호 공간적 독립성이 높거나 낮은 지역 특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독립성이 낮은 경우 기초별로 통계를 잡아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수립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전처럼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대전예술의전당이 서구에 있지만 유성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지자체에 있다고 접근성을 낮다고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책 수요 진단

가.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

[그림 6-1] 문화통계 수요 IPA분석

지역단위 문화통계영역 중 어떤 영역이 중요한지, 어떤 영역 통계의 도입이 시급한지 알아본 결과, 중요도와 시급성 영역이 모두 높은 영역은 공공문화시설 관련 통계, 지역문화프로그램과 관련된 통계로 나타났고, 시급성은 높은 중요성은 다소 떨어지는 영역으로는 문화행정과 문화향유 관련 통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요성과 시급성 모두 떨어지는 항목은 문화산업과 예술인 및 단체에 관한 통계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자치

단체의 규모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고, 자치단체와 문화재단 간에도 다소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문화재단은 경우 모든 통계에 대한 중요성, 시급성 인식이 월등이 높게 나타났고, 문화재단의 경우, 예술인 통계, 문화향유에 대한 도입 중요성, 시급성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자치단체의 경우 프로그램과 문화행정에 등 공급분야 통계의 중요도, 시급성 인식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급관련 통계와 수요관련 통계가 사용자에 따라 모두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만, 공급관련 통계 중 문화시설, 문화행정관련 통계는 이미 수집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예술인, 문화향유, 문화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가 높고, 공급관련 문화통계는 자치단체에서 접근하기 쉽게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나.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집·관리체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설문조사 결과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6-7〉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집·관리체계 주요 요소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집·관리 체계 관련 주요 요소			
생산범위	생산관리주체	전담조직	협력체계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지역문화기관**	**기초와 광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지역연구기관	중앙과 기초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	자치단체	중앙과 광역
		지역대학	
↕ ↕ ↕ ↕ ↕ ↕ ↕ ↕ ↕ ↕			
중앙의 역할: 업무체계 마련, 예산확보, 관련 매뉴얼, 관련 근거			

먼저 생산 및 공표 범위는 문화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기초자치단체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읍면동 단위까지 문화통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다.

생산관리의 주체는 통계주제(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공공문화시설, 문화여가향유, 문화프로그램 등과 미시적이고 문화예술정책의 핵심적인

대상은 기초자치단체가 생산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문화행정, 문화산업 등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영역은 광역자치단체가 일차적인 생산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통계 업무의 가장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전담관리 인력의 필요성도 높았고, 통계의 일관성을 위한 지역의 문화기관을 전담조직으로 두는 것을 선호하였다.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을 위한 협력체계는 기초와 광역간의 협력체계가 현실적이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집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는 관련 인력 및 업무체계, 재원조달, 관련 매뉴얼, 관련 근거 등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3.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 기본방향

가. 지역단위 문화통계 분류체계(cultural statistics mapping system) 구축

현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여건상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조정을 위한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역문화통계프레임 구축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전국단위로 중앙의 필요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전국단위 문화통계도 통합적인 문화통계프레임에 의해 작성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중앙의 분절적 문화통계는 인위적 결합을 통해 어느 정도는 전국의 문화통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단위 문화통계는 지역을 조망하기에는 다양한 층위에서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은 중앙과 지역의 연구 협력을 통해 통합적 문화통계지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나. 지역단위 문화통계 거버넌스(cultural statistics governance) 구축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집을 위한 표준적 참조가 되는 지역단위 문화통계지도체계를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문화통계가 수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역의 여건을 진단해보면 문화통계를 통합적으로 생산·관리할 인력, 조직, 예산도 존재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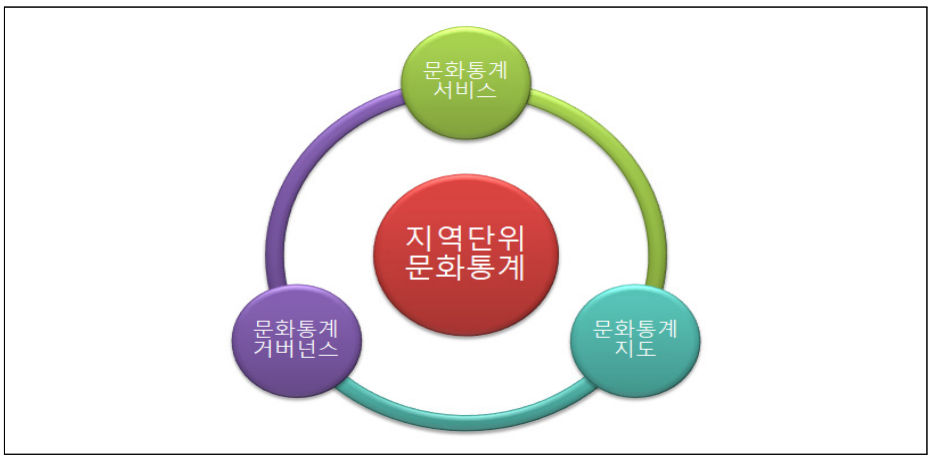
는다. 이는 문화통계지도가 잘 구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균질적으로 문화통계를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중앙 혹은 광역의 제도적 압박을 통해 기초단위 문화통계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수집된 문화통계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예산, 인력, 조직, 협력,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 지역단위 문화통계 서비스(cultural statistics service) 강화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생산은 궁극적으로 그 활용의 효율성과 선순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활용이 없는 생산은 지역의 문화통계 지속적 생산 의지를 희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화통계의 필요성은 지역 간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자기 지역의 모자란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지역단위 문화정책의 생산관리에 긍정적으로 환류될 수 있다. 한편, 지역의 문화통계정보는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는 문화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다. 다만, 필요한 문화통계(예를 들면, 지역의 문화수요 통계)가 빠져있거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지역 단위 문화통계의 생산-유통-활용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

[그림 6-2]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기본 영역



제2절 정책과제

1. 지역단위 문화통계 분류체계 구축

가. 지역단위 문화통계지도 개발

1) 배경 및 필요성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통계를 수집해야 할지에 대한 표준적인 참조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표준 참조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문화현황통계가 현재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참조체계로 기능하고 있지만,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포괄하지 못하고 행정통계 중심으로 구성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문화통계지도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추진 방안

① 표준 지역문화지표 개발

사실상 지역문화통계지표체계와 가장 유사한 문화분야 통계는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되고 있는 국가 승인통계인 지역문화현황통계이다. 다만, 지역문화현황통계도 문화장르, 문화시설, 조사주기 등에서 다른 문화관련 통계와 일치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다른 문화통계와의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문화현황통계는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화수요 부문과 민간 시장영역의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 지역문화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의 충분한 소통 과정이 필요하고 지역마다 특성화 지표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핵심 공통항목과 지역의 특성화 항목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표 6-8〉 문화순환주기, 영역을 고려한 지역단위 문화통계프레임(안)

구분		시장	
순환주기	조사대상	공공시장	민간시장
창작/생산	개인	예술인	문화사업체 (민간문화시설)
	단체	법인단체	
	유산/축제	문화유산,문화축제	
유통	인프라	문화기반 시설	
		생활문화 시설	
	인력	시설종사자	관련종사자
		매개인력	
향유	일반	문화 참여	문화소비
	복지	복지계층 문화 참여	
정책지원	예산	문화예산	문화예산
	제도	문화조례	문화조례
	조직	문화 진흥기관	문화관련 조직
여건 및 인식	여건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시간, 여가비용
	인식	문화여가 인식 문화여가 만족도	문화여가 인식 문화여가만족도

② 지역 문화통계 표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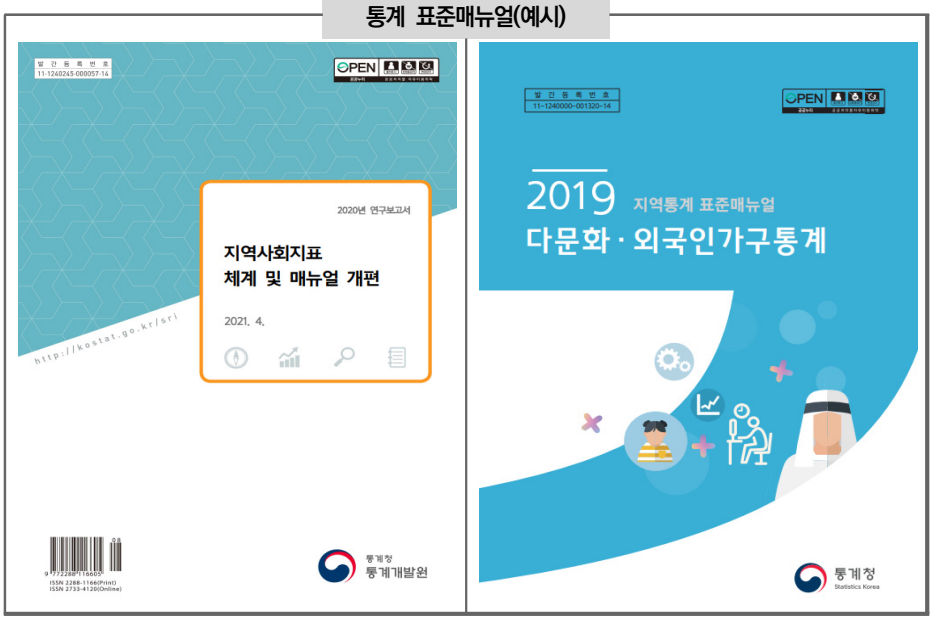
현재 다양한 조사에서 활용되는 문화장르와 문화시설이 조사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체부가 생산하는 통계는 물론 타 부처(예를 들면 행안부 등)에서 통계를 제공하는 문화장르, 문화시설의 동일하지 않아, 통계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독자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으로 문화통계프레임이 설정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사 설계가 이루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모든 통계가 동일한 문화장르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위계적이고 배타적으로 장르가 구분되어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단위 기본계획에 맞춰 지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게 지난 계획의 평가이다. 지난 계획 기간에 문화 분야 주요 지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행정통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마다 조사주기가 달라 지역문화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자료의 시기 적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가 매년 실시되어 이후 계획에서는 활용할 수 있으나, 다른 조사는 여전히 법정계획 수립 시기와 동떨어져 진행된다.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처

럼 매년 실시하거나, 아니면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와 연계하여 지역단위 문화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지역 문화통계 매뉴얼을 통해 중앙, 광역, 기초 간 문화통계 항목, 조사시기 등의 불일치를 줄이고 정합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역 간 비교의 용이성으로 인한 통계 활용도 높아질 수 있다.

통계 표준매뉴얼(예시)



나. 지역단위 문화수요 통계 개발 및 확산

1)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지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통계는 행정중심의 문화서비스 공급, 주요 문화정책의 성과와 관련된 통계다. 주요 문화정책 성과와 관련된 통계는 이용자 통계(예를 들면, 문화기반시설 이용객 현황) 일부 산출된다는 점에서 수요통계일 수도 있지만, 이용객 산출방식의 전체 수요측면에서의 현황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용객 산출방식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신뢰성의 문제, 현상을 일부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급 통계의 부산물 측면이 강하다.

중앙중심으로 수집되고 문화수요와 관련된 통계는 문체부 부서별, 직속·산하 기관별로 다양한 세부 조사를 독립적으로 분산 실시함에 문화수요에 대한 입체적인 파악이 어

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앙에서 수집하는 문화수요 통계는 표본수의 한계로 인해 기초단위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광역단위에서도 독립적인 문화수요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단위 문화수요 통계 조사는 서울, 부산, 인천 등 대규모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조사 간에도 차이가 있어 지역 간의 비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자체적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화향유의 기본 영역에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문화수요조사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2) 추진방안

① 지역단위 문화여가향유조사 개발

문체부 부서별로 문화수요 관련 조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조사간의 차이나 위계가 불분명하다. 대표적으로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생활문화실태 조사, 국민여가활동 조사, 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에서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조사하는데 문화예술교육실태조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생활문화실태 조사와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국민여가활동 조사에서 비슷한 조사가 다른 문항으로 조사되며, 지역별로는 사회조사에서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진다. 그런데 조사항목이 조금씩 다르고, 조사방법이 달라 결과의 일관성을 찾기 어렵고 어떤 조사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인지도 알 수 없어 지역에서는 어떤 조사를 활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조사 결과를 놓고 자기 지역에 유리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여가활동 조사를 신규로 개발하여 매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매년 이뤄져야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고, 통합해서 조사하여야 자기 지역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문항 뿐 아니라 조사관련 표준매뉴얼을 함께 개발하여 지자체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래 정책방향에 따라 필요한 통계가 많은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문화통계가 한정적이다 보니 문화정책의 트렌드, 흐름에 따라 주목해야 할 사안을 통계 데이터를 통해 검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문화정책 분야에서 문화다양성이 중요 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가 지역적 차원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아서 관련 현황이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이 필요하다. 덧붙여 증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변화에 조응한 지역 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사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향상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조사 분야를 발굴하는 노력도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

〈표 6-9〉 지역 문화여가 조사 개요(안)

구분	내용
조사목적	• 자치단체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여가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문화여가활동 수준과 문화여가활동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지역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 해당 자치단체 내 가구 조사(지역별 최소표본 산출 및 적용)
조사항목	• 공통항목 : 연구를 통해 핵심 공통항목 도출 • 특성항목: 자치단체에 따라 특성화 문항 추가

② 지역단위 문화활동 합동조사 추진

중앙과 지역이 공동으로 필수 문화통계 주제를 선정하고 개발한 후 예산 매칭을 통해 중앙과 지역 간 비교 가능한 통계를 생산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단위 문화수요조사를 모든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매칭사업으로 시범사업 후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근래의 문화정책의 흐름을 감안하면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예술교육조사」 등은 국민의 여가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상당히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의 내용은 지역 문화현장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지역 표본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역의 내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중앙과 지역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을 통해 동일 기간 동안 필수 문화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의 사업추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문체부가 전국 조사와 관련한 예산을 마련하고, 지역에서는 추가되는 지역조사 관련 예산을 매칭하되, 기초 단위로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내용에도 지역특성화 질문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문화영향평가가 처음 진행되던 당시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시범 평가하던 예가 있다. 지역에서는 추가되는 조사규모와 관련한 예산만 책정하면 되므로 큰 부담이 없지만, 기초 단위 조사통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사통계의 지역 세분화에는 최소표본이 문제가 되는데, 영국의 Active lives

Survey를 참조하여 지역의 인구수별 최소표본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모집단과 상관없이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지역별 최소표본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표본오차는 모집단 모수(N)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매우 적고, 표본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25개의 표본이면 상대표준오차 20%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집단(sub-population)의 측정값으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읍면동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년 8월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표본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0〉 목표상대표준오차별 지역별 최소표본

구분	목표 CV(5%)	목표 CV(10%)	목표 CV(20%)
서울특별시	9,998명	2,500명	625명
부산광역시	6,390명	1,600명	400명
대구광역시	3,196명	800명	200명
인천광역시	3,986명	1,000명	250명
광주광역시	1,999명	500명	125명
대전광역시	1,999명	500명	125명
울산광역시	1,999명	500명	125명
세종특별자치시	400명	100명	25명
경기도	12,387명	3,100명	775명
강원도	7,137명	1,800명	450명
충청북도	4,370명	1,100명	275명
충청남도	5,973명	1,500명	375명
전라북도	5,553명	1,400명	350명
전라남도	8,734명	2,200명	550명
경상북도	9,120명	2,299명	575명
경상남도	7,159명	1,800명	450명
제주특별자치도	799명	200명	50명
총계	91,199명	22,899명	5,725 명

* 주: Butcher, B. & Elliot, D (1986). A Sampling errors manual
0.00% ~ 4.99% : 매우 우수(Excellent), 5.00% ~ 9.99% : 우수(Very Good)
10.00% ~ 14.99% : 좋음(Good), 15.00% ~ 24.99% : 허용 가능(Acceptable)

2. 지역 문화통계 거버넌스 구축

가. 지역 문화통계 법적 근거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향후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계 수집·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단위 통계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중앙은 물론 지역에서도 관련 근거의 부족으로 문화통계 관련 예산 및 추진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적근거를 더욱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추진방안

①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

지역 문화통계 수집의 추진기반이 법률개정과 관련해서는 통계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화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입력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승인통계명: 지역문화현황통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행정통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추가적으로 지역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가칭) '지역 문화여가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년 단위 정기조사(현재의 지역문화실태조사) 외 실시할 수 있게 규정된 수시조사 내용을 연 단위 정기조사(지역 문호여가 조사)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한다.

〈표 6-11〉 (가칭) 지역 문화여가조사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현재 법률	개정 법률(안)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광역시도와 공동으로 매년 지역 문화여가 조사를 실시한다.**

②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등에 지역 문화통계 관리 계획 반영

지역문화진흥법 제 6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10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데 모든 영역이 통계와 지역단위 통계에 근거해 수립될 수밖에 없는 계획들이다. 따라서 10의 항목을 포함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역단위 문화통계와 관련된 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지역문화통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제13조의 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표 6-12〉 지역 문화통계 관리계획 내용

구분	내용
목표	• 지역 문화통계 관리 목표를 설정함 – 지역 문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근거기반 확립 등
기본방향	• 지역 문화통계 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 정책수립, 추진과정 모니터링, 정책 평가 등의 경험적 기초자료 구축 – 대국민 통계제공을 통한 문화정책의 이해 제고 – 정책추진과정의 효율성 증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문화정책 영역의 총괄 및 각 영역별 문화정택 통계의 문제점 파악 – 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상 문제점 파악 –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신뢰성, 포괄성 등을 파악
중점추진과제	• 문제점에 기초하여 관리계획을 통하여 추진할 중점 과제 – 통계관리의 주체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통계내용에 관한 사항 – 통계 관리를 위한 외부환경에 관한 사항 등
개선 통계 발굴	• 향후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시 – 분야별 세부 통계 항목의 개선 과제에 관한 사항 – 신규 필요 항목에 관한 사항 – 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의 계획 등

③ 지역 문화정책과 지역 문화통계의 연계

지역의 문화통계 역량 향상 및 문화통계 관리 의지를 향상하기 위해 중앙에서 계획하는 기본계획, 중앙의 지역문화정책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통계지표체계에 따라 지역에서 작성한 통계수치를 활용하여 선정하고, 추후 성과평가 등도 문화통계지표체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에서는 정책적 긴급성에 따라 문화통계를 수집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정책사업, 지역의 문화시설 평가사업 등과 지역문화통

계를 연계하여 지역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줌으로써 지역의 문화통계 수립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3〉 지역문화정책과 지역 문화통계의 연계 방식(예시)

구분	내용
문화시설 운영 평가	• 문화시설 운영평가에 문화통계관련 지표 추가 • 특히, 문화시설의 경우 자료, 프로그램, 고객 영역의 통계 지표 추가 고려
자치단체 대상 정책사업 (문화도시사업 등)	• 자치단체 선정 평가 항목에 문화통계지표체계에 존재하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반영 • 정책사업 성과평가 등에도 통계기반 정책평가 강화

영국의 문화 분야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협약 사항의 성과지표에는 박물관 극장 등 문화시설의 성과측정은 다음과 같은 성과자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지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관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표 6-14〉 영국 문화시설 성과지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지표
접근성	• 박물관/미술관 실제 관람자 수 • 웹사이트 방문자 수
관람자 프로파일	• 16세 미만 영국 국적 어린이 관람자수 • 16세 이상 영국 국적 관람자수 • 16세 이상 영국 국적 소수민족 관람자 수 • 16세 이상 장애가 있거나 만성 중증 질환이 있는 관람자 수 • 해외 관람자 수
교육/원조	• 정규 교육 과정의 16세 미만 어린이 직접 방문수 • 현장의 교육 및 암여 활동에 참여한 16세 미만 어린이 사례수 • 외부 봉사 활동에 참여한 16세 미만 어린이 사례 수 • 교육 및 참여 활동에 참여한 16세 이상의 성인수 • 외부 봉사활동에 참여한 16세 이상의 성인 사례수
고객만족	• 몇 %의 방문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방문을 추천하는가
수입창출	• 관람티켓 수입 • 기타 상품판매(대관, 라이센싱, 컨설트, 머천다이징을 포함) • 기부
지역관계	• 장소 대여 횟수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체계 개발 연구 재인용

나. 지역 문화통계 전담기관 및 협력체계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지역 문화통계의 생산·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 문화통계의 생산·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협력체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지역 문화통계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에서라도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총괄할 조직을 지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작업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과 자료 조사, 수집, 취합, 검토,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자체 담당자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지속적인 지역단위의 통계의 생산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문화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당연히 전담관리 조직이나 인력, 예산 등이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문화통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역 자체적으로 문화통계와 관련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거버넌스 체계의 밑그림은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추진 방안

① 전담인력 및 조직 지정, 상향식 통계 관리체계 구축

지역 문화통계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 우선 완결된 형태, 상호운용이 가능한 형태의 문화통계의 수집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계획 및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누가 문화통계 관련 일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문화통계가 제대로 수집 및 통합되지 않으면 모든 문화통계 관련 계획들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이전부터 문화통계에 대한 파편적 수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이 없어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및 인력 지정,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행정체계를 따르면 데이터 총괄 관리 및 조정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해야 하고, 중간 협력 및 생산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 생산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구조를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 주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15〉 상향식 문화통계 관리체계

구분	통계 관리 주체	역할
지역 문화통계 총괄 관리 및 조정자	문화체육관광부,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문화통계프레임 및 표준 매뉴얼 개발 문화통계 법/제도 조정 문화통계 보조사업 추진 문화통계 역량 강화 지원 문화통계 서비스체계 운영
지역 문화통계 중간 협력 및 생산자	광역자치단체,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중앙,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광역단위 문화통계 생산 및 관리
지역 문화통계 최초 생산자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기초단위 문화통계 생산 및 관리 중앙, 광역 담당자와 교류 및 소통
	기초단위 문화통계 관련 협력체계 (시설, 장르, 영역별)	조사 영역 관계자 간 협의

② 지역 문화통계 부처 간 협력체계 마련

앞서 현황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면, 타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문화활동 활용시설(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복지관 등)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리고 문화산업영역으로 옮겨가거나 하면 타 부처 데이터에서 문화 분야를 추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타 부처에서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지만, 문체부가 문화 분야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타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활동, 문화산업들에 대한 통계도 연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문화관련 통계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시스템에 타 부처의 통계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문체부와 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문화관련 통계정보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표준화도 필요하다. 그간에 문화분야 통계의 가장 난제 중 하나는 문화예술 분류체계를 공식화되지 않은 점이다.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을 전제로 조속히 **문화예술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지역 문화통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재 지역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역단위 통계의 중요성 인식 부족 및 관리 역량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줄 임시조직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협의체,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는데,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역 문화통계체계를 세워줄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역 문화통계체계의 구축과 개선을 위한 계획 등의 수립, 평가, 조정 등의 체계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표 6-16〉 지역 문화통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구분	내용
기능	지역 문화통계 연간 관리 계획, 지역 문화통계 표준화, 시스템 개선 등
구성	시도 및 시군구 지역 문화통계 담당자, 지역연구원, 학계전문가 등
운영	반기 1회 정기 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다. 지역 문화통계 역량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문화 분야 유일의 지역 문화통계인 지역문화현황통계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역의 통계 역량에 따른 입력편차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의 통계 역량이 높은 경우, 입력 자료가 풍부해져 자치단체의 문화적 여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담당자의 역량이 낮은 경우 있는 자료도 누락하여 자치단체의 문화적 여건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에서는 문화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자료 축적의 과정을 체계화 과정에 미진한 반면, 중앙에서는 다양한 주제 안에서 문화통계를 생산하고, 자료의 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정교화해 왔으며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조사 체계를 지속 보완해 왔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선제적으로 축적해 온 문화통계의 생산·관리의 노하우와 역량을 지역과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 역량의 편차에 따른 통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 문화통계 역량 강화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추진 방안

① 자치단체 통계 전문성 강화 지원

지자체 문화통계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종사기간이 짧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통계 작성매뉴얼을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작성 매뉴얼에는 작성대상(범위), 작성 기준, 용어설명, 산식, 공표범위, 공표시기 등

자료출처에 따른 메타정보, 자료 출처(원자료 보유기관과 부서명), 자료출처의 상세한 경로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최소한 광역수준까지는 지역 단위 문화통계 전담기관을 두고, 문화통계 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은 지역 문화통계 표준화의 의의 및 필요성, 작성 방법,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교육 등이다. 다음으로 최근 데이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의 문화기관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문화행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데이터를 다루는 지역의 문화시설 관계자들의 ICT, 빅데이터 관련 전문 지식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표 6-17〉 지역 문화통계 교육 대상과 내용

구분	내용
자치단체 공무원(광역, 기초)	• 지역 문화통계실무, 지역 문화통계 작성,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등
전담기관(광역)	• 지역 문화통계실무, 지역문화통계 작성,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등 • 문화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주요 문화시설 담당자	• 지역 문화통계실무, 지역문화통계 작성,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등 • 문화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② 자체 문화통계 품질관리 및 문화통계 컨설팅

지역문화현황통계의 경우 시군구 단위의 유일한 문화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입력이 달라져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문화통계는 중앙에서도 필요한 통계지만, 일차적으로 지역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통계이므로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시도에서 지역문화실태조사 수행 시 시군구의 자료를 대상에 대한 자체 품질진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도입하여 스스로 문화통계 역량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문화현황통계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도 기본통계 자체 품질진단〉
- 1단계: 진단항목(시군구와 협의여부, 시군구 자료와 비교 여부 등) 검토를 위한 시도 자체 품질진단 시범 실시
- 2단계: 시도 자체품질진단 실시

문체부에서는 지자체 대상 문화통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치단체 통계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통계 자생력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

3. 지역단위 문화통계서비스 강화

가.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1) 배경 및 필요성

지역단위 통계, 데이터의 분산과 파편화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2021년부터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2022년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인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문화정보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다는 점,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통계체계에 큰 진전이 있었다. 다만,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체계화되지 않은 문화통계, 문화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 문화통계와 문화데이터가 갖는 한계점을 동일하게 갖는다. 또한 현재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문화정책 의사결정자만을 고려한 설계로 국민의 접근성은 제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추진 및 개선 과제

① 분류체계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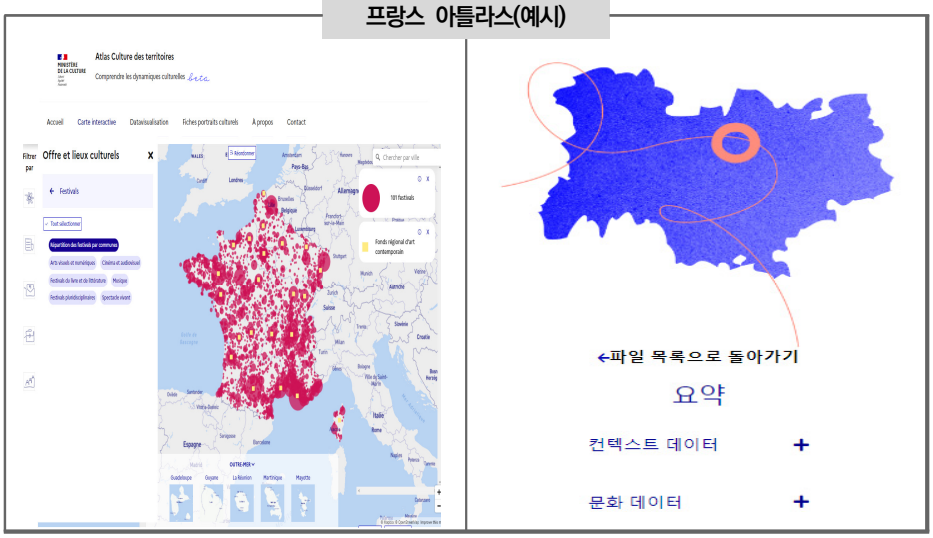
지역문화종합시스템의 내부업무지원시스템의 지역문화정보현황판을 보면 보조금 현황, 지역문화지수현황, 관람객/방문객 현황, 종합현황, 지역별 현황, 지수 시뮬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지역문화현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종합현황에도 문화시설, 예술인, 공연, 관광객 현황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지역문화의 종합지표라 볼 수도 없다. 여건상 수집 가능한 통계정보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지역 문화통계지표체계의 구축과 연계하여 현황판 목록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e-지방지표 사례를 참조하여 지자체간 비교 분석이 가능한 주요 지역 문화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설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확대

연구자나 공무원만 활용이 가능한 정책의사결정 통계시스템을 지역주민, 국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존의 문화통계들

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책 관계자가 아닌 대국민 서비스는 개발되어 있지 않아, 통계의 개방성이 미흡한 상태다. 그리고 주제별, 지역별 교차 검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별 문화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프랑스의 'Atlas Culture' 의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별로 어떤 문화장소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정보(아래 그램에서 문화데이터)와 관련정보(아래 그램에서 컨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의 종합적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프랑스 아틀라스(예시)



같은 맥락에서 현재 지역단위로 공표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청에서 경제총조사, 등록센서스, 전국사업체 조사 등 지역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기반 생활밀착형서비스(정책통계지도, 살고 싶은 우리동네, 우리동네 생활업종 등)를 제공하는 것 같은 방식의 서비스 고민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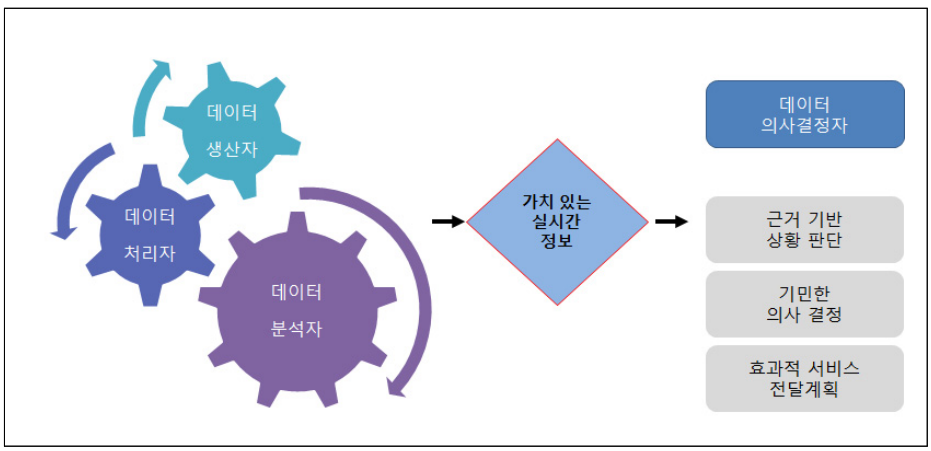
③ 지역 맞춤형 정책자료 분석 제공

지역의 문화통계 역량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간 통계역량 격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요청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에서 지역 맞춤형 문화통계 분석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로 맞춤형 정책자료 분석을 위한 모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계는 특성상 정량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게 되므로 일정 수준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분석모델이 정착되면 시스템에 탑재하여 자동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분석모델 개발 등을 위해서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전담조직(시스템 관리조직) 혹은 외부 협력조직(분석협력조직)을 활용해야 하므로 문화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통계의 가치는 활용을 통해 실현되는데 통계 및 데이터의 생산, 저장, 분석자, 활용자의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통계정보의 가치가 반감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통계 정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통계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자료 분석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통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림 6-3] 문화데이터 가치 실현 거버넌스를 통한 데이터 활용



* 자료: 장훈(2020) 공공문화시설 수요 데이터 수집체계 수립 연구

나. 지역 문화관련 통계정보의 확대 및 다각화

1) 배경 및 필요성

지역문화통계시스템은 현재 수준에서 수집가능한 문화통계와 인구통계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 문화수준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과 관련된 정보의 미흡함으로 인해 문화 분야에 국한해 시각이 좁아진다. 다양한 의사결정 및 연구 수행에 있어 문화적 환경 외에 살펴보는 인구/사회환경, 경제산업환경, 지리/

기후환경 등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지역 문화정책수립이 보다 입체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추진과제

① 지역 문화수준 관련 요인 통계 연계 제공

지역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혹은 영향을 받는 시군구 단위 통계 등을 검토하여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단위 통계 중 가장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관련된 통계정보뿐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수준과 건강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인구·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영역의 건강 결정요인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관련 요인 데이터베이스

참고로 지역문화종합지수와 e지방지표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전입인구, 전출인구, 신혼부부 수, 혼인 건수, 유치원 원아 수, 초등학교 학생 수, 초등학교 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전산업 사업체 수, 서비스업 사업체 수, 흡연율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영역(유치원 원아 수, 초등학교 학생 수, 초등학교 수)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상관관계가 좀 더 높았으며, 흡연율과 지역문화종합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문화적 여건이 좋은 것이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지역문화종합지수와 e-지방지표의 상관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석에는 유의해야 한다.

〈표 6-18〉 지역문화종합지수와 e-지방지표와의 상관

상관 구분	분야	e-지방지표
정적 상관	인구, 가족	전입인구, 전출인구, 신혼부부 수, 혼인건수, 유치원 원아 수 초등학교 학생 수, 초등학교 수
	재정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산업	전산업 사업체 수, 서비스업 사업체 수
부적 상관	건강	흡연율

② 시군구 단위 수집 통계 추출 및 시스템 공표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통계의 지역 세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전국단위 문화분야 승인통계, 비승인통계, 문화통계시스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분화가 가능한 통계들은 지자체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문화통계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통계 개선 방안 보고주체(대상)를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다. 보고체계상 보고주체가 시도 또는 시군구인데도 전국 단위 또는 시도단위로만 공표하고 있다면, 보고주체에 맞춰 공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고주체가 사업체 단위이나, 사업체가 전 지역에 있는 경우, 공표의 범위를 세분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문화산업과 문화일자리는 문화통계의 대표적인 항목이고, 광역시도의 수요가 많은 통계이므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계정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통계는 2가지 형태인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특징에 따른 개선방안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대상통계 중 전수로 조사되고 있음에도 공표 단위가 전국만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 경우 통계의 상황에 맞춰 공표 단위를 시도 또는 시군

구 단위까지 공표범위를 세분화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대상통계가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설계 방법과 표본오차 수준을 검토하여 세분화하여 공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 조사통계 세분화 수요도 많으나, 표본 수 증가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과 통계의 시의성 문제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 문화활동조사의 경우 지역의 통계수요가 많고, 문화 분야에는 대표적인 지역은 통계가 전무하므로 추가적 조사비용을 들이더라도 조사의 당위성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추가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매칭으로 합동조사를 진행하면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9〉 시군구 정보제공 검토목록(예시)

구분시군구 정보 제공 목록	시군구 정보 제공 목록	시군구 정보제공 검토 목록
문화재정 및 종합	• 문화예산, 보조금 현황 • 지역문화지수(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프로그램 지표)	
문화인력	• 예술인 현황	• 문화매개인력(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강사,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예술자원봉사자 등)
문화시설	• 문화기반시설 현황 • 문화재 현황 • 도서관 소장현황	• 지방문화원 자료 현황
문화프로그램	• 공연 현황	• 지역축제
문화향유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국정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 현안에 대한 지역단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지역통계의 중요성 증대하고 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맞춤형 지역통계 작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의 문제를 지역단위 문화통계의 작성현황, 지역 문화통계의 분류, 지역 문화통계계의 수집관리체계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군구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지역단위 문화통계 작성현황의 경우, 일종의 지역 문화통계지표로 볼 수 있는 지역문화현황통계가 유일하다. 다만, 지역문화현황통계는 모든 문화통계적 요소를 고려해서 개발되었다기보다는 문체부에서 지역문화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개발된 측면이 강해 지역 문화생태계 전반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표준 문화지표체계로서 미흡하다고 진단되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의 민간 문화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민간 문화생태계,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작성하는 문화산업통계, 문화향유통계가 시군구 단위까지 공표되지 않거나, 시군구 단위까지 보기에는 표본수가 적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문화통계 분류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문화장르, 문화시설, 조사주기 등에 대한 표준적인 참조점이 없어 각 통계별로 문화장르, 문화시설, 조사주기 등에서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문체부 내부 통계간은 물론 문체부와 문체부 외 타 부처에서 사용하는 문화 분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별로 유사한 항목이 존재하는데, 통계 간 불일치는 일정부분 표준적인 분류와 조작적 정의의 부재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문화통계의 수집관리체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화통계와 관련된 전담인력, 조직, 협력체계 등이 거의 전무하여 문화통계의 수집관리는 물론 수집된 문화통계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결과와 국내외 사례를 참조하여 **표준화된 지역단위 문화통계분류체계 개발 및 확산**, **지역 문화통계 거버넌스 구축**과 병행하여 **지역 문화통계 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준화된 지역단위 문화통계분류체계의 개발 및 누락 문화통계의 개발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준적인 참조 점이 없어 문화통계 간의 불일치, 일부 문화통계의 누락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조정하지 못해 체계적이지 못한 문화통계가 생산·유통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통계가 지역의 문화생태계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작업이므로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문화향유와 관련된 지역단위 통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역단위 문화향유를 볼 수 있는 문화통계의 개발과 확산이 매우 시급하다.

두 번째로 지역의 문화통계가 균질적으로 수집·관리 될 수 있는 체계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고 하더라도 각 요소별로 정확히 관리되지 않으면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근거, 전담인력, 전담조직,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문화통계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간 비교가 가능한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관련해서 지역 수요조사 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법적근거, 업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전담할 기관으로 지역의 문화기관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문화통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분산된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문화종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과도기적 시스템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문화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통계수집관리 필요성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현재 문화분야의 통계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 중앙차원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설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의성, 정확성, 활용성이 높은 지역 문화통계의 생산·관리·활용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문화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과제는 문화통계 간 소통이다. 다시 말하면 통계를 관할하는 부서 간의 소통과 조정이다. 부서, 소관 법률, 소관 통계 간의 칸막이는 문화통계의 표준 프레임 구축을 제약하고 있다. 문화통계로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문화정책 최소한의 근거는 될 수 있는데, 현재의 문화통계는 정책의 근거로 작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여 지역 문화통계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지역에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식화하지 않으면 표준이 되지 못한다. 공식화한 분류에 오류가 생기면 추후 수정 개선해 나가면 된다.

두 번째로 지역 문화분권을 넘어 자치로 가기 위해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지역문화통계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다른 모든 문화정책, 다른 모든 분야의 정책에서 늘 제기되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 중앙 중심주의는 문화통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만 볼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공표하고 있다.

중앙이 정보를 독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예술인 등록 현황'을 꼽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의 세부 통계를 알 방법은 사실상 없다.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일원화된 예술활동증명 등록 절차를 광역지자체별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문화통계에서 그러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전국단위 통계 설계와 결과공표다. 중앙의 입장에서 중앙에서만 활용 가능한 통계 생산을 지속해왔고, 지역은 중앙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에서 작성하는 문화통계가 지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시군구 단위까지 볼 수 있는 통계도 거의 전무하다.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문화통계는 전국범위에서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나, 시군구 단위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 스스로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는 지역 스스로 지역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문화통계를 제대로 생산해 내는 일이다. 현 상황에서 지역의 역량이 매우 미흡하여 얼마간의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이 독점하던 통계를 중앙과 지역이 공동 생산·관리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이양이 필요하다. 즉,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하향식 통계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상향식 통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에 입장에서도 지역의 다양성과 균형을 보다 미시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정확하게 수집된 문화통계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순필, 김서영, 이정희(2011).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소지역 추정 방법 연구. 통계개발원.
- 김용렬, 김경덕(2008). 농촌 지역 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남상민, 심수진, 김샛별(2020). 지역사회지표 체계 및 매뉴얼 개편, 통계개발원.
- 박현정, 홍현정(2010). 지역통계 수요와 공급간의 매칭연구. 통계개발원.
- 문화체육관광부(2019).「201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9).「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체계 개발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20).「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20).「예술인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1).「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 박현정, 홍현정(2010). 지역통계 수요와 공급간의 매칭연구. 통계개발원.
- 부산문화재단(2020).「2020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 부산문화재단(2021).「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 서울문화재단(2019).「2019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 서울문화재단(2021).「2020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 익산문화재단(2016).「익산지역 문화지표조사」.
- 인천문화재단(2020).「인천문화지표 결과보고서」.
- 장훈(2020). 공공문화시설 수요 데이터 수집체계 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대욱 외(2016). 지역통계 현황분석 및 보완·개발 연구. 행정자치부.
- 조석주, 장은주(1999).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능 강화 방안. 지방행정연구원.
- 질병관리본부(2018).「소지역통계 생산방안과 연중 조사체계 전환을 위한 2차 정책세미나 자료」.
- 질병관리청(2022).「2021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최봉호(2009). 수요/공급 측면에서 본 지역통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건복지 포럼 제157호, 30~40.

- 통계청(2013).「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13년~'17년)」.
- 통계청(2017).「제2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18년~'22년)」.
- 통계청(2018).「지역통계 중장기발전계획」.
- 통계청(2020).「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기본통계 중기 개선 계획안」.
- 통계청(2020).「이용자용 통계정보고고서_국민여가활동조사 2020」.
- 통계청(2021).「'21 사회조사 지침서」.
- 통계청(2021).「기본통계 작성 매뉴얼」.
- Butcher, B. & Elliot, D (1986). A Sampling errors manual.
- European commission(2012). ESSnet-CULTURE Final Report.
- OECD(2018). Culture and Local Development : Background document.
- UNESCO(2009).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웹페이지〉

- 문화셈터.
- 문화정보원.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
- 통계청. 작성기관 및 승인통계 현황.
- 통계청. 기본통계 설명자료. 사회조사 설명자료, 문화예술활동조사 설명자료, 콘텐츠산업조사 설명자료
- 통계청. e-지방 지표.
- Active Lives Survey 온라인 설문 홈페이지.
- Arts Council England, The Active Lives Survey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Council of Europe Portal.
- France 문화부 홈페이지.
- France 아틀라스 홈페이지: \https://atlasculture.fr/
- Sport England. Active Lives Survey.
- UNESCO 홈페이지.
- Council of Europe Portal.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System

Hoon Jang

It is essential to create customized regional statistic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decision-making when establishing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n this policy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system in terms of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classification of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and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in order to establish a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system.

First, in the case of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local culture status statistics is the only statistic that can be viewed as a kind of regional cultural statistical index. However, local culture status statistics were developed to monitor regional cultural policies rather than considering all cultural statistical factors, so it was diagnosed as insufficient as a standard cultural index system to clearly grasp the overall cultural ecosystem of the region. The core problem was that there were no statistics that could identify the private cultural ecosystem of the region, an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ultural enjoyment of the local people were omitted.

Second, we looked at the problem of classification of cultural statistics related to what should be measured. There was no standard reference point for cultural genres, cultural facilities, and survey cycle, so there was a discrepancy in cultural genre, cultural facility, and survey cycle for each statistic. Similar items exist for each statistic, and the discrepancy between statistics is in part due to the absence

of standard classification and operational definitions.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ultural statistics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by region, it was found that there are almost no dedicated personnel,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 systems related to cultural statistics, so it is impossible to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the collected cultural statistics as well as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statistic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a plan to strengthen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service in parallel with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a standardized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classific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governance, referring to stakeholder survey results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regional-level cultural statistics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missing cultural statistics appeared to be the most urgent tasks. Inconsistency between cultural statistics and omission of some cultural statistics due to the lack of a standard reference point. Since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are the most essential work to clearly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cultural ecosystem of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the demand for regional-level statistics related to cultural enjoyment is high, so it is very urgent to develop and spread cultural statistics that can show cultural enjoyment at the regional level.

Second, a system in which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can be collected and managed homogeneously is also essential. Even if it becomes clear what needs to be managed, if each element is not managed accurately, the cultural ecosystem of the region cannot be fully grasp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dedicated manpower, an exclusive organization, and a cooperative system to continuously improve cultural statistics capabilities and produce regional-level cultural statistics that can be compared between regions. In this regard, as a result of the local demand surve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and work system to secure a budget,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ultural statistics governance system.

Lastly, although the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system is insufficient, the regional

cultur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is being operated by collecting previously dispersed statistics and data, but it is understood that there are deficiencies as a transitional syste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customer-tailored statistical services in the future.

Keywords

Cultural statistics, Cultural statistics framework, Regional cultural statistics, Sub-region cultural statistics, Statistic governance, Statistic service.

부록

설문지

부록

지역 문화통계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지역단위 문화통계체계 구축에 필요한 관련 현황, 지역의 수요,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역단위 문화통계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을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지역단위 문화통계 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세

SQ3.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지방자치단체 ( )
②지역문화재단(혹은 지역문화기관) ( )

SQ4. 귀하의 직종은?

① 행정직 ② 기술직 ③ 전산/통신직
④ 기타( )

SQ5.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세종 ⑨경기 ⑩강원 ⑪충북 ⑫충남 ⑬전북 ⑭전남
⑮경북 ⑯경남 ⑰제주

SQ6. 귀 기관의 소재지 규모는 어떠합니까?

①대도시(서울시, 광역시) ②중소도시 ③읍면지역 이하

A. 지역문화통계 생산 관리 현황

■ **문화통계란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문화상품(문화예술, 문화산업)이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 관여된 사항에 대한 통계 의미함**

■ **예시**

-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지역 문화산업(기업 및 콘텐츠)과 관련된 통계
- 지역 공공문화시설과 관련된 통계
-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
- 지역 문화행정(사업, 정책, 예산 등) 관련 통계
- 지역 문화프로그램(전시, 공연, 축제, 교육 등) 관련 통계

문1. 귀 기관에서는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습니까? (※ 하나라도 있다면 1번에 응답해주십시오)

① 생산·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있다 ☞문 1-1로

② 생산·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없다 ☞문 1-9로

문1-1. 귀 기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문화통계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개 이상 응답해주십시오)

①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② 지역 문화산업(기업 및 콘텐츠)과 관련된 통계

③ 지역 공공문화시설과 관련된 통계

④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

⑤ 지역 문화행정(사업, 정책, 예산 등) 관련 통계

⑥ 지역 문화프로그램(전시, 공연, 축제, 교육 등) 관련 통계

⑦ 기타 (_____)

문1-2. 〈현황〉 귀 기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문화통계와 관련해 아래 문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생산의 정기성	법적(조례) 근거
문1-1.① 응답자	□ 정기적 □ 비정기적	□ 있음 □ 없음
문1-1.② 응답자	□ 정기적 □ 비정기적	□ 있음 □ 없음
문1-1.③ 응답자	□ 정기적 □ 비정기적	□ 있음 □ 없음
문1-1.④ 응답자	□ 정기적 □ 비정기적	□ 있음 □ 없음
문1-1.⑤ 응답자	□ 정기적 □ 비정기적	□ 있음 □ 없음
문1-1.⑥ 응답자	□ 정기적 □ 비정기적	□ 있음 □ 없음
문1-1.⑦ 응답자	□ 정기적 □ 비정기적	□ 있음 □ 없음

문1-3. 〈목적〉 귀 기관에서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지역의 문화통계자료 축적
② 지역문화 정책추진 근거 확보
③ 단순한 정보 파악
④ 업무보고 활용
⑤ 외부(시민 등)에 정보 제공
⑥ 기타(_____)

문1-4. 〈업무인식〉 귀 기관에의 문화통계 관련 업무를 상시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통계프레임〉 귀 기관에서는 다양한 문화관련 정보 및 통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문화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1-6. 〈관련 인력〉 귀 기관에는 문화통계를 전문적으로 전담 관리 인력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1-7. 〈관련 예산〉 귀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문화통계와 관련된 예산확보는 아래 보기 중 무엇과 가깝습니까?

① 일반적으로 문화통계조사 예산이 편성된다.
② 일반적으로 문화통계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부족하다.
③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른 예산을 돌려서 활용한다.
④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문화통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문화통계 조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⑥ 기타(_____)

문1-8. 〈걸림돌〉 귀 기관에서 문화통계의 생산·관리 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관련 업무체계의 부재
② 관련 예산 부족
③ 관련 인력 부족
④ 문화모니터링체계의 부재로 조사방향 설정의 어려움
⑤ 기타(_____)

문1-9. 〈미수집 이유〉 귀 기관에서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의 ②응답자만)

① 지역문화통계에 대한 관심이 없음
② 조사 예산확보가 어려움
③ 관련 조례 등 법적근거가 없음
④ 문화지표체계의 부재로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모름
⑤ 문체부에서 조사해서 공표하는 통계로 충분함
⑥ 기타(_____)

문1-10. 〈활용자료〉 귀 기관에서 문화통계를 생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주로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1번의 ②응답자만)

① 중앙정부의 통계 자료
② 내부현황자료
③ 산하기관의 내부자료
④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료
⑤ 기타(　　)

B. 지역단위 문화통계 수요

■ **지역단위 문화통계란 공간적으로 시군구의 문화시장에서 문화상품이 순환되는 과정에 관여된 사항에 대한 통계를 의미함**
- 문화시장 : 공공시장과 민간시장
- 문화상품 : 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도서출판, 시청각/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 등
- 순환 : 생산, 유통, 소비를 모두 포함

문1. 〈활용 문화통계〉 현재 귀 기관에서 자주 활용하는 중앙정부의 문화통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화통계별 활용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내용	중앙정부 통계 활용도				
	거의 활용하지 않음	활용 하지 않는 편	보통	활용하는 편	자주 활용함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예술인실태조사 등)	①	②	③	④	⑤
지역 문화산업(사업체, 콘텐츠) 관련 통계 (콘텐츠산업통계 조사 등)	①	②	③	④	⑤
지역 공공문화시설과 관련된 통계 (문화기반시설 총람, 전국도서관 통계 등)	①	②	③	④	⑤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 (문화활동조사, 여가활동조사 등)	①	②	③	④	⑤
지역 문화프로그램(전시, 공연, 교육 등) 관련 통계 (공연예술실태조사, 문예연감 등)	①	②	③	④	⑤
지역의 문화행정 관련 통계 (지역문화실태조사 등)	①	②	③	④	⑤

문2. 〈필요성 인식〉 귀하는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귀하께서는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2 ③, ④, ⑤ 응답자만)

① 중앙/자치단체 및 기관의 예산확보, 사업 확장 등 업무에 활용
② 외부 자료요구에 대응(통계자료, 현황자료 등)에 활용
③ 문화사업 총괄 관리·조정 등 근거 자료로 활용
④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사용
⑤ 지역 간 비교분석에 활용
⑥ 기타(_____)

문2-2. 귀하께서는 지역단위 문화통계는 아래 보기 중 어느 단위 까지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 ③, ④, ⑤ 응답자만)

① 광역자치단체　② 기초자치단체　③ 읍면동

문2-3. 귀하께서는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2 ①, ② 응답자만)

① 필요성 부족　② 지역 간 비교에 따른 경쟁 증가
③ 업무 가중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④ 관련 전문 인력 부족
⑤ 기타(_____)

문3. 〈중요도/시급성/활용성 인식〉 귀하께서는 아래 주제와 지역단위 통계의 중요도, 시급성, 활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통계 주제 내용	통계 중요도					도입 시급성					정책 활용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함					전혀 시급하지 않음 -매우 시급함					전혀 활용되지 않음 - 매우 활용됨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문화산업(사업체, 콘텐츠) 관련 통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공공문화시설과 관련된 통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향유 관련 통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문화 프로그램(전시, 공연, 교육 등) 관련 통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의 문화행정(사업, 예산, 정책 등) 관련 통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 4. 〈생산관리 주체〉 귀하께서는 아래의 지역단위 문화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일차적 생산·관리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내용	수집의 주체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관련 통계	① 기초자치단체 ② 광역자치단체 ③ 중앙부처
지역 문화산업(사업체, 콘텐츠) 관련 통계	① 기초자치단체 ② 광역자치단체 ③ 중앙부처
지역 공공문화시설과 관련된 통계	① 기초자치단체 ② 광역자치단체 ③ 중앙부처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향유 관련 통계	① 기초자치단체 ② 광역자치단체 ③ 중앙부처
지역 문화프로그램(전시, 공연, 교육 등) 관련 통계	① 기초자치단체 ② 광역자치단체 ③ 중앙부처
지역의 문화행정(사업, 예산, 정책 등) 관련 통계	① 기초자치단체 ② 광역자치단체 ③ 중앙부처

문 5. 〈통계협력〉귀하는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에 통계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5-1. 귀하는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다음 중 어떤 협력체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 ③, ④, ⑤ 응답자만)

① 중앙부처 - 광역자치단체의 협력
② 중앙부처 -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③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④ 기타(_____)

문 6. 〈전담조직〉 귀하는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6-1.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를 위해 지역에 전담조직을 지정한다면 다음 중 어떤 조직이 적당하겠습니까? (문6 ③, ④, ⑤ 응답자만)

① 자치단체 내 부서
② 지역소재의 대학교
③ 지역의 문화기관
④ 지역의 연구기관
⑤ 기타(_____)

문7. 〈고려 사항〉 만약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각 항목이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려사항	고려수준				
	전혀 고려 필요 없음				매우 고려 필요함
재원조달 방법	①	②	③	④	⑤
관련 인력 및 업무체계	①	②	③	④	⑤
관련근거(제도, 조례 등)	①	②	③	④	⑤
관련 매뉴얼	①	②	③	④	⑤

문8. 〈기대 효과〉 향후 지역단위 문화통계가 생산 된다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2순위까지 응답가능)

① 지역 맞춤형 문화정책개발 가능

② 지역 문화자치 분권의 기초 마련

③ 근거 및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대응력 강화

④ 문화행정 및 정책의 효율성 강화

⑤ 기타(_____)

문9. 지역단위 문화통계 생산 및 관리와 관련해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Q. 귀하께서는 설문 답례품 제공 및 설문 응답 검증을 위해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답례품 제공 및 설문 응답 검증 후 제공해주신 정보는 바로 폐기됩니다.)

① 동의 ② 동의하지 않음

Q. 성명 및 연락처를 응답해 주십시오.

성명	
연락처(핸드폰)	- -

※ 연락처를 기준으로 답례품이 전달됩니다. 반드시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집필내역

연구책임

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3장, 4장, 6장, 연구총괄

연구진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5장

지역 문화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발 행 인 류 광 훈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22년 10월 21일

발 행 일 2022년 10월 21일

인 쇄 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24-6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06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장 훈·노영순(2022), 지역 문화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6

93300
9 788960 359246
ISBN 978-89-6035-924-6